

발간등록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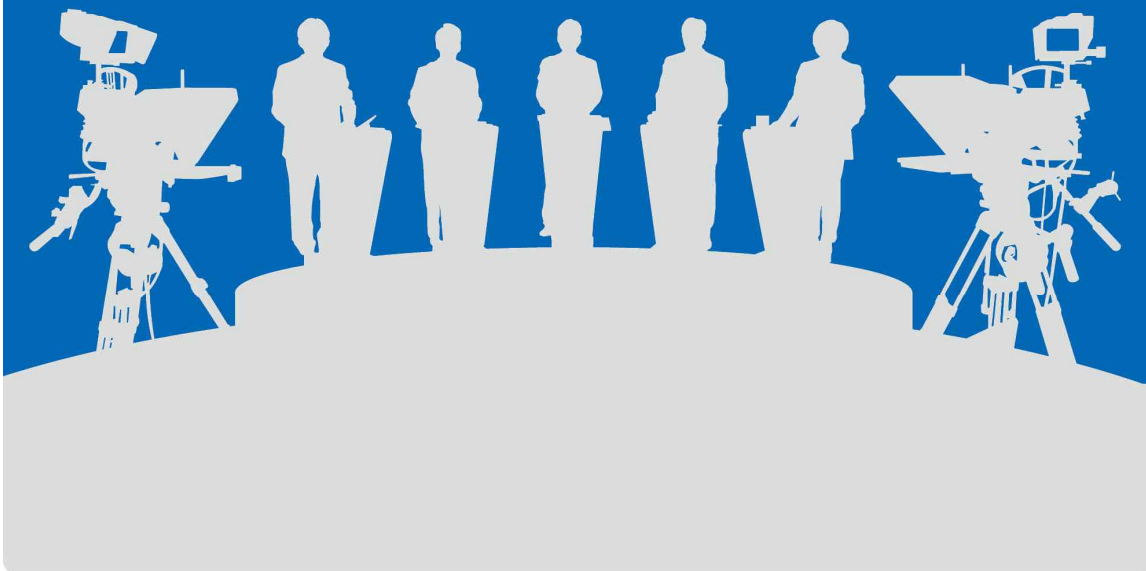
34-9760504-170032-14



2017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백서



일러두기

1.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백서』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의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을 개정·고시한 2017년 1월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심포지엄이 개최된 2017년 7월까지 중앙선거방송토론 위원회의 직무활동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2. 이 백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독자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자 또는 영문을 괄호 안에 병기하였다.
3. 본문에 사용되는 법률과 규칙의 명칭은 첫 사용 시 괄호 안에 ‘이하 약칭’이라고 부기한 후, 아래와 같이 약칭으로 표기하였으며, 법률과 규칙의 명칭은 조문과 함께 사용될 경우에만 「 」 안에 표기하였다.

■ 법률·규칙명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 관리규정
관리규정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운영규정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
공개·방청규정

4. 독자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주에 별도의 설명을 하였으며,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는 별도의 목록 없이 각주에 표시하였다.

선거방송토론은 국민이 선거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 등을 한자리에서
비교 판단할 수 있는 정책선거의 기제로
작용하여야 합니다.



지난 2004년 3월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각종 공직선거의 후보자토론회 및 공직선거정책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출범하였습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창설은 유권자 동원을 통한 세과시 등 우리나라 정치·선거문화 발전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했던 옥외합동연설회 시대와의 단절과 함께 미디어선거라는 새로운 선거환경으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직접 반영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치참여의 과정입니다. 이에 선거방송토론은 국민이 선거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 등을 한자리에서 비교 판단할 수 있는 정책선거의 기제로 작용하여야 합니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는 헌정사상 조유의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선거로서 역대 어느 대선에서보다 후보자 검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고, 후보자토론회는 영향력이 가장 큰 선거운동의 방식으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유권자 중심의 선거방송토론’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유권자의 효과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새로운 토론방식을 과감하게 도입함으로써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완전시간총량제 자유토론 및 스탠딩토론 그리고 후보자 상호 정책검증 토론방식을 처음으로 시도하여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에 유용한 정보원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참여 및 시청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국민질문을 공개모집하여 후보자토론회의 공통질문으로 활용하였으며, 서울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에서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참여형 인터뷰 영상을 촬영하여 각 차수별 후보자토론회의 도입부에 방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상파방송을 비롯하여 종합편성채널, 국제방송, 인터넷 포털 등 다양한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유권자 중심 후보자토론회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또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역사적 의의 및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다채로운 콘텐츠와 함께 대국민 소통 강화에 중점을 둔 위원회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국민과 함께하는 후보자토론회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선거방송토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하였습니다.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에서 후보자간 네거티브와 주제에 벗어난 발언 등으로 정책토론의 취지가 다소 훼손된 일은 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의 기본원칙인 공정성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긴급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후보자토론회가 정책중심의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각 후보자 측에 강력한 협조요청 의지를 피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정 관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대통령선거에서 다수의 후보자와 다자구도에 따른 문제점 등이 일부 제기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여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방송토론회가 미디어 시대의 핵심적인 후보자 검증 및 선거운동의 방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국단위 공직선거가 실시된 해에 선거방송토론의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사료로 보존하기 위해 백서를 발간해 왔습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을 돌아본 내용과 앞으로 선거방송토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이 담긴 본 백서가 선거방송토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이 분야를 연구하는 분들에게 지식의 보고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백서』의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집필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7년 12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최은수

사진으로 보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7 1

.....

제1장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개관

1. 들어가는 말	4
2.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토론	9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9
2) 선거방송토론의 개념	6
3) 선거방송토론의 기능적 의의	6

.....

제2장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리기반 구축

1. 관리체계 정비	4
1) 관계규정 개정	4
2) 선거방송토론 관리단 편성	5
3) 후보자토론회 자문회의 개최	7
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자문 및 의사결정 구조	8
(1) 전문위원회의	9
(2) 준비소위원회의	7
(3) 위원회의	17

Contents

목차

2.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6
1) 정당관계자 업무협의회	67
2) 공영방송관계자 업무협의회	77
3)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	97
3. 국민과 함께하는 후보자토론회 환경 조성	08
1) 홈페이지 성능개선 및 국민 친화적 개편	08
2) 공식 페이스북 개설	18
3) 국민질문 공개모집 및 국민인터뷰 영상 제작	58
(1) 개요	8
(2) 국민질문 공개모집 세부결과	68
(3) 국민인터뷰 영상 제작	19
4)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서비스 및 시청 인증샷 행사	19

.....

제3장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리

1. 공직선거정책토론회	4
1) 개요	4
2) 토론회 관리	9
(1) 개최 일시·장소 등 결정	69
(2) 초청대상 정당 선정	79
(3) 토론의제 수집 및 토론주제 선정	89
(4) 진행방식 결정	10
(5) 사회자 선정	12
(6) 설명회 개최	13
(7) 질문사항 선정	14
(8) 토론회 개최 홍보	14
(9) 토론회장 설비 및 토론회 진행	16

2. 후보자토론회	108
1) 개요	108
2) 토론회 관리	110
(1) 개최 일시·장소 등 결정	111
(2) 진행방식 결정	112
(3) 사회자 선정	113
(4) 토론주제 선정	114
(5) 초청대상 후보자 선정	115
(6) 설명회 개최	116
(7) 질문사항 선정	116
(8) 토론회 개최 홍보	117
(9) 토론회장 설비 및 안전관리	118
(10) 토론회 진행	118
(11) 시청률	118

.....

제4장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평가 및 기록

1. 후보자토론회 평가	115
1) 국민모니터단 운영	115
(1) 국민모니터단 평가 주요 결과	117
(2) 국민모니터단 우수 소감문	118
2)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연구용역	121

Contents

목차

2. 평가회 개최	186
1) 유권자대토론회_유권자 평가	186
2)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심포지엄_전문가 평가	881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_자체 평가	9
3. 기록영상 제작	192
4. 주요 민원사례	194

.....

부록

1. 주요업무추진 연표	16
2. 토론회 토론진행표	198
1) 공직선거정책토론회	9
2) 후보자토론회	19
3. 보도자료	203
4. 언론보도 현황	223
1) 후보자토론회 주요 언론보도	223
2) 후보자토론회 언론보도 분석	20
5.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연구 결과	26
6. 선거방송토론 관련 법규 및 규정	20
• 집필 후기	304

.....

DVD

1. 토론회 녹취록
2. 토론회 동영상

제2장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리기반 구축

- 표 2-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 개정 현황 / 64
- 표 2-2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리단 편성 및 업무 분장 현황 / 66
- 표 2-3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자문회의 개최 개요 / 68
- 표 2-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자문 및 의사결정 구조 / 68
- 표 2-5 전문위원회의 구성 현황 / 69
- 표 2-6 전문위원회의 운영 현황 / 69
- 표 2-7 준비소위원회의 구성 현황 / 70
- 표 2-8 준비소위원회의 개최 현황 / 71
- 표 2-9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 71
- 표 2-10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련 위원회의 개최 주요 현황 / 72
- 표 2-11 정당관계자 업무협의회 참석 현황 / 76
- 표 2-12 공영방송관계자 업무협의회 참석 현황 / 77
- 표 2-13 중계방송 관련 업무협의회 주요 현황 / 78
- 표 2-14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개요 / 79
- 표 2-15 공식 페이스북 운영 현황 / 81
- 표 2-16 제19대 대통령선거 페이스북 주요 내용 / 82
- 표 2-17 페이스북 운영 세부 분석 결과(2017. 3. 13 ~ 5.14.) / 83
- 표 2-18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국민질문 공개모집 개요 / 87
- 표 2-19 응모자 성별·연령대별 분포 현황 / 87
- 표 2-20 성별·연령대별 질문건수 현황 / 87
- 표 2-21 토론분야별 응모 현황 / 88
- 표 2-22 국민질문 정치분야 응모 세부 내용 / 89
- 표 2-23 국민질문 경제분야 응모 세부 내용 / 89
- 표 2-24 국민질문 사회분야 응모 세부 내용 / 90

- 표 2-25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접속자 현황('17. 5. 10. 현재) / 92
- 표 2-26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 인증샷 참여 현황('17. 5. 10. 현재) / 92

제3장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리

- 표 3-1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 현황 / 95
- 표 3-2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시청률 현황 / 96
- 표 3-3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초청정당 선정기준 일람표 / 97
- 표 3-4 공직선거정책토론회 토론자 현황 / 98
- 표 3-5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전문가조사 개요 / 98
- 표 3-6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전문가조사 결과 / 99
- 표 3-7 공직선거정책토론회 토론주제 등 선정 현황 / 100
- 표 3-8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진행방식 / 101
- 표 3-9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설명회 개최 현황 등 / 103
- 표 3-10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사회자 공통질문 및 요지 / 104
- 표 3-11 후보자토론회 개최 현황 / 109
- 표 3-12 후보자토론회 개최 일정 / 111
- 표 3-13 후보자토론회 중계방송 현황 / 112
- 표 3-14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개요 / 113
- 표 3-15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스탠딩) / 114
- 표 3-16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좌식) / 115
- 표 3-17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스탠딩) / 116
- 표 3-18 초청외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좌식) / 117
- 표 3-19 분야별 토론의제 개발 현황 / 121
- 표 3-20 후보자토론회 국민여론조사 개요 / 122

Contents

표목차

- 표 3-21 정치분야 논의 주제(개방형 질문) / 123
- 표 3-22 경제분야 논의 주제(개방형 질문) / 125
- 표 3-23 사회 분야 논의 주제(개방형 질문) / 127
- 표 3-24 후보자토론회 토론주제 선정 현황v129
- 표 3-25 후보자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자료 수집결과 / 131
- 표 3-26 후보자토론회 초청 후보자 선정 / 131
- 표 3-27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 현황 / 132
- 표 3-28 정당별 직전선거의 득표율 현황 / 132
- 표 3-29 후보자토론회 설명회 개최 현황 / 133
- 표 3-30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자리(발언순서) 추첨 결과 / 134
- 표 3-31 초청외 후보자토론회 자리(발언순서) 추첨 결과 / 134
- 표 3-32 후보자토론회 질문사항 검토 및 선정 절차 / 135
- 표 3-33 후보자토론회 질문요지 등 선정 현황 / 136
- 표 3-34 보도자료 제공 내역 / 137
- 표 3-35 후보자토론회 관련 인터뷰 보도 내역 / 138
- 표 3-36 후보자토론회 관련 기고 내역 / 138
- 표 3-37 후보자토론회 시청률 현황 / 151
- 표 3-38 역대 대선 후보자토론회 시청률 현황 / 152

제4장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평가 및 기록

- 표 4-1 국민모니터단 구성 현황 / 156
- 표 4-2 평소에 관심 있었던 질문의 제시 여부 / 159
- 표 4-3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공약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정책 유무 / 159
- 표 4-4 토론 진행방식 평가 / 161

Contents

표목차

- 표 4-5 토론 진행방식의 부적절성에 대한 이유 / 161
- 표 4-6 전체 토론시간 평가 / 162
- 표 4-7 참석 후보자 수의 적절성 평가 / 162
- 표 4-8 사회자 역할 평가 / 162
- 표 4-9 사회자 역할의 부적절성에 대한 이유 / 163
- 표 4-10 후보자토론회와 타매체와의 유익성 비교 / 164
- 표 4-11 차수별 후보자토론회 평가 / 165
- 표 4-12 국민모니터단 지원 동기(복수응답 가능) / 166
- 표 4-13 국민모니터단 활동 만족도 / 166
- 표 4-14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조사설계 / 179
- 표 4-15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사전조사) / 179
- 표 4-16 적절한 후보자토론회 횟수 / 180
- 표 4-17 후보자토론회의 시간(사후조사) / 180
- 표 4-18 여론조사 상위 후보자 중심의 토론방식에 대한 선호 / 180
- 표 4-19 선호 토론 방식(사후조사) / 180
- 표 4-20 스탠딩 토론 만족도(사후조사) / 181
- 표 4-21 후보자 상호간 정책검증토론 만족도(사후조사) / 181
- 표 4-22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관심정도와 투표여부(사후조사) / 181
- 표 4-23 후보자토론회의 선거정보 획득에 대한 효과성 / 182
- 표 4-24 후보자토론회의 상대적 유용성(타 정보매체와 비교) / 182
- 표 4-25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 여부 / 183
- 표 4-26 유권자대토론회 개최 개요 / 186
- 표 4-27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심포지엄 개최 개요 / 188
- 표 4-28 선거방송토론 기록영상 촬영내역 / 193

제2장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리기반 구축

- 그림 2-1 후보자토론회 자문회의 / 67
- 그림 2-2 전문위원회 / 69
- 그림 2-3 준비소위원회의 / 70
- 그림 2-4 제13차 위원회의(여의도 KBS 본관) / 74
- 그림 2-5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 / 79
- 그림 2-6 국민질문 공개모집 현장 / 85
- 그림 2-7 국민인터뷰 촬영 현장 / 91
- 그림 2-8 후보자토론회 시청 인증샷 홍보물 / 92

제3장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리

- 그림 3-1 사회자 백운기(KBS) / 102
- 그림 3-2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설명회 진행 / 104
- 그림 3-3 공직선거정책토론회 홍보물 / 105
- 그림 3-4 공직선거정책토론회 토론회장 설비 / 106
- 그림 3-5 토론자 및 사회자 토론시간관리 모니터 / 106
- 그림 3-6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진행 / 107
- 그림 3-7 국민인터뷰 영상 / 114
- 그림 3-8 후보자토론회 사회자 선정 현황 / 119
- 그림 3-9 정치분야 논의 주제(폐쇄형 질문) / 124
- 그림 3-10 경제 분야 논의 주제(폐쇄형 질문) / 126
- 그림 3-11 사회 분야 논의 주제(폐쇄형 질문) / 129
- 그림 3-12 후보자토론회 설명회 / 135

Contents

그림목차

- 그림 3-13 후보자토론회 홍보용 이미지 / 139
- 그림 3-14 후보자토론회 실시간 중계 / 139
- 그림 3-15 후보자토론회 홍보 / 140
- 그림 3-16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 KBS 특집방송 / 141
- 그림 3-17 후보자토론회 개최 스튜디오 설비 현황(1) / 141
- 그림 3-18 후보자토론회 개최 스튜디오 설비 현황(2) / 142
- 그림 3-19 후보자토론회 토론회장 구조물 / 143
- 그림 3-20 토론시간관리시스템 / 44
- 그림 3-21 수어통역세트 / 144
- 그림 3-22 기자석 / 145
- 그림 3-23 토론회장 출입통제 / 145
- 그림 3-24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 / 147
- 그림 3-25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 / 147
- 그림 3-26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 / 148
- 그림 3-27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 5분할 방송화면 / 148
- 그림 3-28 후보자토론회 수어통역방송 개선 / 150
- 그림 3-29 후보자토론회 수어통역방송 자막 / 150

제4장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평가 및 기록

- 그림 4-1 제19대 대통령선거 효과분석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회 / 178
- 그림 4-2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가장 잘 검증된 영역 / 182
- 그림 4-3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 선거 관심도의 변화 / 183
- 그림 4-4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 주변사람들과의 선거 관련 대화 / 183
- 그림 4-5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약에 대한 인지도 비교 / 184

Contents

그림목차

- 그림 4-6 토론회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정책과 대선 쟁점 정보 / 184
- 그림 4-7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 변화(사전/사후조사) / 184
- 그림 4-8 후보자토론회가 후보결정에 미친 영향 비교(%) : 제17대 대선~제19대 대선 / 185
- 그림 4-9 후보자토론회가 후보 지지에 미친 영향(사후조사) / 185
- 그림 4-10 유권자대토론회 웹포스터 / 187
- 그림 4-11 유권자대토론회 뉴스 보도 / 87
- 그림 4-12 제19대 대선 후보자토론회 평가 심포지엄 / 189
- 그림 4-1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직원 공동연수 / 190
- 그림 4-1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직원 합동평가 / 190
- 그림 4-15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등 기록영상 / 192

Photo View

사진으로 보는
2017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궁극적으로 선거방송토론은
「공직선거법」 제조에 명시된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을
구현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독특한
법적 장치입니다.



중 앙 선 거 방 송 토 론 위 원 회



제7차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2017. 4. 7. 위원회의실



전문위원회의 2017. 4. 11. 위원회의실



준비소위원회의 2017. 4. 18. 위원회의실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설명회 2017. 4. 3. 국회의원회관(안내자료 설명)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설명회 2017. 4. 3. 국회의원회관(토론자의 좌석·발언순서 추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설명회 2017. 4. 3. 국회의원회관(토론회 진행방식 등 안내)



공직선거정책토론회 2017. 4. 10. KBS



공직선거정책토론회 2017. 4. 10. KBS



공직선거정책토론회 2017. 4. 10. KBS



공직선거정책토론회 2017. 4. 10._KBS



후보자토론회 설명회(초청대상) 2017. 4. 19. 위원회의실



후보자토론회 설명회(초청외대상) 2017. 4. 19. 위원회의실



후보자토론회 설명회 2017. 4. 19. 위원회의실



후보자토론회 설명회(초청대상) 2017. 4. 19. 위원회의실



후보자토론회 설명회 2017. 4. 19. 위원회의실(토론자의 좌석·발언순서 추첨)



국민질문 공모 2017. 4. 14._서울역



국민질문 공모 2017. 4. 14. 서울역



국민질문 공모 2017. 4. 14. 서울역



국민질문 공모 2017. 4. 14. 서울역



국민인터뷰 제작 2017. 4. 14. 서울역



국민인터뷰 제작 2017. 4. 14. 서울역



국민인터뷰 제작 2017. 4. 14. 서울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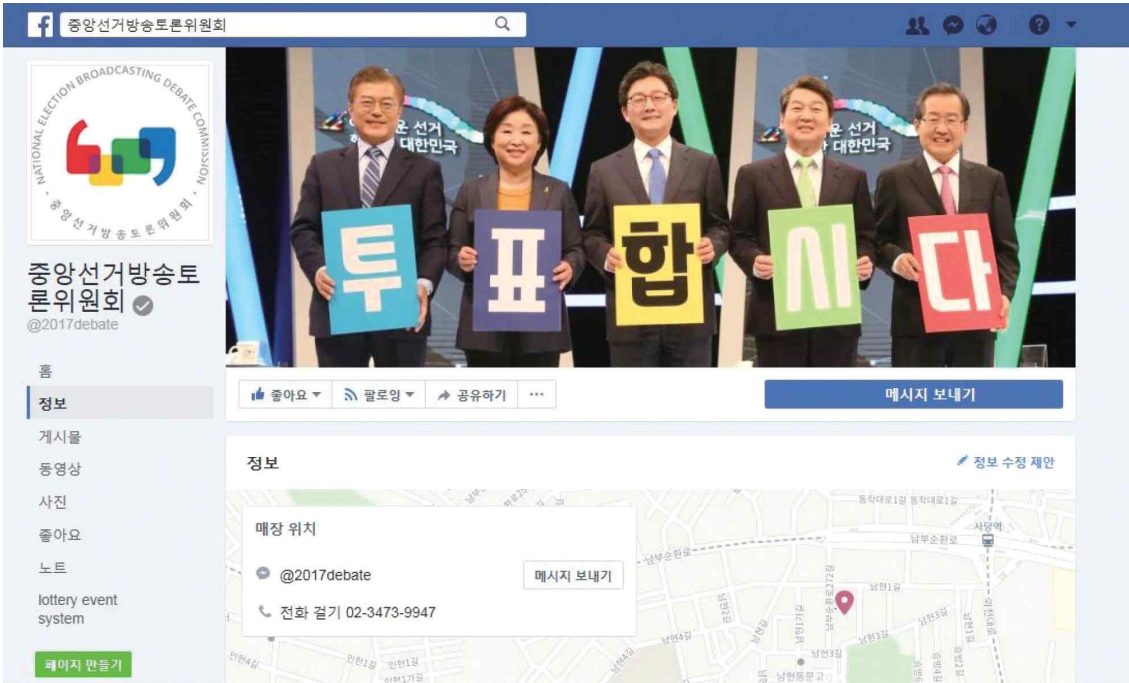
위원회 청사의외벽 현수막 게시



후보자토론회 안내 거리 현수막 게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입구



후보자토론회 안내 거리현수막 게시_대전광역시 관내 육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페이스북 개설



후보자토론회 안내 등 카드뉴스 게시



온라인 이벤트_국민질문 공모



온라인 이벤트_토론회 인증샷 공모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 2017. 4. 23_KBS



토론회장 앞 선거운동



토론시간관리시스템



기자석



리허설



보도사진 촬영



수어통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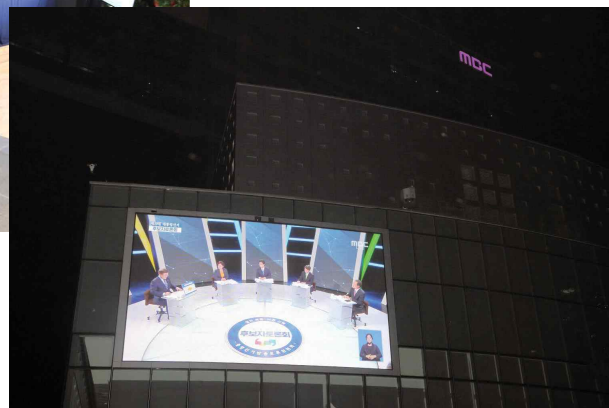
타이머(사회자용 화면)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 2017. 4. 28._M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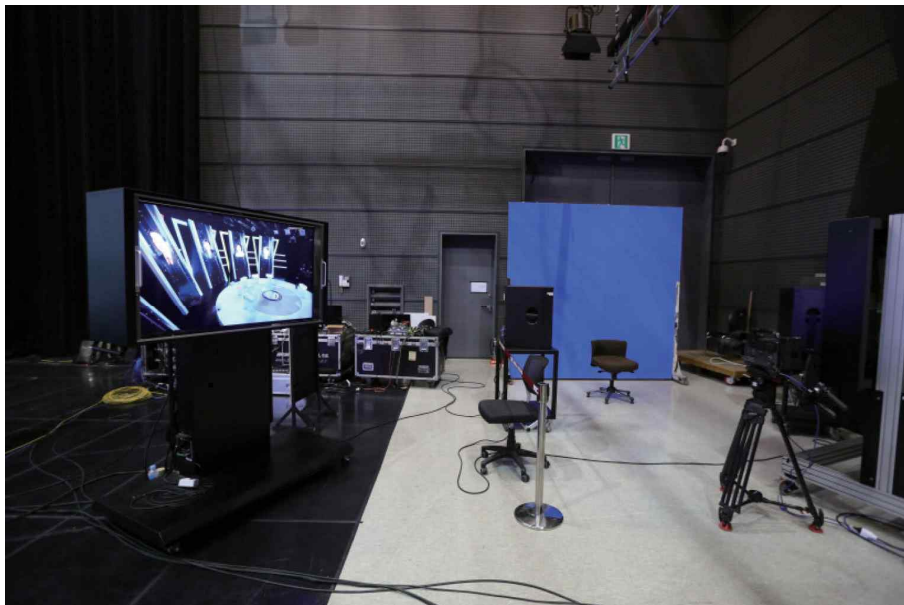
기자석



방송 송출 장면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 2017. 4. 28. MBC



수어통역 세트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 2017. 5. 2. MBC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 2017. 5. 2._MBC



기자석



기념촬영_후보자 / 위원



기념촬영_위원



기념촬영 / 직원



초청의 후보자토론회 2017. 4. 24. KBS



초청의 후보자토론회 2017. 4. 24. KBS



타이머(사회자용 화면)



타이머(후보자측 화면)



위원 워크숍 2017. 6. 22.



직원 워크숍 2017. 5. 24.



유권자대토론회 2017. 5. 17. _씨네큐브 광화문



유권자대토론회 2017. 5. 17. 씨네큐브 광화문



후보자토론회 평가 심포지엄 2017. 7. 12. 한국프레스센터



축사_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개회사_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토론회 평가 심포지엄 2017. 7. 12. / 1부



후보자토론회 평가 심포지엄 2017. 7. 12. / 2부

1. 美 대선 후보자토론회 결정적 순간 (2017. 3. 28.)

제19대 대선 TV 토론, 알고 보면 다르다
美 대선 후보자 토론의 결정적 순간

pick me pick me 투미 UP '선거방송토론, 정맥선거의 중심입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1 **1972!**

불안하고 어두운 모습의 닉슨
당당하고 밝은 모습의 케네디

신에 장자인 케네디, 원작 부통령 닉슨 최고 대통령 당선

pick me pick me 투미 UP '선거방송토론, 정맥선거의 중심입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 **2차, 우트**

민대협, "대통령 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지 않나요?"
레이건, "나는 내 경쟁자의 젊음과 경험 부족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겠다"

상대의 공세를 유머로 유연하게 받아 넘긴 레이건 재선 성공

pick me pick me 투미 UP '선거방송토론, 정맥선거의 중심입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3 **태도**

1992년 공화당 부시와 민주당 클린턴과의 TV토론.
부시는 토론 도중 손목시계를 자주 쳐다보는 모습과
유권자의 질문에 황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선 패배의 빌미 제공

pick me pick me 투미 UP '선거방송토론, 정맥선거의 중심입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경쟁자의 공세를 잘 받아냈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생기는 거 보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던 후보자가 단순한 실수, 이미지 전달 실패로 인해 패배했던 지도 있습니다. 그만큼 TV토론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모든 것들을 비교·판단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우미입니다.

[이번 대선TV토론회] 후보자가 내세우는 공약, 장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승리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유권자들은 누구를 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 TV토론에서 그 결과를 예!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
중계방송 일정

1차 토론회 정치분야
4월 23일(일) 20:00~22:00

2차 토론회 경제분야
4월 28일(금) 20:00~22:00


3차 토론회 사회분야
5월 2일(화) 20:00~22:00

토론회 1차 국정질문
4월 24일(월) 23:00~01:00

주최: KBS, MBC


국민당에 대해선 패배
1. 국민당에 대해선 패배
2. 국민당에 대해선 패배
3. 국민당에 대해선 패배

2. 대한민국 대선 후보자토론회 어떻게 변했나 (2017. 3. 28.)




이렇다운 선거
후보자들끼리

정당토론 세운전제




지난 시기에는 미디어 후보자들의 TV 토론이 선거 고려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인 순간을 삼켜왔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선후보자 TV토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다운 선거
후보자들끼리

정당토론 세운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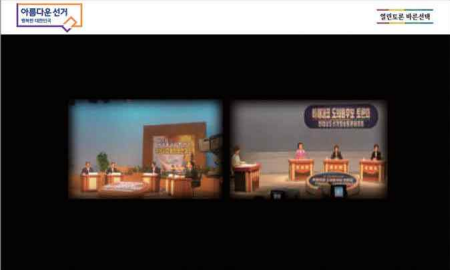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에 따라 행정민주당 김대중, 신민주공화당 김동철, 통일민주당 김영삼, 민주정의당 노태우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간론토론회'가 전국 녹화중계방송을 통해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렇다운 선거
후보자들끼리

정당토론 세운전제


하지만 사실 명백히 따지지면
이는 최초의 TV토론이라 볼 수 있으나, 토론이 지나치게 짧아 토론시간을 두고 후보자 간 협박이 이뤄지지 못해 인연이 단박에 끊겼습니다.
간론토론회에서 자물쇠로 잠긴 30분으로, 후보자 양측의 쟁점을 심층에 담으려는 데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운 선거
후보자들끼리

정당토론 세운전제

92년 제4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법적 한계와 정당 간 차이는 현실적 문제로 선거법 상의 TV토론은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후보자 여러명일 때의 구체적 참석 기준이나, 후보자의 TV토론 참석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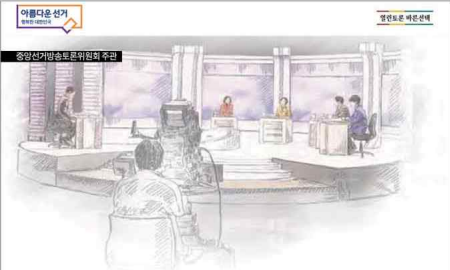


이렇다운 선거
후보자들끼리

정당토론 세운전제

1997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
↓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
↓
3회 이상 대당·토론회를 의무적 개최, 관리

15대 대선 기간 동안 개최된 토론회는 100여 차례, 하지만 언론사로부터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한, 토론에 참여하지 못한 일부 후보자들로부터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어요. 이에 따라 97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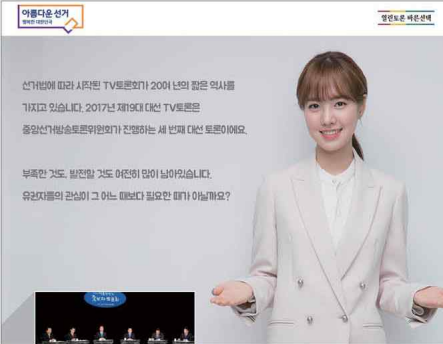


이렇다운 선거
후보자들끼리

정당토론 세운전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주관

이후 2004년, 선거기간동안의 준비, 진행되는 토론회는 전문성과 발전된 토론문화를 만들기 위해 부족한 부분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기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신설, 상설기관화하여 지방, 중선, 대선 토론 모두를 주관하게 됩니다.



이렇다운 선거
후보자들끼리

정당토론 세운전제

선거법에 따라 시작된 TV토론이 20여 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 제19대 대선 TV토론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진행하는 세 번째 대선 토론이에요.
부족한 것도, 발전할 것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3. 불꽃 토론, 이럴 때... 사회자는? (2017. 3. 29.)



pick me pick me **투미 UP** '선거방송토론, 정책선거의 중심입니다' **평민토론** 박문관씨



pick me pick me **투미 UP** '선거방송토론, 정책선거의 중심입니다' **평민토론** 박문관씨



2012년 오바마와 클린의 대립형 후보자 TV 토론회
발언 시간이 초과한 오바마에게 정 레러 "이제 그만"이러자
발언 시간이 초과한 오바마에게 정 레러 "이제 그만"이러자 / 오바마 "당신이 깨어오는 바람에 도가 지나갔다"

2012년 대선후보자토론회 사회자 정 레러는 총 12번의 대선 TV토론회를 진행했다. 누구보다도 공평하고, 엄격한 사회의 달인으로 평명이 나오는 레러는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보도 방식을 고집하는 진짜 "언론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TV 토론에 참여한 후보들은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느라 여러 번 제한시간을 넘겼다. 이런 사람들을 중재하고, 공정한 토론을 만들어주는 능력은 오롯이 사회자의 역할일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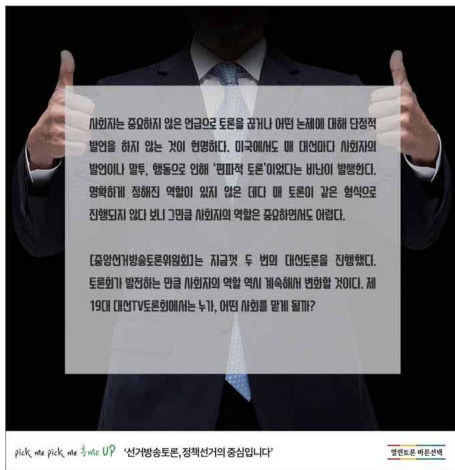
pick me pick me **투미 UP** '선거방송토론, 정책선거의 중심입니다' **평민토론** 박문관씨



크리스 윌리스
"2016년에 진행했던 킬러와 트럼프의 3차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크리스 윌리스는 두 후보가 영활히 부딪힐 때 나는 여기 실어놓은 화분이 아니다"며 유머를 통해 토론 분위기를 돌리기도 했으며, 트럼프에게 "대선 패배 시 승복할 것"이라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단순이 토론을 조율하고 진행하는 역할은 넘어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질문들을 직접 하기도 했다.

레스터 홀트
같은 대선에서 1차 TV토론을 담당했던 레스터 홀트는 윌리스와 달리 많은 비판을 받았다. 킬러와 트럼프 두 후보의 발언을 제대로 막지 못한 데다, 여권이 요구한 팩트체커의 역할(사실 확인)을 위한 모습 역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는 그에 대해 "준재깅이 없어 토론장면 후보지만 있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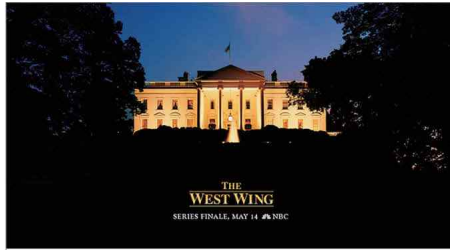
pick me pick me **투미 UP** '선거방송토론, 정책선거의 중심입니다' **평민토론** 박문관씨



pick me pick me **투미 UP** '선거방송토론, 정책선거의 중심입니다' **평민토론** 박문관씨



4. 현실보다 더 현실, 드라마 속 토론 - 미드 웨스트윙 (2017. 4. 6.)



지열한 토론은 어떻게 만들어 집까요? 우리가 모르는 뒷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미국 백악관의 집요인을 일컫는 미드 <웨스트윙>.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총 시즌 7까지 제작, 방송되었습니다. 정치가를 보좌하며 토론 전략을 만드는 보좌진들의 세계를 살금 살금 느껴 보실 수 있는 잘 알려진 드라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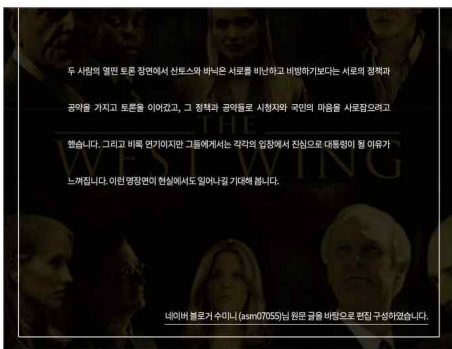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 조슈아 버틀러가 대통령과 참모진이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악재 속에서 재선에 성공하고 <시즌 6-7> 편에 걸쳐 새로운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이 흥미롭게 진행되는데요. 특히 시즌 6부터는 기존에 시도되지 않은 촬영 및 편집 기법 기존 인물 + 새로운 인물에 대한 인과관계를 적극 이용해 <시즌 1-5>까지는 안전한 감동이었다면

또, 시즌7의 DEBATE 편은 공화당과 민주당 대선후보가 TV 토론을 하는 장면을 원데이크와 유사한 기법을 사용해 실제 TV 대선 토론을 시청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2000-2003년까지 4년 연속 '에이미 최우수 TV 드라마 시리즈상'을 수상한 이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시, ep7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ep7이 충격적인 이유는 산토스와 비나의 대선 토론 장면으로 50분의 한 에피소드를 다 채웠기 때문입니다. 장소 이동이나 전혀 다른 시점의 이동 없이 정말 대선 토론 프로그램을 보여주듯 50분이라는 시간에 오로지 산토스와 비나의 토론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에피소드가 절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제 대통령 후보들 자신들의 공약을 자신 있게 말하고 설득하고 토론 중 신경전을 보이기도 하며 삼감 나는 토론 장면을 보여주며 50분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잊을 정도로 몰입하게 했습니다. 토론의 주제들도 지금도 현시대의 문제로 남아 있는 환경, 교육, 인종차별 등을 다뤄 흥미진진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수이니 (asm07055)님 원문 글을 바탕으로 편집 구성하였습니다.

5. 이번 토론, 뭔가 다르다. (2017. 4. 13.)



6.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토론 주제 및 참석 후보자 (2017. 4. 18.)



1. 초청 후보자 토론회, 초청의 대상 후보자 토론회의 참석 후보자

 제16대 통일부 장관 김동연 후보	 제17대 통일부 장관 김동연 후보	 제18대 통일부 장관 김동연 후보	 제19대 통일부 장관 김동연 후보	 제20대 통일부 장관 김동연 후보
 제16대 통일부 장관 김동연 후보	 제17대 통일부 장관 김동연 후보	 제18대 통일부 장관 김동연 후보	 제19대 통일부 장관 김동연 후보	 제20대 통일부 장관 김동연 후보

이런 제19대 대선은 역대 대통령 선거 중 가장 많은 대통령 후보자 등록이 있었습니다.

pick me pick me **4me UP** '선거방송토론, 정책선거의 중심입니다'

2. 초청 토론회 참가자격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
직전 선거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100분의 5 이상의 지지를 얻은자
이외의 경우 **초청외 대상 토론회**

· 자세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의 주관 대상 토론회) 제4항 규정 확인

pick me pick me **4me UP** '선거방송토론, 정책선거의 중심입니다'

3. 후보자 토론회 개최 일정 및 토론주제

초청1차 정치 4월23일(일) 20:00 - 22:00 ① 위국안보 및 대북경제 ② 권력기원 및 정치개혁 방안	초청2차 사회 5월 2일(월) 20:00 - 22:00 ① 북·차교류정책 ② 국민통합 방안
초청2차 경제 4월28일(금) 20:00 - 22:00 정해진 주제임이 후보간 자유 정책 발표 후 자유토론	초청외대상 후보자토론회 4월24일(일) 23:00 - 01:00 ① 정치외교분야 ② 경제사회분야

pick me pick me **4me UP** '선거방송토론, 정책선거의 중심입니다'

"선거방송토론, 정책선거의 중심입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이음마음 선거 | 정책당 대안단

Part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개관

1. 들어가는 말
2.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토론

들어가는 말

2017년 3월 10일(금),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2016.12.9. 국회 가결)을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한다.¹ 그로부터 닷새 뒤인 3월 15일, 정부는 대통령의 궐위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는 「헌법」 제68조 제2항² 및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³의 규정에 따라 그 마지막 날인 5월 9일(화)을 제19대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 공포한다.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됨에 따라 같은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일(4.15.~16.), 공식 선거운동기간('17.4.17.~5.8.), 재외투표(4.26.~30.), 그리고 대통령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틀간의 사전투표(5.4.~5.) 등 조기에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주요 일정을 공식화한다.⁴

선거일까지 통상 3~4개월을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후보자가 확정되어 선거 국면으로 접어든 예전 선과는 달리,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자가 확정된 시점,⁵ 공식 선거운동이 한창인 4월 말부터 5월 9일 선거일까지 계속되는 황금연휴, 그리고 이 기간과 겹치는 5월 4~5일의 사전투표 등을 고려할 때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지지와 선택을 호소하는 후보자들과 후보자 검증을 위해 유권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진 기간은 매우 짧았다.

이러한 상황적 배경 아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17년 4월 10일(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에 따른 공직선거정책토론회 1회를 비롯하

1 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전원재판부 결정.

2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3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제19대 대선, 후보자등록 4. 15.~16, 사전투표는 5. 4.~5”, 공보과(2017. 3. 15.).

5 주요 5개 정당의 대선후보자 최종 확정일은 다음과 같다. 2017.2.16.(경의당/심상정), 3.28.(바른정당/유승민), 3.31.(자유한국당/홍준표), 4.3.(더불어민주당/문재인), 4.4.(국민의당/안철수).

여 같은 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른 4월 23일(일)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 4월 24일(월) 초청의 후보자토론회, 4월 28일(금)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2일(화)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에 이르기까지 총 4회의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를 5월 4일 사전투표일 이전까지 주관하여 개최하였다.⁶ 이는 대통령선거의 중요성과 이번 대선의 짧은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는 커다란 도전이자 2004년 창설 이후 지난 13년 동안 축적된 역량을 검증받는 일종의 시험대와 같은 것이었다.

앞서 기술했듯이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자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이 통상적인 선거보다 상대적으로 짧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후보자 검증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따라서 유권자가 후보자의 공약과 정치철학 등 자질을 한자리에서 비교 판단할 수 있는 후보자토론회는 일련의 여론조사 결과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높은 사회적 관심 속에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치며 유권자의 표심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⁷

2016년 12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조기 대선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가는 정치·사회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17년 1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고시하였다. 이러한 선제적 조치는 무엇보다 조기 대선 시 후보자토론회의 진행방식 공표를 위한 법적 기한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축적된 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변화하는 선거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준비소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던 선거방송토론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들을 별도로 초청하여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등을 주제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6 또한 이번 대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바에 따라 언론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주관한 후보자토론회도 3회 개최되었다. 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①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경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는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경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다만, 제5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7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연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017

후보자토론회의 사무관리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관리규정」의 개정 이외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의 인력확대를 통한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리단 편성, 준비소위원회 구성, 정당관계자 핫라인(hotline) 확보, 중계주관공영방송사(KBS, MBC)와의 유기적인 협력네트워크 구축, 관계기관 협조체제 확립 등 후보자토론회의 효율적인 준비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작업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토론회의 토론 의제 개발을 위한 연구 의뢰와 국민여론조사 실시,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서비스 및 시청 인증샷 이벤트, 그리고 국민모니터단 운영, 국민질문 공모, 생활현장에서의 국민참여형 인터뷰 제작 등 후보자토론회의 공정성·유용성·흥미성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예전 대선과 비교할 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토론진행방식을 비롯한 일련의 괄목할만한 변화를 시도한 것이었다. 예컨대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는 1~3분으로 제한된 질문·답변 시간이 기계적으로 적용되어 후보자 간 반론·재반론이 용이하지 않았으며, 후보자들이 자신의 공약과 정치철학 등 다른 후보자들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어려웠던 탓에 유권자의 후보자 비교 및 판단에 유용한 정보원천으로 기능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테이블에 앉아서 하는 토론은 역동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며, 토론회 진행 중 다양한 진행방식을 적용하는 것 역시 일반 시청자와 후보자들의 토론진행방식 이해도 측면에서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있었다.⁸

지난 대선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과 이번 조기 대선이 갖는 의의에 비추어 볼 때, 획기적인 변화의 시도는 선거방송토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였다. 이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정책토론회와 후보자토론회 도입부에서 콜드 스타트(Cold start) 방송기법을 활용하여 사회자 멘트를 대폭 간소화하고, 중전의 후보자 기조연설을 생략함으로써 방송 초반부터 토론의 역동성을 살리는 동시에 주어진 120분 안에서 실질적인 토론시간을 최대한 늘렸으며, 상호 존중의 민주적 정치커뮤니케이션의 의식(儀式)을 상징하는 ‘스탠딩 토론’, 과거 기계적인 발언시간 분배로 인해 경직되었던 후보자토론회에서 탈피하여 상대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한 역동적인 반론·재반론의 기회를 보장하는 완전시간총량제 자유토론 방식, 국민을 대신하여 후보자들이 서로 상대방의 정책공약을 교차·검증하는 ‘후보자 상호간 정책검증토론’ 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였다.

8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심포지엄」 자료집.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한국언론학회 (2013. 3. 22.)

반면, 이번 대선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상호 인신공격 및 감정적 네거티브 공방, 주제와 동떨어진 발언 등으로 정책토론의 의미가 다소 퇴색되었던 점, 사회자의 권한 및 역할에 대한 정의(Definition)의 어려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등과 관련된 전문가 평가 및 민원 내용 등은 심층적인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부분으로 인식되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유권자 중심의 후보자토론회’ 및 ‘대국민 소통 강화’라는 기본 계획 아래 선거방송토론의 준비 과정에 국민참여의 기회와 토론회의 시청 접근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자체 공식 홈페이지(www.debates.go.kr) 및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용산역 등 생활현장에서 ‘국민질문’을 공모하여 대선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공통 국민질문으로 활용하였고,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영상에 담아 대통령후보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새 대통령에 대한 바람의 메시지를 담은 국민인터뷰 영상을 주제별로 제작하여 차수별 토론회의 도입부에서 방영하였다.

공직선거에 있어 선거방송토론의 의미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보도자료·신문기고·언론 및 방송 인터뷰 등 적극적인 공보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자체 공식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⁹을 비롯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블로그¹⁰ 등을 통해 국민적 참여와 관심 제고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백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개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의 개황을 기술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직무와 선거방송토론의 개념 및 기능적 의의에 대해 간략하게 고찰하였다. 제2장은 선거방송토론의 관리 준비에 관해 기술하고 있으며, 선거방송토론 관리체계 정비, 관계기관 협조체제 구축, 국민참여형 후보자토론회의 관리기반 조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3장에는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정책토론회와 후보자토론회의 사무관리 및 개최 등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제4장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 후보자토론회의 평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 백서의 부록에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주요업무추진표, 토론회 방송진행표, 보도자료, 대선 토론회 관련 주요 언론보도 및 분석,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의뢰하고 한국정치학회가 수행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연구』 결과 및 선거방송토론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수록하였다.

9 <https://ko-kr.facebook.com/2017debate>

10 <http://blog.nec.go.kr>

아울러 연구자 및 관심 있는 일반 국민들을 위해 공식선거정책토론회와 후보자토론회의 영상과 녹취록 그리고 기록영상 등을 DVD에 담아 별책부록으로 제공하였다.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각종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대담·토론회’ 및 정당의 ‘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해 2004년 3월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기관이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독립기관으로 설치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방송토론을 주관·개최하고 있으며, 또한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정당정책토론회’(입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은 제외)에 관한 직무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다.
-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설치된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교육감 선거의 대담·토론회를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다.
- 249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설치된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개최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등에서 정한 법적 직무의 공정한 수행 이외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다원주의 시대에서 요구되는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가치에 입각한 건전한 토론문화의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방선거 대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실무자 교육 및 연수, 그리고 선거방송토론 제도 연구반 및 관련 연구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보다 유용한 후보자 판단의 기제로서의 토론회 운영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중·고등학교 하계·동계 방학 기간에 교육기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토론체험 및 멘토링’ 프로그램, 17개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 및 토론에 관심 있

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높은 인지도를 얻고 있는 전국대학생토론대회 등을 통해 청소년과 청년들의 건전한 토론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2) 선거방송토론의 개념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토론’의 개념은 같은 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른 공직선거 ‘후보자토론회’와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에 따른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¹¹

‘선거방송토론’의 개념 정의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책에서는 공직선거에 앞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개최되는 후보자토론회와 정책토론회에 공통된 사항을 특징적으로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로 한다. 즉, ‘선거방송토론’은 각종 공직선거에 앞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복수의 후보자 또는 정당을 대표하는 토론자가 정강·정책 및 정견 등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기간에 개최하는 선거방송의 한 유형이다.¹²

3) 선거방송토론의 기능적 의의

독일의 사회학자 위르겐 하버마스(Juergen Habermas)의 ‘공론장 이론’(1990)에 따르면 계몽된 국민의 의사에 기초하는 정치적 결정은 민주 정치에 있어서 더 높은 가치와 더 안정된 정당성을 갖는다.¹³ 오늘날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그러한 정치적 결정을 위한 판단 형성에 필요한 정보들을 – 라디오와 텔레비전 등 고전적 유형에서 디지털 시대의 첨단 유형에 이르기까지 – 대개의 경우 다양한 대중매체들을 통해서 얻는다.¹⁴ 따라서 대중매체는 그

11 넓은 의미에서 ‘선거방송토론’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에 의해서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개최하는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도 포함되지만, 이 책에서 ‘선거방송토론’의 개념은 ‘공직선거정책토론회’와 ‘후보자토론회’ 양자를 포함하는 공직선거법상의 개념으로 한정지어 사용하기로 한다.

12 「선거방송심사에 관한 특별 규정」 제1조에 따르면 ‘선거방송’은 “...선거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정의된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및 제82조의 3의 규정 이외에 같은 법에 명시된 선거방송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70), 후보자 또는 그가 지명하는 연설원의 방송연설(§71),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72), 경력방송(§73),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81).

13 위르겐 하버마스, 《공론장의 구조변동》, 한승완 역, 나남, 1990.

14 니클라스 루만, 《대중매체의 현실》, 김성재 옮김,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6.

다양성과 도달 범위에 비추어볼 때, 정치와 국민을 연결시켜주는 근본기제이며, 그 중에서도 여전히 가장 보편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는 텔레비전이다. 이는 오늘날 텔레비전을 통한 선거방송토론이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요 공직선거를 위한 유권자의 후보자 비교 판단의 기제인 동시에 후보자들이 진지하게 여기는 선거운동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 결정에 가장 많이 참고한 매체가 후보자토론회였다는 한 여론조사의 결과가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는 높은 국민적 관심 속에 유권자 선택에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해 주는 주요 기제로 정착되었다.¹⁵

우리나라 「헌법」 제116조에 기초하는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법정 선거방송토론은 다른 나라에는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독특한 특징이자 필수 구성 요소의 하나이며, 궁극적으로는 정책 중심의 토론과 공명선거를 통하여 「공직선거법」 제1조에 명시된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거방송토론은 한편으로는 유권자와 국민,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 및 후보자에게 무엇보다 다음의 기능적 의의를 갖는다.

- 유권자에게 선거방송토론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의 정강·정책 및 자질·비전 등을 한자리에서 비교 판단하여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독립적인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보원이다. 이 관점에서 선거방송토론은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를 고취·강화할 수 있다. 또한, 선거방송토론의 유용성은 선거결과에 대한 영향력 정도를 유일한 잣대로 평가될 수 없으며, 정치와 선거에 대한 사회적 평균 지식의 지평을 넓혀주는 기능도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선거방송토론은 민주시민교육의 효과를 자아내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능을 충족시키는데, 그것은 정당·후보자의 정강·정책 등에 대한 지식이 유권자의 숙고적 판단과 선택을 위한 근본 조건이기 때문이다.
- 정당·후보자의 관점에서 선거방송토론은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그 어느 유세현장에서도 광범위한 유권자들에게 정강·정책 등을 명확하고 신뢰감 있게 주장하여 다른 정당·후보자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기존 지지층의 표심을 강화하며 잠재적 득표 대상인 부동층을 설득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선거운동 방법의 하나이다.

15 한국갤럽이 2017년 5월 10~11일 전국 투표자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휴대전화 RDD 조사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가 TV토론을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는 데 가장 많이 참고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신문/방송보도’(23%), ‘인터넷 뉴스’(17%) 등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듯이 선거방송토론은 관점에 따라 유권자의 투표결정을 위한 후보자 비교 판단의 수단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의 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의 한 유형으로서 선거방송토론의 근본 목적은 일차적으로는 유권자의 바른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Part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리기반 구축

1. 관리체계 정비
2.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3. 국민과 함께하는 후보자토론회
환경 조성

1) 관계규정 개정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 기간에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른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회 및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확대 보장하기 위해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한편, 후보자토론회의 진행방식 공표에 관한 특례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관리규정」을 개정 고시하였다(〈표 2-1〉).

표 2-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 개정 현황

개정 전	개정 후
<p>제9조(토론자의 지참물 등)</p> <p>① 토론자는 토론회에 A4 용지 규격 이내 20장 이하의 날장자료 외에는 서류, 노트북, 도표, 그림, 그 밖의 참고자료를 소지한 채 참여할 수 없다.</p> <p>② 토론자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토론회에서 사용할 수 없다.</p>	<p>제9조(참고자료의 사용)</p> <p>토론자는 토론회에서 A3 용지 규격 이내의 서류·도표·그림, 그 밖의 참고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p>
<p>제13조(토론회 진행방식의 공표에 관한 특례)</p> <p>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토론회의 진행방식을 선거일전 60일까지 참석예정 후보자수별로 각각 결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p>	<p>제13조(토론회 진행방식의 공표에 관한 특례)</p> <p>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토론회의 진행방식을 선거일전 6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30일)까지 참석예정 후보자수별로 각각 결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p>

※ 대한민국 「관보」 제1893호 2017. 1. 23.(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고시 제2017-1호

개정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9조는 제목을 “토론자의 지참물 등”에서 “참고자료의 사용”으로 변경하고, 토론회에서 허용되는 참고자료의 범위 및 규격과 관련하여 “A4 용지 규격 이내 20장 이하의 날장자료 외에 서류, 노트북, 도표, 그림, 그 밖의 참고자료를” 지참할 수 없었던 종전의 규정을 완화하여 A3 용지 규격 이내의 서류·도표·그림, 그 밖의 참고자료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휴대전화·노트북·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¹⁶ 또한, 제13조는 대통령의 권위로 인한 선거 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공표하는 토론회 진행방식의 법정 기한에 관한 규정으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선거일전 30일까지 결정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2) 선거방송토론 관리단 편성

2017년 2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은 조기 대선을 대비하여 분업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와 후보자토론회 사무작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조직구조를 방송토론팀·토론지원팀의 기존 2팀 체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원을 받아 대외협력 TF팀을 추가 편성하여 3팀 체제로 개편하고, 사무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리단’을 출범시켰다(〈표 2-2〉).¹⁷

지난 2004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상설기구화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은 2007년과 2012년 2팀 체제로 제17·18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정책토론회와 후보자토론회 관리의 실무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급격하게 증가한 업무량에도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 부담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무엇보다 물리적인 준비 기간이 짧았던 이번 대선에서는, 과거 방송토론팀과 토론지원팀이 핵심 업무에 추가적으로 분담하여 부담했던 민원·언론 대응을 비롯하여 공보업무 및 대국민 홍보업무 그리고 국민참여 관련 업무 등 대외적인 업무를 전담하는 대외협력 TF팀을 전격 편성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리단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16 토론회에서 전자기기의 사용이 허용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전자기기를 통해 제3자가 토론 과정에 개입할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정된 규정에서는 이러한 전자기기의 대표적인 종류만을 예시로 들고 있다.

17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등 법정 토론회의 개최 및 진행과 관련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사무국은 전문위원회의 및 준비소위원회의에서 검토될 각종 자료와 전체위원회의에 상정될 의안을 준비하며, 전체위원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실무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2017년 1월 현재, 사무국의 현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일반직·기술직·전문임기제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 등 12명이며, 조기 대선을 대비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견된 일반직공무원 1명과 추가로 채용된 계약직 3명이 증원되어, 총 15명이 이번 대선에서 공직선거정책토론회와 후보자토론회 관리의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밖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의 주요 업무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에 명시되어 있다.

표 2-2 제19대 대법선거 선거방송제도 관련 업무 담당 부서 및 업무



대통령선거의 실시 시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후보자토론회의 공정하고 빈틈없는 관리를 위해 중계주관방송사 및 유관기관들과 꾸준히 업무연락 및 협의를 추진하였고, 국민참여 방안에 대한 심층적 논의, 후보자 검증에 효과적인 토론진행방식에 대한 분석적 연구 등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선제적으로 후보자토론회 준비에 만전을 기한 결과, 과거와 차별화되는 일련의 새로운 변화들을 시도하며 분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참여 및 공보·홍보 업무의 중요성이 과거 선거에 비해 현저하게 부각되었고, 후보자 신변경호와 후보자토론회 개최장소인 공영방송사 현장 안전관리에 있어서 유기적인 민관협력 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바, 대외협력 TF팀이 추가로 보강된 사무국 조직은 매우 효율적이었다.

3) 후보자토론회 자문회의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2017년 2월 14일(화) 위원회의실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가 개최되었던 2012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으로 준비소위원회에 참여했던 김찬태 전 KBS선거방송기획단장 및 성경섭 전 MBC 보도본부 논설위원 등 TV토론 전문가 5명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 외 직원 6명이 참석하였다.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자문회의에서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전반적인 개최 방향, 토론분야 및 토론의제, 진행방식 그리고 국민참여 방안 등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림 2-1 후보자토론회 자문회의

표 2-3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자문회의 개최 개요

일시	2017. 2. 14.(화), 15:00 ~ 17:20	
장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실	
참석자	외부전문가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 김찬태 (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KBS 선거방송기획단장) 김춘석 (한국리서치 상무이사) 성경섭 (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MBC 보도본부 논설위원) 송종길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중앙토론회	사무국장 이주현 방송토론팀장 최영돈 토론지원팀장 심현화 대외협력팀장 김종두 주무관 김준오·오지양·이제중
내용	후보자토론회 개최 방향 토론분야·토론의제·진행방식·국민참여 방안 등	

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자문 및 의사결정 구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법정 방송토론회의 개최와 관련된 모든 주요 사안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에 따라 전문위원회의(§18)의 자문, 이를 토대로 하는 준비소위원회의 심층적 검토(§17) 이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16) 전체위원회의에서 의결된다.

표 2-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자문 및 의사결정 구조

구분	구성 요건 / 법적 근거	분야
위원회의	토론회 관리일정에 따라 법정의결사항 또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마다 개최(「규칙」 제13조)	의결사항에 대한 심의·결정
↑ 사무국 : 의안 상정안 등 작성 및 준비		
준비소위원회의	전체위원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검토·심의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구성(「규칙」 제17조)	주제 및 질문사항, 진행방식, 사회자 등 사전 검토
↑ 사무국 : 회의자료 작성 및 준비		
전문위원회의	토론회 진행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받기 위해 필요에 따라 구성(「규칙」 제18조)	주제 및 질문사항, 진행방식 등 자문
↑ 사무국 : 회의자료 작성 및 준비		
사무국	「규칙」 제19조	법정 토론회 관련 실무

(1) 전문위원회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규칙」 제18조(자문위원등) 제1항¹⁸에 따라 전문위원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위원은 방송 전문가, 토론회 주제·진행방식 등 관련분야의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한 자문역할을 담당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표 2-5 전문위원회의 구성 현황

(2017. 3. 15. 현재, 위촉일순)

성명	경력
박희봉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영배	JTBC 보도제작국 보도제작2부장
이진로	영산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신창운	덕성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강의초빙교수
조성남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장석인	공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김익상	서일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장혜영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정책토론회와 후보자토론회의 주제 및 진행방식의 검토와 관련해서는 <표 2-6> 와 같이 총 2회의 전문위원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림 2-2 전문위원회의

표 2-6 전문위원회의 운영 현황

차수	개최일자	회의 내용
1차	2017. 3. 28.(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정책토론회 주제 및 진행방식 검토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검토
2차	2017. 4. 11.(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주제 및 진행방식 검토

18 “각급토론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방송 또는 선거관련 전문가 중에서 약간 명의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준비소위원회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3월 10일 대통령의 권위에 의한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3월 13일(월) 제3차 위원회의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정책토론회 및 후보자토론회의 주제·진행방식의 작성과 검토 등을 위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 학계, 법조계, 방송사 추천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준비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준비소위원회 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규칙」 §17, 4①).

표 2-7 준비소위원회의 구성 현황

구분	구성 위원	운영 기간	직 무
의장	남택용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토론회 종료 시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회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검토 • 토론주제 검토 • 진행방식 검토 • 질문사항 검토 • 사회자 검토
위원 ※ 위촉순	허익범 (변호사)		
	오미영 (가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송기원 (MBC 논설위원)		
	김진수 (KBS 해설위원)		



그림 2-3 준비소위원회의

준비소위원회는 5월 2일(화)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 종료 시까지 운영되었으며, 출범 이후 총 6회가 개최되어 전체위원회의 개최 전 공직선거정책토론회와 후보자토론회의 진행방식 및 주제·질문사항 등 안건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와 검토를 수행하였다. 또한, 차수별 후보자토론회의 질문사항 검토 시에는 사회자가 참석하여 직접 작성한 질문내용을 함께 검토·수정하였다. 수정된 사회자 공통질문은 안건으로 전체위원회의에 의결을 위해 상정되었다.

표 2-8 준비소위원회의 개최 현황

일시	회의 내용
3. 14.(화), 09:00	후보자토론회 관련 검토
3. 29.(수), 17:00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주제 및 진행방식 검토 등
4. 05.(수), 17:00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질문사항 검토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설문사항 검토
4. 12.(수), 17:00	후보자토론회 주제 검토
4. 18.(화), 09:00	초청 1차, 초청외 후보자토론회 질문사항 등 검토
4. 29.(토), 16:00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 질문사항 등 검토

(3) 위원회의

전체위원회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최고의결기구이며, 「공직선거법」 제8조의7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공영방송사·방송토론심의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된다. 2017년 초 당시 새누리당의 분당 및 당명개정으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한 위원을 추가로 위촉한 3월 21일 현재, 위원은 13명이다 (〈표 2-9〉).

표 2-9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2017. 3. 21. 현재)

직위	성명	직업	추천기관
위원장	최은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변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남택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위촉순	성한용	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익범	법무법인 유한상경 변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오미영	가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송기원	MBC 논설위원	MBC
	박유성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학계
	김진수	KBS 해설위원	KBS
	박상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민단체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	법조계
	정병운	한국정책포럼 부회장	국민의당
	안상윤	가톨릭대학교 문화비즈니스연구소 초빙연구원	자유한국당
	한표환	중원대학교 부총장	바른정당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이며, 직무상 외부로부터 일체의 지시 또는 간섭을 받지 않는 동시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정치적 중립, 불편부당의 의무를 진다. 또한,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¹⁹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규칙」 §9, §11 ①, §12).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통할하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법」 §8의7②). 또한, 평상시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감독하는 상임위원은 선거 및 정당 관련 사무에 지식과 전문이 넓은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규칙」 §8).²⁰

법정 토론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초청대상 정당 및 후보자·토론진행방식 등은 토론회 사무 일정에 따른 법정 의결사항으로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한다(「규칙」 §16). 또한 긴급사항이나 법령 및 각종 사무편람·지침 등에 따른 사무국의 보고·검토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위원회가 소집될 수 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정책토론회와 후보자토론회의 개최 준비 과정에서 총 13차례의 위원회의가 소집되었으며, 이 중 11차례는 3월 10일 대통령의 권위에 의한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이후 첫 번째 위원회가 열린 3월 13일(제3차 위원회의)부터 대통령선거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가 개최된 5월 2일(화)까지 50일 안에 진행되었다.

표 2-10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련 위원회의 개최 주요 현황

차수	개최일시	처리안건 등	
		보고사항	주요업무추진상황
1차	2017. 1. 11.(수) 10:00	의결사항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 관리규정 개정안
		검토사항	제19대 대통령선거 토론회 관리대책 검토 -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 방안 검토 - 대선 예상시기별 토론회 개최안 등 검토
		보고사항	주요업무추진상황
2차	2017. 2. 16.(목) 09:30	검토사항	위원회의 방청실 설비방안 검토
		검토사항	대선 후보자토론회 개최 관련 검토 - 후보자토론회 의제·진행방식
		보고사항	주요업무추진상황

19 「공직선거법」 제10조(위원의 해임사유) 각급토론위원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위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현저히 저해한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 5. 공영방송사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공영방송사의 요구가 있는 때, 6. 법 제8조의7제2항제2호에 따라 구·시·군토론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임·해촉 또는 파면된 때, 7.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

20 상임위원은 직책의 특성상 관례적으로 1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수임한다.

차수	개최일시	처리안건 등	
			- 토론회 국민참여 방안
3차	2017. 3. 13.(월) 10:30	보고사항	주요업무추진상황
		검토사항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 시기 및 횟수에 대한 검토
4차	2017. 3. 17.(금) 16:00	보고사항	주요업무추진상황
		의결사항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안
5차	2017. 3. 31.(금) 09:00	의결사항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안
		보고사항	주요업무추진상황
		의결사항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주제 및 진행방식 결정안
		의결사항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사회자 선정안
6차	2017. 4. 7.(금) 09:00	보고사항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관련 전문위원회의 및 준비소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사항	주요업무추진상황
		의결사항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결정안
		의결사항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사회자 선정안
7차	2017. 4. 14.(금) 09:00	의결사항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질문사항 선정안
		보고사항	주요업무추진상황
		의결사항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토론주제 선정안
8차	2017. 4. 17.(월) 09:00	보고사항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진행관련 검토
		보고사항	주요업무추진상황
		의결사항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초청후보자 등 선정안
9차	2017. 4. 21.(금) 16:00	의결사항	제19대 대통령선거 초청외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추가 결정안
		보고사항	주요업무추진상황
		의결사항	제19대 대통령선거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 질문사항 선정안
		의결사항	제19대 대통령선거 초청외 후보자토론회 질문사항 선정안
10차	2017. 4. 23.(일) 18:30	보고사항	정책검증등론 시 정책발표용 모니터 사용에 관한 검토
11차	2017. 4. 24.(월) 21:30	의결사항	제19대 대통령선거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 국민질문사항 선정안
12차	2017. 4. 30.(일) 16:00	검토사항	향후 후보자토론회 진행 관련 검토
13차	2017. 5. 2.(화) 18:30	의결사항	제19대 대통령선거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 질문사항 선정안
		보고사항	주요업무추진상황

위원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개최일시·장소 및 의안 등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규칙」 §15, 「규정」 §3①). 다만,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²¹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조기 대선 후보자토론회를 앞두고 위원회의에 대한 방청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방청공간과 방청인 대기실 등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위원회의 공개여부와 관련하여 언론 및 시민들의 유선문의는 있었으나, 토론회 개최일이 다가올수록 질문사항 선정 등 비공개 의안으로 위원회의가 진행됨에 따라 방청을 신청한 경우는 없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정치·사회 상황이 조기 대선을 예상케 하는 방향으로 전개됨에 따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17년 1월 11일 제 1차 위원회의를 개최하여 「관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 방안, 대선 예상시기별 토론회 개최안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2017년 3월 1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전체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 시기 및 횟수에 대해 검토하는 등 시급한 사안들을 선제적으로 검토·결정하였다.

특히, 다수의 후보자들을 한자리에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인 TV토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불편부당의 원칙에 기반을 두면서도, 후보자 검증에 보다 유용할 수 있는 토론진행방식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고, 아울러 흥미성을 갖춘 후보자토론회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그림 2-4 제13차 위원회의(여의도 KBS 본관)

이에 이번 대선 후보자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선거방송토론 역사상 처음으로 후보자들이 연단 뒤에 서서 토론하는 ‘스탠딩 토론’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키높이용 발받침대, 의자 사용 여부 등 세부적인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이번 조기 대선에서 역시 새로 도입한 ‘후보자 상호간 정책검증토론’ 방식에 있어서 공약 프레

젠테이션을 하는 후보자가 전자기기인 텔레비전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 공약발

21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 공개될 경우 위원들이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국민에게 무용한 혼란 및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한 의결 과정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공개방청에 관한 규정」 §3)

표 후 1:1 자유토론 시 특정 후보와의 토론을 거부하는 경우 발생 시 대처방안 등 토론회 진행의 세부사항을 검토·논의하여 처음 도입하는 토론진행방식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신중하게 대비하였다.

또한 중계주관방송사에 마련된 위원회의실에서 후보자토론회 생방송을 모니터하며 사안 발생 시 즉시 위원회의를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었다. 특히, 후보자 간 감정적 네거티브가 과다했던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17. 4. 23)의 종료와 함께 대다수 위원들의 요청에 의해 위원장이 긴급위원회의를 소집하여 익일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 남은 초청 2·3차 후보자토론회가 공직선거법의 가치와 유권자들을 존중하는 정책중심의 토론회가 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협조요청문서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각 후보자측에 발송하는 등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였다.

1) 정당관계자 업무협의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의 공정한 관리 및 원활한 개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2017년 3월 2일(목) 주요 5개 정당의 방송토론 실무책임자들과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이 업무협의회 개최 의의 및 당부 사항을 전한 후, 방송토론팀장이 정책토론회 개최계획 등 선거방송토론 사무에 대해 안내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표 2-11 정당관계자 업무협의회 참석 현황

구분	참석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	사무국장 이주현
	방송토론팀장 최영돈
	대외협력팀장 김종두
	주무관 김준오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국장 곽은미 / 차장 유현선
자유한국당	미디어팀 부장 이상미 / 과장 박현수
국민의당	디지털소통국 국장 조영수
바른정당	정책국 국장 정성일 / 차장 강태용
정의당	정책연구위원 윤재설 / 정책기획위원 김수정

또한, 업무협의회에서는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참석승낙서 제출, 후보자토론회 자리 및 발언 순서 추천,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었다. 특히 정당별 후보자토론회 전담 부서 구성 시 신속하게 업무 연락체계를 정비하여 현행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짧은 기간 안에 치러지는 권위선거인 만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핫라인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대두되어, 기존 실무진 간의 소통체계를 확대

하여 실무진 → 팀장 → 국장 등 체계별로 대응 핫라인(hotline)을 구축·정비함으로써 중앙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정당 간의 실질적인 소통체계가 확립되어 성공적인 선거방송토론 관리를 위한 기반이 되었다.

2) 공영방송관계자 업무협의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과 토론회 개최 홍보 및 제작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2017년 3월 8일 여의도 인근 장소에서 공영방송(KBS·MBC) 관계자들과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표 2-12 공영방송관계자 업무협의회 참석 현황

구 분	참 석 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 무 국	사무국장 이주현
	방송토론팀장 최영돈
	대외협력팀장 김종두
	주무관 오지양
KBS 선거방송기획단	단장 이준희, 선임기자 이영진, 기자 최성민, 프로듀서 김형주
MBC 시사제작국	국장 조창호, 부장 박상후, 프로듀서 박세미, 프로듀서 최진호

이날 협의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관련

- 대통령 궐위 시 최소 1회(확정된 날이 월 초인 경우) 정도 개최할 가능성이 있고, 선거의 중요도,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심야시간대 편성을 요청
 - ⇒ 당내 경선토론, 방송연설, 광고 등 선거관련 방송들이 집중적으로 편성되는 시기이므로, 심야시간대 편성에 있어 공영방송사 간 조율과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함. 대선 후보자토론회에 비중을 더 두는 차원에서 오전 10시로 편성하되, 관례에 따라 당대표 또는 선대위원장이 참석하는 경우 심야시간대 편성을 고려하겠음.
 - ⇒ 심야시간대 편성을 위해서는 3월 중순까지 토론자통보가 이루어져야 함.

- 후보자토론회 관련

[토론회 일정]

- 후보자토론회 차수별 중계주관방송사 및 개최일정(안) 등을 안내함. 특히, 사전투표 기간('17. 5 4. - 5 .5.) 전에 토론회를 모두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토론회 편성 등 협조를 요청
- 토론회 개최횟수 확대(3회·5회)에 관한 논의
 - ▷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에 국한하여 확대 개최하는 것에 대한 초청의 후보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 공영방송사측에서는 후보자토론회 최대 총 7회(초청의 후보자토론회 추가 시) 개최가 편성 등의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

[유권자 시청 접근성 확대 방안]

- 후보자토론회 직전 토론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영방송사 자체 연계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사항을 안내(자료 제공)하였고,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
 - ▷ 연계프로그램의 취지 등에 공감하고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였으나, 대선 후보자토론회의 방송시간대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 자체적으로 편성이 어려운 점이 있음. 각 사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작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

[후보자토론회 제작 방향]

- 후보자토론회 사회자 선정 과정과 위원회의 기본방향에 대해 안내
- 국민인터뷰 영상 활용 등 토론회 진행방식에 관한 논의
 - ▷ 국민인터뷰가 비공개로 진행될 경우, 후보자들이 논리적인 접근보다는 감성적인 답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임. 또한, 인터뷰 선정 이유, 토론회 방송 중 인터뷰 영상 사용의 시간적 위치 등에 시비가 있을 수 있을 것임.

[후보자토론회 관리방안]

- 토론회 진행방식의 공표에 관한 특례, 참고자료의 사용 등 개정된 「관리규정」 제9조 및 제13조의 내용을 안내

그 밖에 중계방송사의 국장급 관계자가 참석한 업무협의회, 방송제작 실무책임자 및 프로듀서가 참석한 방송제작 실무회의 등을 개최하여 후보자토론회 개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또한, 보다 많은 방송사가 공직선거정책토론회와

후보자토론회의 중계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SBS, 국회방송 등 방송사 관계자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였다.

표 2-13 중계방송 관련 업무협의회 주요 현황

구분	개최일자	대상	주요 내용
공영방송관계자 업무협의회	2017. 3. 8.(수)	KBS M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토론회 일정, 관리규정 개정사항 등 안내 시청 접근성 확대 방안 및 토론회 제작 방향
방송제작 실무 회의	2017. 3. 27.(월)	K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진행 관련 토론회장 및 부대시설 설비/방송사 출입 및 안전관리
업무협의회	2017. 4. 3.(월)	S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선거정책토론회 및 후보자토론회 수중계 협조
방송제작 실무 회의 (합동)	2017. 4. 10.(월)	KBS M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탠딩 연단 등 토론회장 설비 관련 세부내용 음향 및 영상에 필요한 주요장비 및 시설 현황 요청 국민인터뷰 활용, 방송화면 구성, 수중계 방안 등

3)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들의 완벽한 경호 등 안전관리 및 각종 사고 예방과 후보자토론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2017년 4월 11일(화) 오전과 오후 각각 중계주관공영방송사 KBS와 MBC에서 안전관리 관계기관들과의 업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림 2-5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

표 2-14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개요

개최일시	개최장소	참석대상	비고
2017. 4. 11.(화) 11:00	KBS(여의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KBS,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영등포경찰서, 영등포소방서, 보안업체 등	
2017. 4. 11.(화) 14:30	MBC(상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MBC,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마포경찰서, 마포소방서, 보안업체 등	

국민과 함께하는 후보자토론회 환경 조성

1) 홈페이지 성능개선 및 국민 친화적 개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하여 이용자 급증에 따른 과부하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 운영서버를 공공 전용 클라우드(G-Cloud)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관하였다. 이번 대선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만큼, 토론회 개최 기간에 홈페이지 이용자가 급격하게 집중될 것을 예상하여 장애 상황에 신속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운영서버로 성능을 개선한 것이다.²² 홈페이지 성능 개선으로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스마트폰 등 휴대기기로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분리된 서버로 운영되었던 모바일용 다시보기 서비스를 홈페이지와 연동시킴으로써 성능의 안정성을 강화하였다.

그 밖에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준비 과정 및 각종 관련 자료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상단에 ‘국민참여’, ‘알림’, ‘선거방송토론’, ‘자료실’ 등을 상시 운영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²² 실제로 초청1차 후보자토론회가 생방송된 다음날인 4월 24일 하루에만 약 4천여 명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등 5월 9일 선거일까지 매일 평균 1천명 이상이 집중되었다.

2) 공식 페이스북 개설

국민과 함께하는 선거방송토론을 추구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디지털 시대의 변화된 매체환경에 발맞추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제19대 대통령선거 및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2017년 3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다양한 연령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민맞춤형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2017debate)를 개설·운영하였다. 대외협력팀 홍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는 약 2달에 걸쳐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비롯하여 카드뉴스 36개, 인포그래픽(Infographic), 동영상 등을 이용한 대중 친화적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Multimedia storytelling) 중심의 다채로운 볼거리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창구의 역할을 하며 민관소통창구는 물론, 미래유권자와 다양한 연령대의 유권자를 아우르는 국민 친화적 소통공간으로도 기능하였다.

표 2-15 공식 페이스북 운영 현황

(2017. 3. 12.-5.17.)

콘텐츠	방문자	조회	좋아요
36건	10,013명	114,088회	2,741회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블로그 ‘정정당당 스토리’(<http://blog.nec.go.kr>)의 주요 콘텐츠를 공유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 및 후보자토론회 관련 정보를 보다 폭넓게 제공할 수 있었으며,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토론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계몽하는 다채로운 콘텐츠와 경품 퀴즈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였다. 또한, 콘텐츠 관련 댓글을 수시로 확인하여 방문자들의 반응에 신속하게 대처하였으며, 후보자토론회 관련 각종 문의에 신속하게 답변하는 등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역사, 역대 미국 대선 TV토론의 주요 장면, 선거방송토론에서 사회자 역할의 중요성 등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한 다채로운 콘텐츠를 카드 뉴스 등 대중 친화적인 형태로 제공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공식 페이스북의 운영은 후보자토론회가 선거기간의 최대 관심사였던 이번 대선 이후에도 민주적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추진하는 제반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저변 확대와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을 위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정체성 확산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²³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 결과는 다

음과 같다.

표 2-16 제19대 대통령선거 페이스북 주요 내용

연번	일 자	유 형	컨텐츠 내용
1	3.12.(일)	일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로고 삽입
2	3.16.(목)	정보제공	제19대 대통령선거 주요 일정안내
3	3.17.(금)	일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커버사진 삽입
4	3.17.(금)	정보제공	후보자토론회 개최일정 안내
5	3.20.(월)	이벤트	페이스북 개설 이벤트(자음퀴즈)
6	3.22.(수)	이벤트	국민질문 공모 및 모니터단 모집 안내
7	3.24.(금)	카드뉴스	미국 대선 후보자토론회
8	3.28.(화)	카드뉴스	역대 대선 후보자토론회
9	3.29.(수)	카드뉴스	대선 후보자토론회 사회자
10	3.31.(금)	일반	정책토론회 주제·진행방식 안내
11	4.03.(월)	일반	재보궐선거 토론회 안내
12	4.04.(화)	일반	자음 이벤트 당첨자 발표
13	4.05(수)	카드뉴스	미드 웨스트윙
14	4.06(목)	정보제공	경정당당 선거, 비방·흑색선전 관련 사례
15	4.07(금)	일반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
16	4.13(목)	일반	TV토론 모니터단 선발 발표
17	4.13(목)	카드뉴스	후보자 토론회 진행방식 안내
18	4.18(화)	카드뉴스	토론 주제 및 참석 후보자 안내
19	4.20(목)	카드뉴스	후보자 토론회 인증샷 이벤트 안내
20	4.21(금)	이벤트	토론회 시청 친구태그 이벤트
21	4.21(금)	카드뉴스	제1차 후보자토론회 개최 안내
22	4.24(월)	카드뉴스	비초청 후보자토론회 개최 안내
23	4.27(목)	정보제공	중앙토론위원회 소개글
24	4.27(목)	카드뉴스	제2차 후보자토론회 개최 안내
25	4.30(일)	영상	제19대 대통령선거 1차 토론회 국민인터뷰
26	4.30(일)	영상	제19대 대통령선거 초청외대상 토론회 국민인터뷰
27	4.30(일)	영상	제19대 대통령선거 2차 토론회 국민인터뷰
28	4.30(일)	일반	중앙토론위원회 커버사진 교체
29	5.01(월)	카드뉴스	제3차 후보자토론회 개최 안내

2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법정 토론회 관리 업무 이외에,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여 유권자의 날 기념 유권자대토론회, 중·고등학생을 위한 토론체험 및 토론멘토링 교육기부 프로그램,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 및 전국대학생토론대회 등 민주적 토론문화 활성화 사업을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번	일 자	유 형	컨텐츠 내용
30	5.08(월)	정보제공	투표참여홍보 [대통령선거일]
31	5.08(월)	일반	토론회 시청 친구태그 이벤트 당첨자 발표
32	5.09(화)	이벤트	정책검증토론 착시효과 이벤트
33	5.10(수)	정보제공	유권자의 날
34	5.12(금)	일반	국민질문 이벤트 당첨자 발표 안내
35	5.15(월)	카드뉴스	유권자대토론회 개최 안내
36	5.17(수)	일반	정책검증토론 착시효과 이벤트 당첨자 발표

표 2-17 페이스북 운영 세부 분석 결과(2017. 3. 13. ~ 5.14.)

- [범례]
- 좋아요 : 페이지에 새로운 '좋아요'를 남긴 방문자
 - 참여자 : 페이지 클릭 또는 댓글 등 작성자
 - 도 달 : 페이지와 관련된 게시물을 본 사람 수

• 1주차 : '17. 3. 13. ~ 3. 19.

구분	계	일 자						
		3. 13	3. 14	3. 15	3. 16	3. 17	3. 18	3. 19
좋아요	105	.	.	.	3	54	4	44
참여자	191	.	.	1	6	68	6	110
도달	3,046	1	.	1	36	857	451	1,700

• 2주차 : '17. 3. 20. ~ 3. 26.

구분	계	일 자						
		3. 20	3. 21	3. 22	3. 23	3. 24	3. 25	3. 26
좋아요	792	27	76	215	110	146	100	118
참여자	2,031	142	177	408	321	374	292	317
도달	36,554	3,840	3,345	5,735	6,693	7,104	4,880	4,957

• 3주차 : '17. 3. 27. ~ 4. 2.

구분	계	일 자						
		3. 27	3. 28	3. 29	3. 30	3. 31	4. 1	4. 2
좋아요	1,099	229	101	142	294	278	14	41
참여자	2,144	480	241	258	503	498	84	80
도달	17,864	2,573	2,199	2,405	3,192	3,690	1,977	1,828

•4주차 : '17. 4. 3. ~ 4. 9.

구분	계	일 자						
		4.3	4.4	4.5	4.6	4.7	4.8	4.9
좋아요	120	23	12	17	17	18	19	14
참여자	902	108	433	131	51	71	58	50
도달	11,920	1,612	1,941	1,935	1,328	1,905	1,582	1,617

•5주차 : '17. 4. 10. ~ 4. 16.

구분	계	일 자						
		4.10	4.11	4.12	4.13	4.14	4.15	4.16
좋아요	125	23	14	9	19	28	18	14
참여자	314	44	23	81	70	40	36	20
도달	8,588	1,295	1,036	1,406	1,380	1,200	1,102	1,169

•6주차 : '17. 4. 17. ~ 4. 23.

구분	계	일 자						
		4.17	4.18	4.19	4.20	4.21	4.22	4.23
좋아요	145	1	0	27	5	20	26	66
참여자	1,223	17	63	175	74	317	210	367
도달	13,799	246	764	1,452	936	2,414	2,749	5,238

•7주차 : '17. 4. 24. ~ 4. 30.

구분	계	일 자						
		4.24	4.25	4.26	4.27	4.28	4.29	4.30
좋아요	166	33	16	14	16	20	7	10
참여자	594	174	65	40	104	61	59	91
도달	5,338	1,309	485	275	896	634	703	1,036

•8주차 : '17. 5. 1. ~ 5. 7.

구분	계	일 자						
		5.1	5.2	5.3	5.4	5.5	5.6	5.7
좋아요	150	15	27	31	36	41	0	0
참여자	810	123	105	110	144	172	21	135
도달	3,689	1,180	757	623	377	384	83	285

•9주차 : '17. 5. 8. ~ 5. 14.

구분	계	일 자						
		5.8	5.9	5.10	5.11	5.12	5.13	5.14
좋아요	103	4	43	21	11	7	1	16
참여자	1,591	153	792	197	170	122	35	122
도달	10,598	553	5,708	1,775	1,086	864	197	415

3) 국민질문 공개모집 및 국민인터뷰 영상 제작

(1) 개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토론회의 핵심인 공통질문 선정에 유권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주권의식을 강화하고 정책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 3월 22일(수)부터 4월 27일(목)까지 모바일 웹과 연동된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www.debates.go.kr)를 통해 “대통령후보자에게 질문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후보자토론회에서 공통질문으로 사용될 ‘국민질문’의 공개모집 행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2-6 국민질문 공개모집 현장



또한, 4월 14일(금) 제7차 위원회의에서 후보자토론회의 주제가 선정됨에 따라 당일부터 16일(일)까지 3일간 주말을 이용하여 인근 복합쇼핑몰 방문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의 교통허브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새 대통령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바람을 담은 ‘국민인터뷰’ 영상을 촬영하고, 기념품 증정 및 온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룰렛 이벤트를 곁들여 국민질문 공개모집 행사를 오프라인 현장에서 확대 실시하였다. 또한, 울산광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채로운 선거캠페인 행사의 일환으로 후보자토론회 국민질문 공개모집에 참여하였다.²⁴ 응모자 중 5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증정하였다.

(2) 국민질문 공개모집 세부결과

국민질문 온·오프라인 공개모집 행사에는 총 4,591명이 참가하여 8,396건의 질문이 접수되었다. 총 3,965명이 7,280건의 질문을 공모한 온라인 공개모집은 3회 개최되는 초청 후보자토론회의 생방송 일정에 따라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17. 4. 23. 개최)에서 다루어질 ‘정치분야’는 4월 16일,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17. 4. 28. 개최)의 토론분야인 ‘경제’는 4월 23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17. 5. 2. 개최)의 쟁점인 ‘사회분야’는 4월 27일까지로 응모 마감일을 달리하여 진행되었다. 서울과 울산에서 각각 개최된 오프라인 행사에서는 후보자토론회의 차수별 토론분야만 구분하여 총 626명(서울 526명, 울산 100명)이 1,116건(서울 876건, 울산 240건)의 국민질문(질문 제목 및 내용)을 행사 현장에서 직접 작성하여 응모하였다.²⁵

24 울산광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4월 8일(토) ‘열린 태화강 나눔장터’ 개장식에서 남구바른실천시민모임과 공동 주관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19대 대통령선거 “함께할수록 아름다운 선거” 캠페인을 개최하고, 시민들이 작성한 질문을 직접 투표함에 넣는 “대통령후보자님~질문있습니다~!” 행사를 통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국민질문 공모에 응모하였다. 이 행사에는 100명의 울산시민들이 참여하였다. 응모된 국민질문은 우편을 통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전달되었다. 그 밖에 이날 캠페인은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참여 홍보”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기증받은 중고물품의 판매수의 전액을 무료급식시설에 기부한 “나눔장터 중고물품 판매” 행사 등 온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25 질문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응모분야에 대한 대통령후보자들의 견해를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 ② 개인의 민원 또는 탄원 내용 제외, ③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지지·홍보하는 내용 제외.

표 2-18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국민질문 공개모집 개요

구분	온라인			오프라인	
	정치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	울산시	서울역·용산역
공모기간	'17. 3. 22.(수) ~ 4. 16.(일)	'17. 3. 22.(수) ~ 4. 23.(일)	'17. 3. 22.(수) ~ 4. 27.(목)	'17. 4 8.(토)	'17. 4 14.(금) ~ 16.(일)
응모질문	7,280건			240건	876건
응모자	4,965명			100명	526명
응모방법	이메일			현장작성 후 우편발송	현장 작성

참가 국민의 성별 분포를 보면, 여성(61.0%)이 남성(39.0%)보다 22%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 분포는 40대(32.8%), 30대(28.5%), 50대(15.8%), 20대(14.0%), 60대 이상(6.1%), 10대(2.8%) 순으로 61.3%를 차지한 30·40대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19 응모자 성별·연령대별 분포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성별		연령대					
		남	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4,591	1,788	2,803	130	641	1,310	1,506	724	280
	100%	39%	61%	2.8%	14%	28.5%	32.8%	15.8%	6.1%

응모된 질문건수에 있어서도 여성(55.5%)이 남성(44.5%)보다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31.7%), 40대(29.8%), 20대(15.8%), 50대(13.7%), 60대 이상(5.9%), 10대(3.1%)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0 성별·연령대별 질문건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성별		연령대					
		남	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8,396	3,740	4,656	260	1,327	2,665	2,503	1,150	491
	100%	44.5%	55.5%	3.1%	15.8%	31.7%	29.8%	13.7%	5.9%

정치·경제·사회 분야를 망라해서 살펴보면 응모된 8,396건의 질문 중에서 47.6%를 차지한 사회분야가 3,9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경제’(2,271건, 26.9%), ‘정치’(1,408건, 16.8%), 기타(722건, 8.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분포에 있어서는 4,656건의 질문을 응모한 여성(55.7%)이 3,740건의 질문을 작성한 남성(44.3%)보다 11.4%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분야별 응모 현황은 <표 2-21> 과 같다.

표 2-21 토론분야별 응모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성별		분야			
		남	여	정치	경제	사회	기타
계	8,396	3,740	4,656	1,408	2,271	3,995	722
	100%	44.3%	55.7%	16.8%	26.9%	47.6%	8.7%
10대	260	118	142	48	77	108	27
	3.1%	1.4%	1.7%	0.6%	0.9%	1.3%	0.3%
20대	1,327	581	746	268	397	545	117
	15.8%	6.9%	8.9%	3.2%	4.7%	6.5%	1.4%
30대	2,665	1,150	1,515	476	793	1,154	242
	31.7%	13.7%	18%	5.7%	9.4%	13.7%	2.9%
40대	2,503	1,073	1,430	346	581	1,378	198
	29.8%	12.8%	17%	4.1%	6.9%	16.4%	2.4%
50대	1,150	523	627	174	283	596	97
	13.7%	6.2%	7.5%	2.1%	3.3%	7.1%	1.2%
60대 이상	491	274	217	96	140	214	41
	5.9%	3.3%	2.6%	1.1%	1.7%	2.6%	0.5%

국민질문 분야별 세부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정치분야로 접수된 총 1,408건의 국민질문 중 여성이 646건(45.9%), 남성이 762건(54.1%)을 응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세부분야는 1,025건이 나온 ‘정치’(72.8%)였으며, ‘안보’(138건, 9.8%), ‘외교’(126건, 8.9%), ‘통일’(119건, 8.5%) 관련 질문이 그 뒤를 이었다. 정치분야 세부분석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22 국민질문 정치분야 응모 세부 내용

•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성별		연령대					
		남	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1,408	762	646	48	268	476	346	174	96
	100%	54.1%	45.9%	3.4%	19%	33.8%	24.6%	12.4%	6.8%
온라인	1,017	525	492	40	199	398	241	93	46
	72.2%	37.3%	34.9%	2.8%	14.1%	28.3%	17.1%	6.6%	3.3%
오프라인	391	237	154	8	69	78	105	81	50
	27.8%	16.8%	10.9%	0.6%	4.9%	5.5%	7.5%	5.8%	3.5%

• 정치분야 응모 세부 내용 (단위 : 건)

구분	계	정치	안보	외교	통일
계	1,408	1,025	138	126	119
	100%	72.8%	9.8%	8.9%	8.5%
온라인	1,017	754	96	101	66
	72.2%	53.5%	6.8%	7.1%	4.8%
오프라인	391	271	42	25	53
	27.8%	19.3%	3%	1.8%	3.7%

다음으로 ‘경제’ 관련 질문은 2,271건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남성이 1,196건(52.7%), 여성이 1,075건(47.3%)을 응모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경제성장’(814건, 35.8%), ‘일자리’(689건, 30.3%), ‘경제개혁’(412건, 18.2%), ‘민생’(356건, 15.7%) 순으로 나타나 경제성장 관련 내용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경제분야의 세부 분석 결과는 <표 2-23> 과 같다.

표 2-23 국민질문 경제분야 응모 세부 내용

•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성별		연령대					
		남	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2,271	1,196	1,075	77	397	793	581	283	140
	100%	52.7%	47.3%	3.4%	17.5%	34.9%	25.6%	12.4%	6.2%
인터넷	1,951	1,012	939	74	343	721	495	219	99
	85.9%	44.6%	41.3%	3.3%	15.1%	31.7%	21.8%	9.6%	4.4%
오프라인	320	184	136	3	54	72	86	64	41
	14.1%	8.1%	6%	0.1%	2.4%	3.2%	3.8%	2.8%	1.8%

•경제분야 응모 세부 내용

(단위 : 건)

구분	계	경제성장	민생	경제개혁	일자리
계	2,271	814	356	412	689
	100%	35.8%	15.7%	18.2%	30.3%
온라인	1,951	701	320	369	561
	85.9%	30.8%	14.1%	16.3%	24.7%
오프라인	320	113	36	43	128
	14.1%	5%	1.6%	1.9%	5.6

국민질문 공개모집 행사에 참여한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토론분야인 ‘사회’ 3,955건 중 2,495건이 응모된 ‘복지’가 62.5%로 압도적이었으며, ‘통합’(481건, 12.1%), ‘환경’(425건, 10.6%), ‘안전’(328건, 8.2%), ‘교육’(213건, 5.3%), ‘문화’(53건, 1.3%) 분야가 뒤를 이었다. 사회분야의 성별 비율을 보면, 여성 65.5%(2,617건)·남성 34.5%(1,378건)의 분포를 보였다. 사회분야 세부분석 결과는 <표 2-24> 과 같다.

표 2-24 국민질문 사회분야 응모 세부 내용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성별		연령대					
		남	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3,995	1,378	2,617	108	545	1,154	1,378	596	214
	100%	34.5%	65.5%	2.7%	13.6%	28.9%	34.5%	14.9%	5.4%
온라인	3,590	1,150	2,440	104	477	1,058	1,264	517	170
	89.9%	28.8%	61.1%	2.6%	11.9%	26.5%	31.7%	12.9%	4.3%
오프라인	405	228	177	4	68	96	114	79	44
	10.1%	5.7%	4.4%	0.1%	1.7%	2.4%	2.8%	2%	1.1%

•사회분야 응모 세부 내용

(단위 : 건)

구분	계	복지	교육	안전	문화	통합	환경
계	3,995	2,495	213	328	53	481	425
	100%	62.5%	5.3%	8.2%	1.4%	12%	10.6%
온라인	3,590	2,284	163	273	49	418	403
	89.9%	57.2%	4.1%	6.8%	1.3%	10.4%	10.1%
오프라인	405	211	50	55	4	63	22
	10.1%	5.3%	1.2%	1.4%	0.1%	1.6%	0.5%

(3) 국민인터뷰 영상 제작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후보자토론회를 지향하며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실시한 국민질문 공개모집 행사와 병행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영상에 담아 후보자들에게 전하는 한편, 시청자인 국민들을 위해서는 토론회 도입부에 역동성과 흥미성을 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여 국민인터뷰 영상을 촬영하였다.

촬영 및 제작은 국민인터뷰 방송제작 경험 등을 고려하여 전문업체에 의뢰하였으며, 전문여성 진행자가 현장에서 차수별 후보자토론회의 토론분야와 관련된 국민의 바람을 묻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촬영된 인터뷰 영상은 토론분야별로 각각 10개를 선별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준비소위원회의와 전체 위원회의에서 시사회를 거친 후 최종 편집하여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매 차수별 후보자토론회의 도입영상으로 활용하였다.

가족과 함께 나온 미취학 아동, 대학생, 그리고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이 관심을 보이며 3일 동안 총 1,500여명이 참여한 국민인터뷰 촬영현장은 국민질문 공개모집 행사의 룰렛 이벤트 등과 어우러져 작은 축제의 장을 이루었다.

그림 2-7 국민인터뷰 촬영 현장



4)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서비스 및 시청 인증샷 행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시청 접근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자체 공식 인터넷홈페이지 및 모바일웹 그리고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를 통한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서비스를 운영하였다. 아울러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시청 인증샷 이벤트’를 병행하였다.

‘다시보기’ 서비스는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가 생방송된 4월 23일(일) 다음날인 4월 24일(월)부터 5월 10일(수)까지 운영되었으며, 총 14,434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25〉).

표 2-25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접속자 현황(’17. 5. 10. 현재)

(단위 : 명)

구 분	합계	초청1차	초청2차	초청3차	초청외
접속자수	14,434	5,371	4,856	3,388	819
비 율	100%	37.2%	33.6%	23.5%	5.7%

후보자토론회 시청 장면과 응모자의 얼굴이 함께 나온 사진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대표이메일(debates@nec.go.kr) 및 페이스북으로 전송하여 응모하는 ‘시청 인증샷 이벤트’는 4월 23일(일)부터 5월 9일(화)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230명이 참여하였다(〈표 2-19〉). 차수별 토론회마다 125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였다.

표 2-26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 인증샷 참여 현황 (’17. 5. 10. 현재)

(단위 : 명)

구 분	합계	페이스북	이메일
접속자수	230	128	102
비 율	100%	55.7%	44.3%



그림 2-8 후보자토론회시청 인증샷홍보물

Part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리

1. 공직선거정책토론회
2. 후보자토론회

1) 개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를 실시하는 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선거 90일 전부터,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의 다음 달부터 후보자등록신청 개시 하루 전까지 월 1회 이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각종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해에 선거 3개월 전부터 월 1회씩 총 3회의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²⁶

그러나 이번 조기 대선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2017년 3월 10일의 다음 달인 4월 1일부터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개최해야 하는 법정 기한인 4월 14일(후보자등록신청 개시 1일 전)까지는 불과 14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3월 13일(월) 개최된 제3차 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정책토론회와 후보자토론회의 병행적 준비기간, 토론회 참석 요건을 갖춘 주요 5개 정당의 당내 경선 일정 및 선거대책본부 구성 시기 등 일련의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1회만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선거를 약 1개월 앞둔 4월 10일(월) KBS 본관 TS-4 스튜디오에서 KBS 백운기 앵커의 사회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20분에 걸쳐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다.

26 2004년 창설 이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하여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던 2016년까지 8회의 공직선거에서 총 24회의 정책토론회를 주관하여 개최하였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참석요건²⁷을 충족한 원내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주요직을 맡은 국회의원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표 3-1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 현황

구분	현황
개최일시	2017. 4. 10.(월) 10:00~12:00(120분)
개최장소	KBS TS-4 스튜디오
중계주관방송사	KBS
중계방송	KBS·MBC·SBS·국회방송 등 전국 동시 생중계
토론자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
사회자	백운기(KBS 앵커)
토론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주제 :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 제2주제 : 경제 활성화
진행방식	기조연설 → 사회자 공통질문 후 토론자 자유토론 → 맺음말

토론주제 선정에 앞서 다양한 견해를 균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참석대상 정당 및 시민단체·학회로부터 토론주제를 추천받고, 국회출입기자 등 전문가 설문조사와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포괄적인 의제들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의제들을 기초자료로 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전문위원회의('17. 3. 28.)와 준비소위원회의('17. 3. 29.)에서 다각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3월 31일(금) 제5차 위원회에서 시의성을 중심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외교·안보 및 대북 정책”(주제1)과 “경제활성화”(주제2)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제5차 위원회의에서는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주제선정 이외에 진행방식도 결정되었다. 토론회 진행방식 선정과 관련해서는, 공정성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기계적 경직성에서 탈피하여 토론의 역동성을 살릴 수 있는 진행방식을 전문위원회와 준비소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위원회의에서는 토론자별 발언시간이 총 18분인 ‘완전시간총량제 자유토론’을 기본적인 진행방식으로 결정하고, 세부적으로는 ‘기조연설’에 이어지는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후 토론자간 ‘자유토론’ 순으로 2개의 주제에 대해 토론한 후 별도의 발언시간이 적용되는 ‘맺음말’로 종료하는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완전시간총량제 자유토론’이란 후보자별로 동일하게 주어진 발언시간의 총량 범위 내에서 주제별 토론시간의 경계를 명시적으

27 본 백서 97쪽 (2) 초청대상 정당 선정 참조

로 정하지 않고 각 토론자가 주제별로 자신의 발언시간을 전략적으로 안배하여 기계적으로 정해진 발언순서에 따르지 않고 사회자에게 발언권을 신청하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을 말한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 코리아(Nielsen Korea)가 집계한 이번 대선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전국 기준 시청률은 제18대 대선이 실시된 2012년과 유사한 수준인 3.5%로 나타났다.

표 3-2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시청률 현황

구 분		AGB(전국기준)			
		KBS1	MBC	SBS	계
제18대 대선 (2012년)	1차(9. 24. 10:00)원내대표 등	2.0	0.8	0.8	3.6
	2차(10. 31. 10:00)정책위의장	2.0	0.8	0.8	3.6
	3차(11. 16. 10:00)선대위 대변인	3.2	0.9	1.1	5.2
제19대 대선 (2017년)	4.10. 10:00 정책위의장 등	2.0	0.7	0.8	3.5

2) 토론회 관리

(1) 개최 일시·장소 등 결정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중계주관방송사인 KBS와 일정 협의를 거쳐 3월 17일(월) 제4차 위원회에서 주요 정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등 대선체제 돌입 시기 등을 고려하여 4월 10일(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여의도 KBS 본관 TS-4 스튜디오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1회에 한하여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조기 대선의 중요성과 높은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토론회의 시청 접근성이 확대된 황금시간대 편성을 중계주관방송사측과 협의하였으나, 당대표 또는 선거대책위원장이 참석할 경우에만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어 황금시간대 편성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KBS, MBC, SBS 공중파 3사 및 국회방송, KTV국민방송의 채널을 통해 전국에 동시 생중계되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EC-TV²⁸를 통해 인터넷상에서도 생중계로 방영되었다. 또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토론회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권자의 시청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2) 초청대상 정당 선정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초청대상 정당은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이 결정된 제4차 위원회의('17. 3. 17.)에서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에 규정된 참석요건을 근거로 선정되었다. 이 법규에 따라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직전 대통령선거·총선·지방선거에서 3% 이상의 유효 득표율을 올린 정당'은 5개 원내 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이었다.

표 3-3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초청정당 선정기준 일람표

• 정당별 의석수 현황

정당명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무소속
의석수	121	94	39	32	6	7

※ 자료 :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 '의석수 현황' (2017. 3. 17. 현재)

• 정당별 직전선거 득표율 현황

직전선거별 정당명	제18대 대통령선거 2012. 12. 19.	제6회 지방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2014. 6. 4.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2016. 4. 13.
더불어민주당	48.02 (민주통합당)	41.23 (새정치민주연합)	25.54
자유한국당	51.55 (새누리당)	48.87 (새누리당)	33.50 (새누리당)
국민의당			26.74
정의당		3.61	7.23

※ 자료 : 자체 구성

28 NEC-TV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던 인터넷방송으로, 2017년 4월 26일 개국한 한국선거방송으로 대체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국선거방송은 Kt 올레TV(채널 273번)과 티브로드(채널 205번)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당내 경선이후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를 갖춘 주요 5개 정당은 지도부에서 토론자를 선정하여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조기대선의 후보자토론회를 앞두고 정당의 정강·정책과 소속 후보자의 정책 공약을 예비 검증하는 장(場)의 역할을 하였다.

표 3-4 공직선거정책토론회 토론자 현황

정 당 명	토론자	주요 당직	신대위 직책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수석대변인
자유한국당	김종석	전 여의도연구원장	경제산업제1본부장
국민의당	김성식	수권비전위원회 위원장	전략본부장
바른정당	김세연	사무총장	선대본부장
정의당	이정미	부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전략기획본부장

(3) 토론의제 수집 및 토론주제 선정

① 토론의제 수집

2017년 3월 17일(금) 제4차 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토론분야가 ‘국정현안’으로 결정됨에 따라 다양한 관점을 균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문위원, 참석대상 5개 정당, 시민단체 및 관련학회 등으로부터 토론의제를 추천받아 수집하였다. 또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국회출입기자 및 토론분야 전문기자 55명을 대상으로 의제 수집을 위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3-5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전문가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국회출입 기자 및 토론분야 해당 전문기자
표본크기	55명
표집방법	기 구축한 DB에서 전수조사
조사기간	2017. 3. 17.~3. 27.
조사방법	이메일과 스마트폰을 통한 웹조사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

‘국정현안’에 관한 총 252개의 의제가 수집된 전문가 조사에서 가장 많이 추천된 의제는 31건의 ‘개헌 문제’와 25건의 ‘경제 활성화 방안’이었으며, ‘대북정책 방향’,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각 22건), ‘국민통합 방안’(21건), ‘사드배치 논란’(16건), ‘일자리 정책’·‘교육 개혁 방안’·‘저출산 고령화 대책’(각15건), ‘권력기관 개혁’(7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표 3-6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전문가조사 결과

순위	추천 토론의제	사례수(건)	비율(%)
1	개헌 문제	31	12.3
2	경제 활성화 방안	25	9.9
3	대북정책 방향	22	8.7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	22	8.7
5	국민 통합 방안	21	8.3
6	사드배치 논란	16	6.3
7	교육 개혁방안	15	6.0
	일자리 정책	15	6.0
	저출산 고령화 대책	15	6.0
10	권력기관 개혁	7	2.8
11	노동시장 구조개선	5	2.0
	연경	5	2.0
13	경제 민주화	4	1.6
	문화산업 육성 방안	4	1.6
	병역제도 개혁	4	1.6
	북한 핵무장 대응방안	4	1.6
	재벌 개혁	4	1.6
	지역 균형 발전	4	1.6
19	적폐 청산	3	1.2
	정부조직 개편	3	1.2
21	국정교과서에 대한 입장	2	0.8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2	0.8
	부동산 대책	2	0.8
	선거제도 개편	2	0.8
	취약업종 구조조정	2	0.8
26	국내 관광업 활성화 방안	1	0.4
	국회 혁신방안	1	0.4
	국회선진화법 개정	1	0.4
	금융산업 선진화	1	0.4
26	기본소득세 도입	1	0.4

순위	추천 토론의제	사례수(건)	비율(%)
	사회 안전	1	0.4
	인권강화 방안	1	0.4
	조세개편	1	0.4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1	0.4
	청와대 이전과 소통문제	1	0.4
	한국 농업 발전	1	0.4
	혐오사회	1	0.4
	환경문제	1	0.4
	합계	252	100.0

② 토론주제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주제는 2017년 3월 31일(금) 제5차 위원회의에서 선정되었다. 무엇보다 참석 토론자의 수(5명)와 토론회 방송시간(120분)을 고려하여 주제의 수를 2개로 정하고, 민생현안을 포함하는 정치·경제 분야에서 각각 1개씩의 주제를 시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주제 1은 정치분야의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 주제 2는 경제분야의 “경제 활성화”로 결정하였다. 또한, 각 주제의 토론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토론논점을 정하였다.

표 3-7 공직선거정책토론회 토론주제 등 선정 현황

구분	주제 1	주제 2
주제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	경제 활성화
토론논점	사드를 둘러싼 미중일 외교관계, 대북정책 등	가계부채,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일자리 창출 방안 등 각 당의 경제현안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

(4) 진행방식 결정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진행방식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문회의(‘17. 3. 28.) 및 준비소위원회의(‘17. 3. 29.)의 전문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2017년 3월 31일(금) 제5차 위원회의에서 결정되었다(〈표3-8〉).

표 3-8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진행방식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기조연설	【국정운영 방안 등 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의 입장】 • A/B/C/D/E 토론자(각 2분 정도)	91분 (토론자당 18분)
사회자 공통질문 후 토론자 자유토론	<주제 1> 외교·안보 및 대북 정책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C/D/E/A 토론자 답변 후 C 토론자부터 자유토론식으로 발언(각 8분 정도) ※ 토론자는 1회 발언(질문·답변 등)시 가급적 2분 이내로 함. 사회자는 토론흐름에 따라 적절히 토론자를 지명하고, 쟁점이 되는 사안 등에 대하여 논점을 제시할 수 있으며, 불명확한 입장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충(개별)질문을 할 수 있음(이하 동일).	
	<주제 2> 경제활성화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D/E/A/B/C 토론자 답변 후 E 토론자부터 자유토론식으로 발언(각 8분 정도)	
맺 음 말	• A/B/C/D/E 토론자(각 1분) ※ 시간이 모자라거나 남는 경우 맺음말 조정	5분
계		96분

이번 대선을 앞두고 1회 개최된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후보자들의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주요 5개 정당의 주요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국의 국민에게 선거와 관련된 정책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던 바, 국정운영 방안 등 조기 대선에 임하는 주요 5개 정당의 입장을 알 수 있도록 ‘기조연설’을 활용하여 들어보기로 하였다.

토론회는 ‘기조연설’ → ‘사회자 공통질문 후 토론자 자유토론’ → ‘맺음말’ 순서로 진행되, 기조연설과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및 이후 토론자간 자유토론은 완전시간총량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맺음말 시간을 별도로 두었다. 따라서 토론자 1인당 발언시간은 완전시간총량제에 의한 18분에 별도의 ‘맺음말’ 1분을 포함하여 총 19분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토론회 불참 등 토론자 수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토론자 수에 따른 진행방식도 예비로 준비하여 토론회가 차질없이 개최되도록 하였다.

다만, 원활한 토론회 진행을 위해 1회 발언을 가급적 2분 이내로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1회 발언 시 3분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토론자당 맺음말 시간을 당초 1분에서 30초씩을 추가하였다.

완전시간총량제 방식에 따라 토론자들이 직접 자신의 발언시간을 관리하면서 사용하도록 안내하였고, 주제별 토론시간은 명확하게 분배하지 않고 토론의 흐름에 따라 사회자가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기조연설과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는 토론회 1주일 전인 4월 3일(월) 설명회에서 추첨을 통해 결정하였다. 그러나 자유토론의 첫 번째 발언자 이후부터는 기계적인 순서에 따르지 않고 자유롭게 사회자에게 발언을 미리 거수로 신청하여 발언하는 것으로 하고, 사회자가 토론의 흐름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이나 논점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회자 역할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5) 사회자 선정



그림 3-1 사회자 백운기(KBS)

사회자는 3월 31일(금) 제5차 위원회의에서 백운기 KBS앵커로 결정되었다. 사회자 선정은 대학교수, 법조인, 방송인 중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들이 추천한 사회자 후보를 대상으로 3월 29일(수) 준비소위원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성, 방송경력, 토론회 진행 경험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선정된 사회자에게는 주제 및 진행방식을 비롯하여, 사회자의 역할과 토론회 세부진행표(Que sheet) 등이 포함된 안내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사회자가 직접 작성한 사회자 공통질문 및 오프닝 멘트는 4월 5일(수) 준비소위원회의에서 사회자가 참석한 가운데 함께 검토하였다.

특히, 사회자의 역할과 관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진행, 토론자 발언시간의 관리 및 발언자 지명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자에게 안내를 하였다.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서 사회자의 역할은 과거에 비해 확대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 중 몇 가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사회자는 토론자의 주요 발언내용 정리 및 논점제시 등을 통해 주제별 자유토론을 시작할 수 있다.
- 토론내용이 주제에서 벗어날 경우 논점을 제시한다.
- 토론자의 발언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토론자 또는 모든 토론자에게 보충질문이나 부연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자유토론에서 토론자간 잔여 발언시간의 편차가 클 경우, 사회자는 토론자의 발언 순서

및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 특정 토론자에 대한 비방·인신공격, 복수 토론자의 동시다발적 발언으로 시간계측이 어려운 경우 등 토론자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회자는 중재할 권한이 있다.
- 사회자는 토론의 흐름을 고려하여 적절히 토론자를 지명할 수 있다.

(6) 설명회 개최

2017년 3월 31일(금) 제5차 위원회의 직후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개최가 공표됨에 따라 4월 3일(월) 오후 4시부터 1시간에 걸쳐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의 인사말에 이어 방송토론티핑장이 개최일시 및 장소, 토론주제와 진행방식, 사회자의 역할 등을 설명하고, 담당 직원이 토론시간관리시스템을 시연한 후에 토론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이 토론회 당일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를 추첨하였다. 또한 4월 10일 토론회 당일 일정과 질서유지 등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진행방식 등 안내사항이 토론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표 3-9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설명회 개최 현황 등

개최일시	개최장소	소속 정당	좌석 및 발언순서 추첨 결과
2017. 4. 3.(월) 16:00~17:00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더불어민주당	D
		자유한국당	C
		국민의당	E
		바른정당	A
		정의당	B

토론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생방송 시작 1시간 전인 오전 9시까지 각 정당의 토론자들이 방송국에 도착하여 분장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토론회 당일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방송사 출입증을 정당별 2장으로 한정하여 발급하였다.

그림 3-2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설명회 진행



토론회 관련 안내

좌석 및 발언순서 추첨

(7) 질문사항 선정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사회자 공통질문은 제5차 위원회의('17. 3. 31.)에서 선정된 주제별로 사회자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에서 각각 작성한 질문안을 준비소위원회의('17. 4. 5.)에서 심층적으로 교차 검토한 후, 4월 7일(금) 제6차 위원회의에서 최종 선정하였다. 각 주제를 함축적으로 요약한 '토론논점'은 정책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석대상 정당의 토론자들에게 통지하여 토론회 준비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표 3-10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사회자 공통질문 및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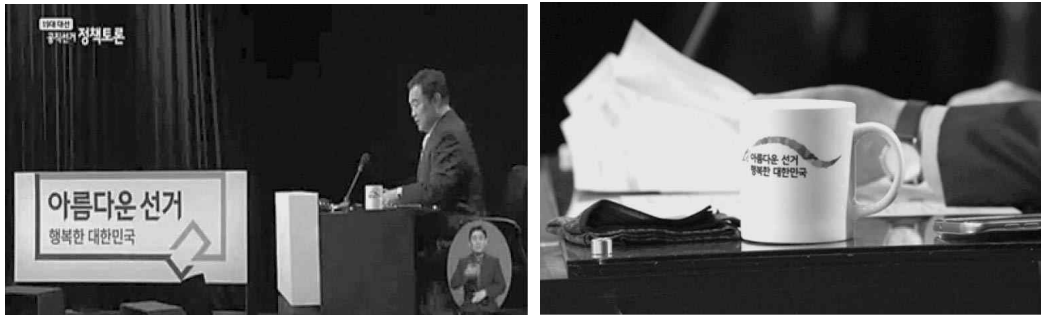
구 분	사회자 질문사항 및 요지
제1주제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	<p>첫 번째 주제는 외교·안보와 대북정책입니다. 북한의 핵개발 위험이 날로 도를 더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저마다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외교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 각 당의 정책을 들어보겠습니다.</p> <p>질문요지 : 복잡한 외교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해법은?</p>
제2주제 경제 활성화	<p>두 번째 주제는 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300조원에 이르러, 경제성장률은 2%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또 어떻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할 수 있을지, 비전 제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선, 각 당은 우리경제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p> <p>질문요지 : 현재 우리 경제에 대한 각 당의 인식은?</p>

(8) 토론회 개최 홍보

토론회 홍보는 사전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활용하여 개최 안내를 하였고, 언론을 위한 보도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토론회가 개최된 스튜디오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제19대 대통령선거 슬로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 새겨진 구조물이 방송화면에 표출되게 하여 선거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확산시키고자 하였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사회자와 토론자를 위해 제공한 물컵의 시각적 효과를 통하여 선거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림 3-3 공식선거정책토론회 홍보물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슬로건 방송화면 표출 ‘아름다운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슬로건 물컵 활용

(9) 토론회장 설비 및 토론회 진행

① 토론회장 설비

토론회장 세트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토론회 개최 하루 전에 여의도 KBS 본관 TS-4 스튜디오에 설비를 완료하였다. 타원을 그리며 자리한 토론자 5명이 사회자와 마주보는 구조로 설비되었으며, 토론자와 사회자 사이의 세트 중앙에는 원형구조물을 설치하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슬로건인 “열린토론 바른선택”과 토론회명인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정책토론회”를 새겨 넣었으며, 위원회의 상징물(Corporate Identity, CI)과 로고(Logo)를 표출하였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슬로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 새겨진 별도의 구조물을 사회자 우측에 설비하고, 스튜디오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토론시간관리시스템을 설비하였다(〈그림 3-4〉).

그림 3-4 공직선거정책토론회 토론회장 설비



토론회장 세트 설비



세트 중앙 원형 구조물



홍보 구조물 및 토론자 개별 모니터



토론시간관리시스템 운영

스튜디오카메라는 토론자별로 각 1대가 배치되었으며, 사회자용 프롬프터(Prompter) 카메라와 수어통역사 전용 카메라 각 1대와 전체화면용 지미집(Jimmy Jib) 카메라 1대가 투입되어 총 8대의 방송카메라가 사용되었다.

각 토론자의 잔여발언시간을 표출해주는 토론자용 개별모니터는 토론자의 맞은편에 설치하였고, 토론자 5명의 발언시간이 모두 표출되는 사회자용 모니터는 사회자의 우측에 설치하였다.

그림 3-5 토론자 및 사회자 토론시간관리모니터



사회자용 토론시간관리 모니터



토론자용 토론시간관리 개별모니터

또한 토론자의 편의를 위해 중계주관방송사 KBS의 종합분장실 1개소, 토론자 대기실 5개소 및 관계자 대기실을 협조 받았으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들이 토론회를 모니터하고 유사시 즉각 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모니터실을 제공받았다. 청각장애 유권자들을 위해서는 스튜디오 내에 별도의 수어(手語)통역세트를 설비하였으며, 자막방송을 병행하여 제공하였다.

② 토론회 진행

2017년 4월 10일(월) 오전 10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정책토론회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 이전에 개최되는 정책토론회로서, 선거와 관련된 지지호소의 발언은 자제해 달라는 사회자의 안내로 시작되었다. 효율적인 정책토론을 위해 1회 발언 시 가급적 2분 이내로 제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1회 발언에 3분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자유토론의 진행 시간에 여유가 생김에 따라 ‘맺음말’을 당초 1분에서 1분 30초로 조정하여 토론회 방송을 마무리하였다.

사회자는 주제 전환 시점에 토론자별 잔여 발언시간의 편차가 크지 않도록 관리하였으며, 클로징 멘트와 자막 등을 활용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중계방송 일정과 분야 등을 안내하였다.

그림 3-6 공식선거정책토론회 진행



토론회 생방송 장면



수어통역

1) 개요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선거 1일 전까지 가능하다. 여기서 ‘선거기간’이란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같은 법 §33)를 말한다. 이 법규들에 따라 2017년 5월 9일에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인 4월 17일(월)부터 선거 하루 전날인 5월 8일(월)까지였다.

22일 동안의 선거운동 기간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선 후보자들의 정책공약 및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제4항에 따른 초청 요건을 갖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3회(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초청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그 외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1회(초청외 후보자토론회) 등 총 4회의 후보자토론회를 주관하여 개최하였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후보자 검증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언론기관 등이 주관한 후보자 TV토론도 세 차례 성사되었다.²⁹

29 언론사 주관 후보자토론회 개최 현황

주관	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중계방법	개최장소	사회자
SBS, 한국기자협회	4.13.(목) 22:00~00:20	SBS, 연합뉴스TV	녹화 ※ 4.13.(목) 10:00-12:30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 공개홀	김성준 (SBS 보도본부장)
KBS	4.19.(수) 22:00~00:00	KBS, 연합뉴스TV, YTN	생방송	여의도 KBS 본관 스튜디오	박영환 (KBS 취재주간)
JTBC, 중앙일보, 한국정치학회	4.25.(화) 20:40~23:30	JTBC, 연합뉴스TV, YTN	생방송	일산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5층 스튜디오	손석희 (JTBC보도부문 사장)

표 3-11 후보자토론회 개최 현황

구 분	초청 1차	초청 2차	초청 3차	초청의
개최일시	2017. 4. 23.(일) 20:00 ~ 22:00	2017. 4. 28.(금) 20:00 ~ 22:00	2017. 5. 2.(화) 20:00 ~ 22:00	2017. 4. 24.(월) 23:00 ~ 4. 25.(화) 01:00
개최장소	KBS TS-4 스튜디오	MBC C 스튜디오	MBC C 스튜디오	KBS TS-4 스튜디오
중계주관 방송사	KBS	MBC	MBC	KBS
중계방송	KBS, MBC, SBS, 국회방송 등			KBS, MBC, 국회방송 등
참 석 후 보 자	5명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9명 (조원진, 오영국, 장성민, 이재오, 김선동, 남재준, 이경희, 윤홍식, 김민찬)
사 회 자	김진석 (KBS 기자)	박용찬 (MBC 논설위원실장)	이경희 (한국외대 교수)	백운기 (KBS 앵커)
토론분야	정치	경제	사회	국정 전반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궐위선거로서 무엇보다 후보자들의 자질을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기 때문에 역대 어느 대선보다 후보자 검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던 바, 3월 10일 조기 대선 정국으로 돌입하자마자 후보자토론회의 개최에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16년 12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2017년에 들어와 조기 대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져가는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직면하여 ‘유권자 중심의 후보자토론회’ 및 ‘대국민 소통 강화’라는 선거방송토론 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공정성과 균형성의 원칙 아래 유익성과 흥미성을 겸비한, 과거 대선 후보자토론회와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획기적인 토론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구미 주요 선거방송토론의 사례에 대한 자체 분석 및 방송토론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만약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였다.

이에 2017년 3월 대통령 궐위로 의한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와 준비소위원회의에서 면밀한 검토를 한 후, 조기 대선을 한 달여 앞둔 4월 7일(금) 제6차 위원회의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 적용할 일련의 새로운 진행방식을 결정하였다.

상호 존중의 민주적 정치커뮤니케이션의 의식(儀式)을 상징하는 디베이트(Debate) 형식인 ‘스탠딩 토론’, 과거 기계적인 발언시간의 분배로 인해 경직되었던 후보자토론회에서 탈피하

여 상대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한 역동적인 반론·재반론의 기회를 보장하는 ‘완전시간총량제 자유토론’, 또한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하여 후보자들이 서로 상대방의 정책공약을 교차 검증하는 ‘후보자 정책검증토론’의 과감한 도입은 우리나라 선거방송토론의 장기적인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시대적 요구였다.

변화는 후보자토론회의 형식과 진행방식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토론회 생방송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공통질문으로 활용한 국민질문,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에서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영상에 담아 토론회 도입부에서 후보자들에게 전하는 국민인터뷰 영상, 또한 토론회의 시청 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상파 방송을 비롯하여 종합편성채널, 국제방송 그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및 포털사이트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청 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 역시 국민과 함께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향하는 유권자 중심의 후보자토론회와 대국민 소통 강화에 대한 의지의 논리적 귀결이었다.

2) 토론회 관리

(1) 개최 일시·장소 등 결정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17년 3월 17일(금) 제4차 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제 82조의2 제4항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에 총 3회 개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및 같은 법 제5항에 따른 초청외 후보자토론회의 개최 일정 및 장소 그리고 각 토론회의 주제 분야를 결정하고 자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였다.³⁰ 무엇보다 후보자토론회의 개최 일정은 재외국민투표(4. 25.~30.)와 사전투표 일정(5. 4.~5.)을 고려한 것이다.

30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www.debates.go.kr) ‘공지사향’ No. 492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일정 안내” 참조

표 3-12 후보자토론회 개최 일정

•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에 따른 토론회(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구분	날짜	시간	장소	중계방송사	토론분야
1차	2017. 4. 23.(일)	20:00~22:00	KBS 본관 스튜디오	KBS, MBC	정 치
2차	2017. 4. 28.(금)	20:00~22:00	상암 MBC 스튜디오	KBS, MBC	경 제
3차	2017. 5. 2.(화)	20:00~22:00	상암 MBC 스튜디오	KBS, MBC	사 회

•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5항에 따른 토론회(초청외 후보자토론회)

구분	날짜	시간	장소	중계방송사	토론분야
1차	2017. 4. 24.(월) ~ 4. 25.(화)	23:00~01:00	KBS 본관 스튜디오	KBS, MBC	국정전반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총 3회 개최하는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의 일정은 4월 23일(일) 정치 분야를 다루는 초청 1차 토론회, 4월 28일(금) 경제 분야의 초청 2차 토론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분야의 정책공약을 다루는 초청 3차 토론회는 선거 1주일 전인 5월 2일(화)로 결정하였다. 개최 시간은 같은 법 같은 조 제10항³¹에 따라 세 차례의 후보자토론회 모두 황금시간대인 밤 8시부터 10시까지 120분 동안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 외 후보자들을 위한 ‘초청외 후보자토론회’는 중계주관방송사인 KBS의 방송편성 상황에 따라 4월 24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120분 동안 진행하며, 토론분야는 ‘국정 현안’으로 결정하였다.

개최 장소로는 공영방송사인 KBS와 MBC의 스튜디오를 이용하며, 여의도 KBS 본관 TS-4 스튜디오에서 초청 1차 및 초청외 후보자토론회를 개최하고, 초청 2·3차는 상암MBC C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2017년 3월 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급변하는 정치 상황과 예상되는 탄핵정국 이후의 대선정국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신속하게 주요 관계기관과의 업무회의를 개최하였다. 무엇보다 중계주관방송사인 KBS 및 MBC 관계자들과 후보자토론회의 일정 및 포털사이트 실시간 중계 등에 대해 협의하였고, SBS 관계자를 방문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

31 “공영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되,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는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보자토론회의 중계에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토론회의 시청 접근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공식선거법에 따른 중계주관방송사인 KBS와 MBC 이외에 SBS, 국회방송, KTV 국민방송 등을 비롯하여 재외선거인을 위해 KBS월드와 아리랑국제방송도 중계에 참여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과의 적극적인 협조로 초청 1차 및 초청외 후보자토론회는 NEC-TV, 초청2·3차는 4월 24일 개국한 한국선거방송(eTV)이 중계방송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여 시청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표 3-13 후보자토론회 중계방송 현황

구분	중계주관 방송사	수중계 방송사
초청 1차 (17. 4. 23.)	KBS	MBC, SBS, TV조선, MBN, YTN, 연합뉴스TV, 국회방송, KTV, OBS, KBS 월드, NEC TV 등
초청 2차 (17. 4. 28.)	MBC	KBS, SBS, TV조선, MBN, YTN, 연합뉴스TV, 국회방송, KTV, OBS, 아리랑국제방송, 오마이뉴스, 조선일보닷컴, 한국선거방송(재방송) 등
초청 3차 (17. 5. 2.)	MBC	KBS, SBS, TV조선, MBN, JTBC, YTN, 연합뉴스TV, 국회방송, KTV, OBS, 오마이뉴스, 조선일보닷컴, 한국선거방송(재방송) 등
초청외 (17. 4. 24.) ³²	KBS	MBC, 국회방송, KTV, NEC TV 등

(2) 진행방식 결정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17년 4월 7일(금) 제6차 위원회의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참석 예상 후보자 수에 따른 진행방식을 각각 결정하고, 자체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토론회 개최 일정을 공표하였다.

이는 대통령의 권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토론회의 진행방식을 선거 30일 전까지 참석 예상 후보자의 수별로 결정하여 공표해야 한다는 개정 「관리규정」 제13조에 근거한 것으로, 이에 따른 이번 대선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공표의 법정기한은 4월 10일(화)까지였다.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의 개요는 <표 3-14> 와 같다.

32 www.debates.go.kr; '공지사향' No. 500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공표"

표 3-14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개요

•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에 따른 토론회(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구분	진행방식	비고
1차	국민인터뷰(영상)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사회자 공통질문(또는 국민질문)에 답변 후 후보자 자유토론(완전시간총량제) 맺음말	스탠딩 토론
2차	국민인터뷰(영상)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후보자 상호간 정책검증 토론(정책발표 후 1:1 자유토론) 맺음말	좌식 토론
3차	국민인터뷰(영상)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사회자 공통질문(또는 국민질문)에 답변 후 후보자 자유토론(완전시간총량제) 맺음말	스탠딩 토론

•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5항에 따른 토론회(초청외 후보자토론회)

구분	진행방식	비고
1차	국민인터뷰(영상)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기조연설 → 사회자 공통질문에 답변 후 후보자 자유토론(완전시간총량제) 맺음말	좌식 토론

토론진행방식에 있어서, 초청 1·3차 및 초청외 후보자토론회는 ‘사회자 공통질문 또는 국민질문’에 대한 답변과 이에 이어지는 ‘후보자간 자유토론’을 완전시간총량제로 운영하고, 마지막으로 별도의 시간이 주어지는 ‘맺음말’ 순서로 진행하였다.

각 후보자의 경제분야 정책공약이 주제인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는 개별 후보자의 경제정책 발표 후 나머지 후보자들과 1:1 자유토론으로 진행되는 ‘후보자 상호간 정책검증토론 방식’을 적용하였다.

토론회 형식에 있어서, 초청 1·3차 토론회는 후보자들이 연단 뒤에 서서 토론을 하는 포디엄 방식인 ‘스탠딩 토론’ 형식을 적용하였으며, ‘사회자 공통질문(또는 국민질문)’에 답변 후 후보자간 ‘자유토론’ 그리고 ‘맺음말’ 순으로 진행하였다. 자유토론 방식에서 각 후보자는 동일하게 주어진 발언시간의 총량 내에서 사회자 공통질문에 답변하고, 발언신청을 하여 상대 후보자와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후보자에게는 ‘맺음말’ 시간을 제외한 총 18분씩의 발언시간이 주어졌다. 특히, 이번 대선 후보자토론회에서는 콜드 스타트(Cold start) 방송기법을 적용하여 사회자 오프닝멘트를 간소화하고 기존의 기조연설을 생략하였으며, 토론분야별 주제를 2개로 정하여 120분의 방송시간 안에서 토론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대선 후보자토론회를 지향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들이 제19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생생한 목소리를 국민참여형 ‘국민인터뷰’의 형식으로 영상에 담아 모든 후보자토론회 도입부에서 사용하였다.

그림 3-7 국민인터뷰 영상



토론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기초연설을 생략한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와는 달리, 초청의 후보자토론회의 경우에는 1회만 개최하는 점 그리고 9명이라는 다수의 후보자가 참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설을 통해 후보자들이 핵심 공약 등을 압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15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스탠딩)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국민인터뷰	도입 영상(국민인터뷰)	1분
사회자 공통질문 (또는 국민질문)후 후보자 자유토론	주제 1 :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 - 미·중·일 외교정책 - 통일, 북핵 등 대북정책 • 국민질문(30초) → A/B/C/D/E 후보자 답변 후 A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자유토론	91분 (후보자당 총 18분)
사회자 공통질문 (또는 국민질문)후 후보자 자유토론	주제 2 : 권력기관 및 정치개혁 방안 - 검찰, 청와대, 국정원 등 - 선거제도, 개헌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C/D/E/A 후보자 답변 후 B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자유토론	91분 (후보자당 총 18분)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국민인터뷰	도입 영상(국민인터뷰)	1분
사회자 공통질문 (또는 국민질문)후 후보자 자유토론	주제 1 :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 - 미·중·일 외교정책 - 통일, 북핵 등 대북정책 ----- • 국민질문(30초) → A/B/C/D/E 후보자 답변 후 A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자유토론	91분 (후보자당 총 18분)
맺음말	• C/D/E/A/B 후보자(각 1분)	5분

※ <세부운영방법>

- 후보자별로 주어진 총 발언시간(18분)은 각 주제별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주제의 수를 고려하여 후보자 스스로 관리함.
- 한 주제 내에서는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각 후보자의 순차적인 답변과 첫 후보자의 발언 이후에는 순서없이 각 후보자간 자유토론이 가능함.
- 후보자는 1회 발언 자유토론 시 가급적 2분 이내로 함.
- 미리 사회자에게 신호를 보내 발언권을 얻으며, (발언 신청자가 없을 경우 또는 2명의 후보자가 동시에 발언권을 신청하는 경우 등) 사회자는 토론 흐름에 따라 발언할 후보자를 적절히 지명할 수 있음.
- 사회자는 후보자간 쟁점이 되는 사안 등에 대해 논점을 제시할 수 있고, 시간이 모자라거나 남는 경우 맺음말을 조정할 수 있음(총 방송시간 : 120분).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는 기존의 좌식 형식으로 진행하며, ‘국민인터뷰(영상) → 후보자 상호간 정책검증토론(후보자별 정책발표 후 1:1 자유토론) → 맺음말’ 순으로 진행방식을 결정하였다. 각 후보자는 총 3분의 발언시간 안에서 정책을 발표한 후 나머지 후보자들과 차례대로 1:1 자유토론을 하고(후보자당 발언시간 총량 : 2분), 맺음말은 1분 정도 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운영하였다.

표 3-16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좌식)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국민인터뷰	도입 영상(국민인터뷰)	1분
후보자 상호간 정책 검증토론 (후보자 모두발언 후 1:1자유토론)	주제 : 각 후보자의 경제분야 주요 정책 • A 후보자 정책발표(3분) B 후보자와 A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C 후보자와 A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D 후보자와 A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E 후보자와 A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 B 후보자 정책발표(3분) C 후보자와 B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D 후보자와 B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E 후보자와 B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A 후보자와 B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95분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후보자 상호간 정책 검증토론 (후보자 모두발언 후 1:1자유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C 후보자 정책발표(3분) D 후보자와 C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E 후보자와 C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A 후보자와 C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B 후보자와 C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9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D 후보자 정책발표(3분) E 후보자와 D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A 후보자와 D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B 후보자와 D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C 후보자와 D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E 후보자 정책발표(3분) A 후보자와 E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B 후보자와 E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C 후보자와 E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D 후보자와 E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맺음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B/C/D/E/A 후보자(각 1분) 	5분
계		101분

※ <세부운영방법>

- 개별 후보자의 정책 및 공약 발표 후, 이에 대해 나머지 4명의 후보자가 순서에 따라 질문과 답변 등을 통해 상호간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
- 후보자 당 각 2분 총량 범위내에서 자유토론을 하되, 발언의 횟수에는 제한 없음. 단 1회 발언시 가급적 1분 이내로 함.
- 사회자는 시간이 모자라거나 남는 경우 맺음말을 조정할 수 있음(총 방송시간 : 1분).마지막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는 초청 1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3-17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스탠딩)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국민인터뷰	도입 영상(국민인터뷰)	1분
사회자 공통질문 (또는 국민질문)후 후보자 자유토론	주제 1 : 복지·교육 정책 - 저출산·고령화 / 사회적 약자(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 / 정책의 지속가능성(재원 등) / 연금·보험 / 의료·환경 등 - 공교육 정상화 방안 / 사교육 문제 / 학제개편 등 -----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A/B/C/D/E 후보자 답변 후 A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자유토론	91분 (후보자당 총 18분)
	주제 2 : 국민통합 방안 - 국민과의 소통 / 인사편중 / 사회갈등 해소 / 국가 미래비전 등 ----- • 국민질문(30초) → B/C/D/E/A 후보자 답변 후 B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자유토론	
	• C/D/E/A/B 후보자(각 1분)	
맺음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C/D/E/A/B 후보자(각 1분) 	5분

※ <세부운영방법>

- 후보자별로 주어진 총 발언시간(18분)은 각 주제별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주제의 수를 고려하여 후보자 스스로 관리함.
- 한 주제 내에서는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각 후보자의 순차적인 답변과 첫 후보자의 발언 이후에는 순서없이 각 후보자간 자유토론이 가능함.
- 후보자는 1회 발언 시 가급적 2분 이내로 함.
- 미리 사회자에게 신호를 보내 발언권을 얻으며, (발언 신청자가 없을 경우 또는 2명의 후보자가 동시에 발언권을 신청하는 경우 등) 사회자는 토론 흐름에 따라 발언할 후보자를 적절히 지명할 수 있음.
- 사회자는 후보자간 쟁점이 되는 사안 등에 대해 논점을 제시할 수 있고, 시간이 모자라거나 남는 경우 맺음말을 조정할 수 있음(총 방송시간 : 120분).

9명의 후보자가 참석하는 초청의 후보자토론회는 기존의 좌식 형식으로 진행하고, ‘국민인 인터뷰 → 사회자 공통질문에 답변 후 후보자 자유토론 → 맺음말’ 순으로 진행방식을 결정하였다. 초청의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 수는 당초 10명이었으나, 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 후보자가 토론회 개최 3일 전에 사퇴하여 참석 후보자 9명을 기준으로 진행방식을 변경·공표하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표 3-18 초청의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좌식)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국민인인터뷰	인트로 영상(국민인인터뷰)	1분
기조연설	• A/B/C/D/E/F/G/H/I 후보자	91분 (후보자당 총 10분)
사회자 공통질문 후 후보자 자유토론	주제 1 : 정치·외교 분야 -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 - 권력기관 및 정치개혁 방안 등 -----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C/D/E/F/G/H/I/A 후보자 답변 후 B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자유토론	
	주제 2 : 경제·사회 분야 - 경제 활성화 - 복지·교육 정책 등 -----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C/D/E/F/G/H/I/A/B 후보자 답변 후 C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자유토론	
	• D/E/F/G/H/I/A/B/C 후보자(각 1분)	
맺음말	• D/E/F/G/H/I/A/B/C 후보자(각 1분)	10분

※ <세부운영방법>

- 후보자별로 주어진 총 발언시간(10분)은 기조연설 시간과 각 주제별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주제의 수를 고려하여 후보자 스스로 관리함.
- 한 주제 내에서는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각 후보자의 순차적인 답변과 첫 후보자의 발언 이후에는 순서없이 각 후보자간 자유토론이 가능함.
- 후보자는 1회 발언(질문·답변)시 가급적 2분 이내로 함.

- 미리 사회자에게 신호를 보내 발언권을 얻으며, (발언 신청자가 없을 경우 또는 2명의 후보자가 동시에 발언권을 신청하는 경우 등) 사회자는 토론 흐름에 따라 발언할 후보자를 적절히 지명할 수 있음.
- 사회자는 후보자간 쟁점이 되는 사안 등에 대해 논점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간이 모자라거나 남는 경우 맺음말을 조정할 수 있음(총 방송시간 : 120분).

(3) 사회자 선정

총 4회 개최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사회자는 토론회 진행방식이 결정된 4월 7일(금) 제6차 위원회의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총 13명의 위원들의 추천 명단과 준비소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엄격한 논의 과정을 거쳐 출석 위원 11명 전원 동의로 선정되었다.

사회자 선정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궐위선거가 갖는 중대성과 후보자등록을 약 1주일 앞두고 가시화되어 가는 토론회의 다자 구도 상황에 직면하여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규칙」 제23조(대담·토론회) 제2항에 입각하여 정치적 중립성, 공정하고 균형적인 토론진행 능력, 방송토론 진행의 풍부한 경험, 돌발 상황 등에 대한 신속적 대처능력은 사회자 선정의 중요한 척도로 고려되었다.

사회자 선정에 앞서 3월 31일(금) 제5차 위원회의에서 기자, 아나운서, 앵커 등 주관중계 방송사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인사도 사회자 추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13명의 위원들이 4월 4일(화)까지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의 각 차수별 사회자와 초청의 후보자토론회의 사회자를 추천하였다. 사회자 추천집계는 4월 5일(수) 준비소위원회의에서 검토를 거쳐 4월 7일(금) 제6차 위원회의에 상정되어 4명의 사회자가 되었다.

KBS 본관 TS-4 스튜디오에서 개최된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17. 4. 23.)의 사회자는 김진석 KBS기자, MBC 상암 C스튜디오에서 개최된 초청 2차('17. 4. 28.)와 3차('17. 5. 2.) 후보자토론회의 사회자로는 각각 박용찬 MBC논설위원실장 그리고 이정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선정하고, 백운기 KBS 앵커는 초청의 후보자토론회 사회자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4명의 사회자들은 각 토론회에서 사회자 공통질문으로 사용될 질문안을 작성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였고, 각 토론회의 질문사항 검토를 위한 준비소위원회회의에 참석하여 질문사항과 토론회 진행에 대해 함께 검토하였다.

무엇보다 자유토론에서는 사회자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므로, 사회자의 개입 시점과 범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 후보자토론회 사회자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 발언시간 관리

- 일부 후보자에게 질문이 집중되어 후보자간 잔여시간 편차가 커졌을 경우, 또는 주제 전환 시점의 경우에는 사회자가 각 후보자의 잔여시간을 고지한다.

■ 발언자 지명

- 후보자가 자유롭게 상대방을 지명하여 질문하거나 상호 논박하되, 토론흐름에 따라 필요시 아래와 같이 사회자가 발언자를 지명할 수도 있다.
 - 예시 : 발언권을 신청하는 후보자가 없거나 복수의 후보자가 동시에 발언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론의 흐름에 따라 발언할 필요가 있는 후보자에게 발언권을 부여한다.
 - 예시 : 자유토론에서 토론이 단절되거나 특정 후보자가 발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에는 후보자간 남은 발언시간 차이, 후보자의 발언 순서 등을 고려하여 시간이 많이 남았거나 발언기회가 적었던 후보자에게 발언권을 부여한다.

■ 주제범위 내의 자유로운 진행 유도

- 사회자는 쟁점이 되는 사안 등을 논점으로 제시할 수 있으나, 후보자에게 보충 또는 개별 질문을 하거나 부연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토론이 주제에서 벗어날 경우 공표된 논점을 후보자들에게 주지시킨다.
- 한 명의 후보자가 발언하는 도중에 다른 후보자가 끼어들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고 주의를 촉구하며, 총량 발언시간을 넘겨 발언할 경우에는 제지한다.
- 토론이 정책토론이 아닌 감정적인 네거티브 중심으로 진행되거나, 토론주제의 범위를 명백하게 벗어난 경우에는 사회자가 후보자의 발언 도중에 개입하여 정책토론임을 주지시키고 주제 범위 내에서 토론하도록 안내한다.

(4) 토론주제 선정

① 토론의제 수집

주제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인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토론의제 개발』 연구용역은 대통령의 권위로 인한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2017년 3월 10일부터 1개월 동안 한국정당학회에 의뢰하였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초유의 조기 대선으로 인해 역대 어느 선거보다 후보자 검증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 직면하여 의제개발 연구는 대통령 후보자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실용적 의제, 후보자들의 정책 및 정치철학 등을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차별적 의제, 후보자들의 미래지향적 리더십 검증을 위한 미래지향적 의제로 방향설정을 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정운영 분야별 전문가 참여와 조사를 통해 핵심적인 토론의제를 개발 정리하였고, 후보자토론회 진행을 위한 정책분야별 질문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각 정책분야별 토론의제 개발 현황은 <표 3-19>와 같다.

표 3-19 분야별 토론회 개발 현황

분야	주제	토론회
정치	대통령 리더십 검증	시대정신과 국가비전 대통령 인성 및 자질 검증 인사정책 및 측근관리 적폐청산과 사회통합 대통령과 재난대처
	정치 개혁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검찰 개혁 개헌의제 및 권력구조 개편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대통령과 연합 정치
	국정 운영	대통령과 국회 관계 대통령과 정당 민주화 대통령과 언론관계 대통령과 공약 정치소통과 국민 참여
외교	통일	대북, 통일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 대북 안보정책: 한반도 비핵화 전략 대북 경제정책: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 재개 여부 북한 인권 문제의 해결책
	안보	한중 안보갈등과 경제협력의 조화방안과 우선순위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정책과 한국의 정책방향 대북 억제력 증강을 위한 한미 협력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안보협력
	외교/통상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과 한국의 외교전략 한일 위안부합의 후속조치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한국의 정책방향 한국의 대중 경제의존도와 China Plus One 전략
경제	경제개혁	경제민주화 방안 재벌개혁 기업구조조정 정책 4차 산업혁명과 금융개혁
	경제성장 및 일자리	저성장시대의 경제성장 전략 일자리 창출 정책 청년실업 문제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책
	민생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경제 가계부채 (주택대출 문제 포함) 조세정책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국민연금 운용방안
사회	복지-여성	핵심복지정책과 재원마련방안 저출산-고령화 문제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

분야	주제	토론의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방안
	교육-과학-환경	장기적 교육정책의 수립과 실행 4차산업혁명과 교육정책 과학기술 역점분야 신재생에너지
	사회-문화	외국인 범죄문제와 사회통합 재난사고 예방과 대응 자살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 다문화정책 한류정책

또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토론의제를 선정 할 때 참고하기 위해 국민여론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7년 4월 6일(목)부터 4월 7일(금)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분야별로 논의되어야 할 주제를 각각 개방형과 폐쇄형 질문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표 3-20 후보자토론회 국민여론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표 집 틀	유무선 전화 RDD
표본크기	1,000명 (유선전화 219명, 무선전화 781명)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기준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표집오차	±3.1%p (95% 신뢰수준)
조사기간	2017. 4. 6. ~ 4. 7.
가 중 치 부여방식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2017년 3월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률	13.1%
조사방법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

■ 정치분야

유권자에게 정치분야 토론회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를 개방형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 ‘안보 정책’이 162명으로 가장 높으며, ‘외교 정책’(82명), ‘사드 배치 문제’(66명), ‘적폐 청산’(27명), ‘개헌 문제’와 ‘대북정책’(각 18명), ‘북한 핵 문제’(17명), ‘정치 개혁’과 ‘주변국과의 외교 문제’(각 16명), ‘탄핵 이후 통합 방안’(12명)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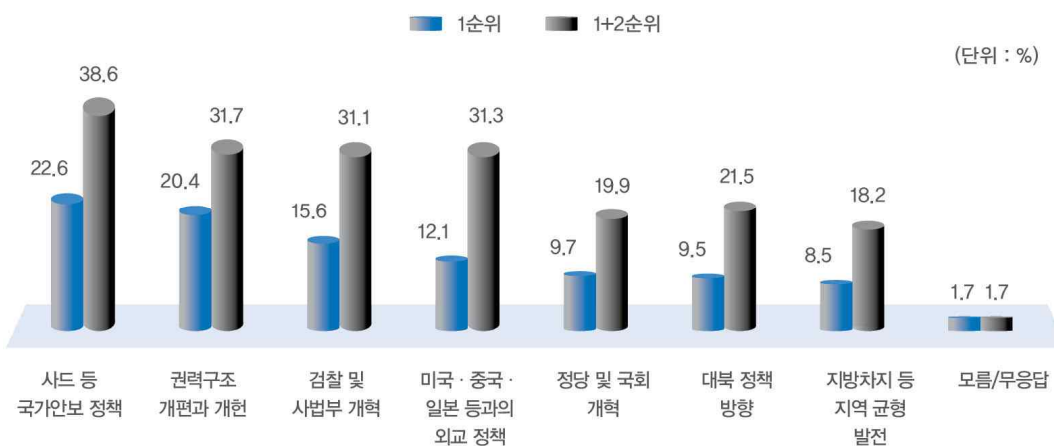
표 3-21 정치분야 논의 주제(개방형 질문)

순위	토론의제	사례수(건)	비율(%)
1	안보 정책	162	16.2
2	외교 정책	82	8.2
3	사드 배치 문제	66	6.6
4	적폐 청산	27	2.7
5	개헌 문제	18	1.8
	대북 정책	18	1.8
7	북한 핵문제	17	1.7
8	정치 개혁	16	1.6
8	주변국과의 외교 문제	16	1.6
10	탄핵 이후 통합 방안	12	1.2
11	경제 활성화 방안	9	0.9
	부정부패 척결	9	0.9
13	일자리 정책	6	0.6
14	빈부격차 해소	5	0.5
	위안부 문제	5	0.5
16	대연정	2	0.2
	경경유착	2	0.2
	지역 균형 발전	2	0.2
19	5.18 재조명	1	0.1
	공정 선거	1	0.1
	국가 위상 확립	1	0.1
	낙하산 인사	1	0.1
	내부고발자 보호정책	1	0.1
	노동자 근로 조건 개선	1	0.1
	복지 정책 및 재원 확보 방안	1	0.1
	선거구역 획정	1	0.1
	세월호 문제	1	0.1
	언론 개혁	1	0.1
	여성복지	1	0.1
	여소야대에 대한 입장	1	0.1
	최저 생계비	1	0.1
	친일 청산	1	0.1
모름/무응답	512	51.2	

정치분야의 토론 주제를 폐쇄형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 '사드 등 국가안보 정책'이 22.6%로 가장 많았으며, '권력구조 개편과 개헌' 20.4%, '검찰 및 사법부 개혁' 15.6%, '미국·중국·일본 등과의 외교 정책' 12.1%, '정당 및 국회 개혁' 9.7%, '대북 정책 방향' 9.5%, '지방자치 등 지역 균형 발전' 8.5%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결과를 보면, '사드 등 국가안보 정책'이 38.6%로 가장 높았으며, '권력구조 개편과 개헌' 31.7%, '미국·중국·일본 등과의 외교 정책' 31.3%, '검찰 및 사법부 개혁' 31.1%, '대북 정책 방향' 21.5%, '정당 및 국회 개혁' 19.9%, '지방자치 등 지역 균형 발전' 18.2%순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9 정치분야 논의 주제(폐쇄형 질문)



■ 경제분야

경제분야 주제를 개방형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 114명이 선택한 '부동산 정책'에 이어 '노동 문제'(98명), '일자리 정책'(74명), '가계부채 해결 방안'(72명), '조세 정책'(42명), '부동산 안정화 방안'(32명), '경제활성화 방안'(30명), '비정규직 문제 해결'(17명), '재벌 개혁'(16명), '조세 형평성 문제'(14명), '경제 양극화 해소 방안'(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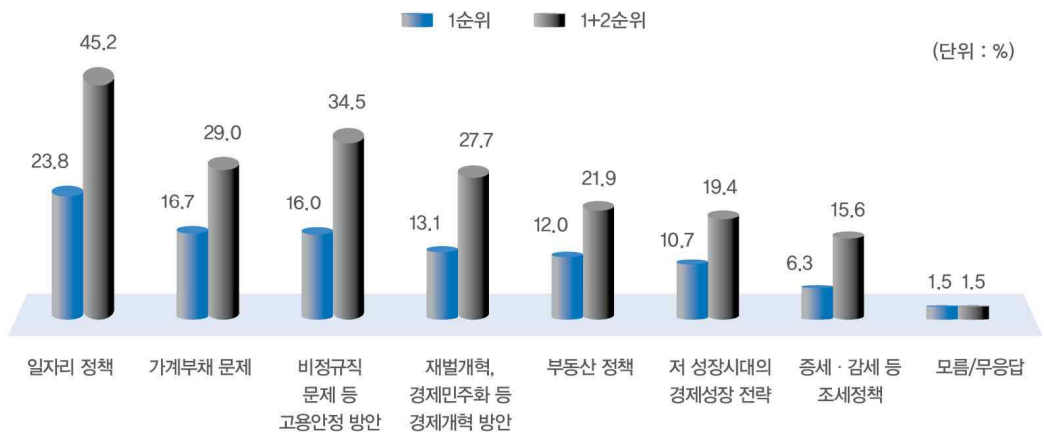
표 3-22 경제분야 논의 주제(개방형 질문)

순위	토론의제	사례수(건)	비율(%)
1	부동산 정책	114	11.4
2	노동 문제	98	9.8
3	일자리 정책	74	7.4
4	가계 부채 해결 방안	72	7.2
5	조세 정책	42	4.2
6	부동산 안정화 방안	32	3.2
7	경제 활성화 방안	30	3
8	비정규직 문제 해결	17	1.7
9	재벌 개혁	16	1.6
10	조세 형평성 문제	14	1.4
11	경제 양극화 해소 방안	13	1.3
12	노동자 근로 조건 개선	9	0.9
13	서민 경제 활성화	7	0.7
14	주거 문제 해결	6	0.6
15	국가 부채 문제	5	0.5
	물가 안정	5	0.5
17	경제 민주화	4	0.4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	4	0.4
19	노동 개혁	3	0.3
	복지 정책 및 재원 확보 방안	3	0.3
	수출 활성화 방안	3	0.3
	최저임금 문제	3	0.3
23	부동산 대출 규제 문제	2	0.2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2	0.2
	금리 문제	2	0.2
	농촌경제 활성화	2	0.2
	부동산 규제 완화	2	0.2
	조선업 문제 해결	2	0.2
	중소기업 활성화	2	0.2
30	개성공단 문제	1	0.1
	건보료 부과 형평성 문제	1	0.1
	건설 경기 활성화	1	0.1
	기본소득제	1	0.1
	노동자 인권 문제	1	0.1

순위	토론의제	사례수(건)	비율(%)
	노사 갈등 문제	1	0.1
	노인기초연금 문제	1	0.1
	단통법 문제	1	0.1
	제주 지역 중국인 유입 문제	1	0.1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 문제	1	0.1
	중소기업 인력 수급	1	0.1
	지역 균형 발전	1	0.1
	창업 육성 방안	1	0.1
	모름/무응답	399	39.9

경제분야 주제를 폐쇄형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 1순위는 23.8%가 나온 ‘일자리 정책’이었으며, 다음으로 ‘가계부채 문제’(16.7%), ‘비정규직 문제 등 고용안정 방안’(16.0%),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등 경제개혁 방안’(13.1%), ‘부동산 정책’(12.0%), ‘저성장시대의 경제성장 전략’(10.7%), ‘증세·감세 등 조세정책’(6.3%) 순이었다. 그리고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결과는 ‘일자리 정책’이 45.1%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비정규직 문제 등 고용안정 방안’(34.5%), ‘가계부채 문제’(29.0%),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등 경제개혁 방안’(27.7%), ‘부동산 정책’(21.9%), ‘저성장시대의 경제성장 전략’(19.4%), ‘증세·감세 등 조세정책’(15.6%) 순이었다.

그림 3-10 경제 분야 논의 주제(폐쇄형질문)



■ 사회분야

사회분야 주제를 개방형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 223명의 응답자가 ‘복지 정책 및 재원 확보 방안’을 사회분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였으며, 이어서 ‘교육 정책’(133명), ‘고령화 문제’(29명), ‘공교육 정상화 방안’(25명), ‘저출산 문제’(22명), ‘소외계층 복지 문제’(13명), 등의 순이었다.

표 3-23 사회 분야 논의 주제(개방형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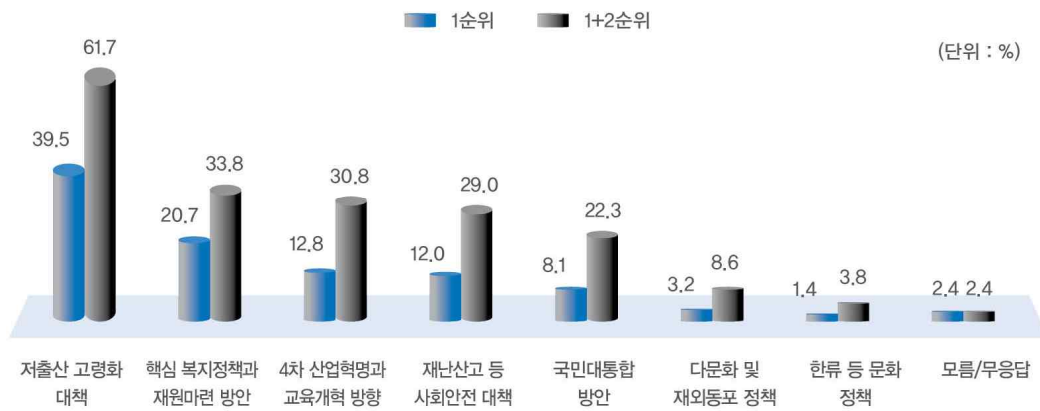
순위	토론의제	사례수(건)	비율(%)
1	복지 정책 및 재원 확보 방안	233	23.3
2	교육 정책	133	13.3
3	고령화 문제	29	2.9
4	공교육 정상화 방안	25	2.5
5	저출산 문제	22	2.2
6	소외계층 복지 문제	13	1.3
7	교육 개혁	10	1.0
7	보육 정책	10	1.0
9	경제 양극화 해소 방안	8	0.8
10	문화 육성 방안	7	0.7
11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입장	6	0.6
12	노인기초연금 문제	5	0.5
	미세먼지 문제	5	0.5
	인성 교육 강화	5	0.5
15	다문화 정책	4	0.4
	복지 사각지대 문제	4	0.4
	일자리 정책	4	0.4
	장애인 복지 정책	4	0.4
	탄핵 이후 통합 방안	4	0.4
20	무상급식	3	0.3
	서민을 위한 복지 정책	3	0.3
	입시 제도	3	0.3
	저출산 고령화 문제	3	0.3
	특목고 자사고 폐지	3	0.3
25	4대강 문제	2	0.2
	국정 교과서 문제	2	0.2

순위	토론의제	사례수(건)	비율(%)
25	노동자 근로 조건 개선	2	0.2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2	0.2
	비정규직문제해결	2	0.2
	의료복지 제도 개선	2	0.2
	지역 균형 발전	2	0.2
32	건강보험 고갈에 대한 대안	1	0.1
	건보료 부과 형평성 문제	1	0.1
	기본소득제	1	0.1
	농촌경제 활성화	1	0.1
	반값 등록금 문제	1	0.1
	사회 안전 대책	1	0.1
	삶의 질 개선	1	0.1
	언론 개혁	1	0.1
	언론 자율성 보장	1	0.1
	여성정책	1	0.1
	음주운전 처벌 강화	1	0.1
	적폐 청산	1	0.1
	전교조 문제	1	0.1
	제주 지역 중국인 유입 문제	1	0.1
	조세 형평성 문제	1	0.1
	치안 문제	1	0.1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1	0.1
	모름/무응답	423	42.3

사회분야 주제를 폐쇄형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39.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핵심 복지정책과 재원마련 방안’(20.7%), ‘4차 산업혁명과 교육개혁 방향’(12.8%), ‘재난사고 등 사회안전 대책’(12.0%), ‘국민대통합 방안’(8.1%), ‘다문화 및 재외동포 정책’(3.2%), ‘한류 등 문화 정책’(1.4%) 순이었다.

그리고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결과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61.7%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핵심 복지정책과 재원마련 방안’(33.8%), ‘4차 산업혁명과 교육개혁 방향’(30.8%), ‘재난사고 등 사회안전 대책’(29.0%), ‘국민대통합 방안’(22.3%), ‘다문화 및 재외동포 정책’(8.6%), ‘한류 등 문화 정책’(3.8%) 순이었다.

그림 3-11 사회 분야 논의 주제(폐쇄형 질문)



② 토론주제 선정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차수별 주제는 토론의제개발 연구 및 국민여론조사 결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문위원, 18개 단체·학회로부터 추천 받은 토론의제를 전문위원회(’17. 4. 11)와 준비소위원회의(’17. 4. 12.)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한 후 4월 14일(금) 제7차 위원회의에서 선정하였다.

후보자 상호간 정책검증토론으로 진행된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의 주제는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각 후보자의 경제분야 정책공약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기로 결정하였다. 초청대상 및 초청 외 후보자토론회의 토론주제 선정 현황은 <표 3-24> 과 같다.

표 3-24 후보자토론회 토론주제 선정 현황

구분 (토론분야)	토론주제		토론논점
초청 1차 (정치)	주제1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	- 미·중·일 외교정책 - 통일, 북핵 등 대북정책
	주제2	권력기관 및 정치 개혁 방안	- 검찰, 청와대, 국정원 등 - 선거제도, 개헌
초청 2차 (경제)	-	각 후보자의 경제 분야 주요 정책	
초청 3차 (사회)	주제1	복지·교육정책	<복지> 저출산·고령화 사회적 약자(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 정책의 지속가능성(재원 등) 연금·보험 의료·환경 등

구분 (토론분야)	토론주제		토론논점
			〈교육〉 공교육 정상화 방안 사교육 문제 학제개편 등
	주제2	국민통합 방안	국민과의 소통 인사편중 사회갈등 해소 국가 미래비전 등
초청외 (국정전반)	주제1	정치·외교 분야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 권력기관 및 정치 개혁 방안 등
	주제2	경제·사회 분야	경제 활성화 복지·교육 정책 등

(5) 초청대상 후보자 선정

① 여론조사 공표결과 수집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1호 다목에 따르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개최하는 후보자토론회의 초청대상 후보자 선정 시 「규칙」 제22조에 명시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³³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선거 기간 개시 30일전부터 선거기간 1일 전까지 실시하여 공표한 후보자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위의 언론기관들이 후보자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한 모든 예비후보자를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경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으로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불공정한 여론조사로 판정되어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관련여론조사를 고려할 수 없음을 안내하였다.

언론기관 여론조사 수집은 3월 18일(토)부터 4월 16일(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이 기간 중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 및 신문·방송 보도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공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 후보자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 총 70건 중 관련 법규 및 기준을 위반하였거나 법정 언론기관이 아닌 경우 등을 제외하고 19건의 여론조사 공표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표 3-25〉).

33 여기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란 공영방송사와 서울특별시 안에 소재하는 지역방송사업자를 말한다.

표 3-25 후보자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자료 수집결과

후보자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조원진	오영국	장성민	이재오	김선동	남재준	이경희	김정선	윤홍식	김민찬	대상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37.6	7.9	29.2	2.5	3.0	-	-	-	0.4	-	-	-	-	-	-	19건

※ 후보자의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 70건 중 ‘법정 언론기관 아님’등의 사유로 51건은 대상에서 제외됨.

② 초청대상 후보자 선정

4월 15일(토)부터 16일(일)까지 2일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친 15명 중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른 후보자토론회의 초청 대상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4월 17일(월)에 열린 제8차 위원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다.

표 3-26 후보자토론회 초청 후보자 선정

구 분	기호	정당명	후보자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에 해당하는 후보자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1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2	자유한국당	홍준표
	3	국민의당	안철수
	4	바른정당	유승민
	5	정의당	심상정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5항에 해당하는 후보자 초청의 후보자토론회	6	새누리당	조원진
	7	경제애국당	오영국
	8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9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10	민중연합당	김선동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5항에 해당하는 후보자 초청의 후보자토론회	11	통일한국당	남재준
	12	한국국민당	이경희
	13	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
	14	홍익당	윤홍식
	15	무소속	김민찬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에 따른 초청대상 후보자의 선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표 3-27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 현황

(2017. 4. 17. 현재 / 단위 : 석)

구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새누리당
의석수	119	93	40	33	6	1

-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표 3-28 정당별 직전선거의 득표율 현황

(단위 : %)

선거별 정당명	제18대 대통령선거 ('12. 12. 19.)	제6회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14. 6. 4.)	제6회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선거 ('14. 6. 4.)	제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16. 4. 13.)
더불어민주당	48.02 (민주통합당)	41.23 (새정치민주연합)	46.14 (새정치민주연합)	25.54
자유한국당	51.55 (새누리당)	48.47 (새누리당)	49.01 (새누리당)	33.50 (새누리당)
국민의당				26.74
정의당		3.61	1.15	7.23

- 언론기관의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 100분의 5 이상 후보자 : <표 3-25> ‘후보자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자료 수집결과’ 참조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에 따른 후보자토론회의 참석대상은 5명, 같은 법 제5항에 따른 토론회 참석대상은 10명이 선정되었으나, 기호 13번 김정선(한반도미래연합) 후보자가 토론회 개최 3일 전에 사퇴함에 따라 4월 24일(월) 초청의 후보자 토론회에는 총 9명의 후보자가 참석하였다.

(6) 설명회 개최

제8차 위원회의('17. 4. 17.)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초청대상 후보자가 확정된 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추가 공표³⁴”가 이루어짐에 따라 4월 19일(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실에서 후보자토론회의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설명회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초청대상과 초청외 후보자토론회를 구분하여 각각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개최하였다.

표 3-29 후보자토론회 설명회 개최 현황

구분	일자	시간	참석자		개최장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후보자측	
초청	2017. 4. 19.(토)	10:00	사무국장 방송토론팀장 토론지원팀장 대외협력팀장 직원 3명	대리인 7명	위원회의실
초청외		14:00		대리인 12명	

설명회는 안내자료에 따라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의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에 이어 방송토론팀장이 토론회 ‘개최 개요’, ‘토론 주제 및 논점 예시’, ‘토론 진행방식’, ‘후보자 자리(발언순서) 추천’, ‘후보자 당일 일정 및 진행’에 관해 설명을 한 후, 담당 직원이 토론회에서 사용될 토론시간관리시스템을 시연하였다.

이어서 토론회 개최 시 후보자의 자리 및 발언순서 등을 결정하기 위한 추천이 진행되었다. 추천은 토론회 차수별로 나누어 후보자의 기호 순서에 따라 추천순서를 추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후보자의 자리와 발언순서를 동시에 추천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 개최장소인 중계주관방송사에 마련된 후보자 대기실과 방송사 사옥 맞은편의 후보자별 지지자 선거운동구역은 토론회 차수별 자리 및 발언순서의 추천결과에 따라 결정되었다.

3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debates.go.kr>). ‘공지사향’ No. 506.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추가 공표” 참조.

표 3-30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자리(발언순서) 추첨 결과

후보자			자리(발언순서)		
기호	정당명	성명	제1차	제2차	제3차
1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D	A	A
2	자유한국당	홍준표	C	E	B
3	국민의당	안철수	B	D	E
4	바른정당	유승민	A	C	C
5	정의당	심상정	E	B	D

표 3-31 초청의 후보자토론회 자리(발언순서) 추첨 결과

기호	정당명	성명	자리 (발언순서)	기호	정당명	성명	자리 (발언순서)
6	새누리당	조원진	C	11	통일한국당	남재준	F
7	경제애국당	오영국	A	12	한국국민당	이경희	D
8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B	13	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	I
9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G	14	홍익당	윤홍식	J
10	민중연합당	김선동	E	15	무소속	김민찬	H

※ 기호 13번 후보자는 설명회 개최 후(4. 21.) 사퇴하여 토론회 불참.

2부에서는 대외협력팀장이 방송사 외곽 차량통제, 방송사 내부 출입카드 발급, KBS와 MBC의 토론회 개최 스튜디오, 보안검색대 운영 등 후보자토론회의 ‘안전관리’에 대해 안내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토론회장인 공영방송사 스튜디오 잔류인원 증원에 대한 요구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각 후보자의 경호요원 및 수행원 2명이 스튜디오 안에 남아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림 3-12 후보자토론회 설명회

• 초청대상



토론회 진행방식 등 안내



자리 및 발언순서 추천



자리 및 발언순서 추천

• 초청외



사무국장 인사말



자리 및 발언순서 추천



토론시간관리시스템 시연

(7) 질문사항 선정

제19대 대통령선거 초청대상 및 초청외 후보자토론회의 사회자 공통질문 선정은 사회자가 참여한 준비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각 토론회 개최 2일전에 비공개로 열린 위원회의에서 선정되었으며, 국민질문은 토론회 개최 당일 중계주관방송사에 마련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모니터실에서 소집된 위원회의에서 역시 비공개로 선정되었다. 단, 후보자 상호간 정책검증토론으로 결정된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의 진행방식에는 사회자 공통질문이 포함되지 않았던 바, 별도의 위원회의는 개최되지 않았다.

표 3-32 후보자토론회 질문사항 검토 및 선정 절차

구분	개최일시·장소	처리 안건 등
준비소위원회의	'17. 4. 18.(화) 09:00 위원회의실	초청 1차·초청외 후보자토론회 질문사항 검토
제9차 위원회의	'17. 4. 21.(금) 16:00	초청 1차·초청외 후보자토론회 질문사항 선정

구분	개최일시·장소	처리 안건 등
	위원회의실	
제10차 위원회의	'17. 4. 23.(일) 18:30 KBS 본관 위원 모니터실	초청 1차후보자토론회 국민질문 선정
준비소위원회의	'17. 4. 29.(토) 16:00 위원회의실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 질문사항 검토
제13차 위원회의	'17. 4. 30.(일) 16:00 위원회의실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 질문사항 선정
제14차 위원회의	'17. 5. 2.(화) 18:30 MBC 본사 위원 모니터실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 국민질문 선정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의 주제1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과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의 주제2 “국민통합 방안”에는 사회자 공통질문 대신 국민질문을 도입하였다. 국민질문은 해당 토론회 당일 주관중계방송사에 마련된 위원 모니터실에서 오후 6시 30분에 선정되어 생방송 시작 직전에 밀봉된 채로 사회자에게 전달되었다.

국민질문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공개 모집한 질문 중에서 시의성 및 각 후보자의 입장이 상반된 사안 등을 중심으로 3~4개의 후보군을 선별한 후 토론회 당일 위원회의의 결사항으로 최종 선정한 것이다.

사회자 공통질문은 사회자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에서 각각 작성한 질문사항을 준비소위원회의에서 교차 검토한 후 전체위원회의에서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회자 공통질문은 그 요지를 5명의 후보자들에게 사전에 통지하였다.

표 3-33 후보자토론회 질문요지 등 선정 현황

구분 (토론분야)	주제	질문요지	비고
초청1차 (정치)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	북핵위기 주도적 타개 대책	국민질문 : 김정민 (인천시 남동구) 외 1 인
	권력기관 및 정치 개혁 방안	현행 헌법 하의 대통령 권력에 대한 평가와 집권 후 검찰, 청와대, 국정원 등 개혁을 위한 우선 조치사항	사회자 공통질문

구분 (토론분야)	주제	질문요지	비고
초청3차 (사회)	복지·교육정책	복지·교육 관련 공약 중 가장 우선적인 공약과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이 뚜렷한 정책공약	사회자 공통질문
	국민통합 방안	국민과 소통을 위한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방안	국민질문 : 민병주 (대구시달서구)
초청외 (국정전반)	정치·외교 분야	안보와 대북·외교정책, 권력기관 개혁 및 권력구조 개편 등 정치·외교 분야 정책의 방향	사회자 공통질문
	경제·사회 분야	경제활성화, 일자리 및 복지·교육 정책의 구체적 추진방안	사회자 공통질문

(8) 토론회 개최 홍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토론회 관련 보도에 대한 대언론 활동을 전개하고, 다양한 매체와 다채로운 방식의 홍보를 통해 유권자의 토론회 시청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언론사 관계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협의체 등과 협업을 통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위해 노력하였다.

단위별 추진사항으로 공보 분야에서는 언론 취재 및 보도 응대, 언론 오보 및 왜곡보도 대응, 소통·협력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홍보·미디어 분야에서는 언론매체, 인쇄·시설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단위업무별로 살펴보면, 후보자토론회 관련 보도자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의 협조로 주요 일간지 등에 7회 배포하였고, 17개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통해 지역 언론사 등에도 제공하였다.

표 3-34 보도자료 제공 내역

연번	제공일자	제목	비고
1	2017. 3. 17.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4회 개최	
2	2017. 3. 23.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 국민질문 공모	
3	2017. 4. 7.	후보자토론회 '시간총량제 자유토론' 방식 결정	
4	2017. 4. 14.	제19대 대선 후보자토론회 토론주제 결정	
5	2017. 4. 21.	제19대 대통령선거, 1차 후보자토론회 개최	
6	2017. 4. 27.	제19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토론회 개최	
7	2017. 5. 1.	제19대 대통령선거, 마지막 후보자토론회 개최	

전체적으로는 지상과 방송 8회, 종편 등 19회, 신문 130회, 인터넷 신문 109회 총 266회가 보도되었으며, 서울과 경기 지역의 중앙지 신문 5회, 인터넷 신문 2회 등 총 7회의 인터뷰에 응하여 총 11회 보도되었다.

표 3-35 후보자토론회 관련 인터뷰 보도 내역

매체명	보도일자	면	제목
매일경제	2017. 2. 23.	A5	후보들 '원고보며 어물쩍' 토론…美처럼 타운홀미팅 도입을
중앙일보	2017. 3. 28.	-	시나리오 없는 진짜 '설전'…선관위, '스탠딩토론' 도입 검토
중앙일보	2017. 3. 29.	10	대선 앵무새 토론 NO … 주제집중 토론 추진
헤럴드경제	2017. 3. 28.	-	[TV토론 이번엔 제대로] 앵무새처럼 원고만 반복…'학예회 토론' 바뀌야
헤럴드경제	2017. 3. 28.	-	[단독] 선관위, 이번 대선 스탠딩 토론 도입 검토
헤럴드경제	2017. 3. 28.	-	미국처럼…대선 스탠딩 TV토론 가시화
헤럴드경제	2017. 3. 28.	-	준비된 원고만 읽고 또 읽는 '앵무새 TV토론' 언제까지?
서울경제	2017. 3. 28.	-	대선후보 TV토론 확 바뀐다
미디어오늘	2017. 3. 29.	-	'대본토론회' 사라지나… 선관위 스탠딩 토론 검토
포커스뉴스	2017. 3. 30.	-	선관위, 대선 '스탠딩 토론회' 검토 중…대선주자들 원고없는 '진검승부'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	2017. 3. 30.	-	[선택 2017] 대선 토론회 스탠딩 방식 도입 답될까

특히,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및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이 지역신문에 총 6회의 관련 기사를 기고하였다.

표 3-36 후보자토론회 관련 기고 내역

매체명	기고일자	기고자	제목
한산신문	2017. 4. 21.	박수정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노력
인천뉴스	2017. 4. 24	구병모 인천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대통령선거의 관전 포인트 TV토론회
경북일보	2017. 4. 26.	김연기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대한민국의 열정을 보여주세요
김해뉴스	2017. 4. 26.	남종탁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투표로 당신의 생각을 말하세요
인천뉴스	2017. 4. 28.	김서진 인천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	후보자 TV토론회 바로보기
경기일보	2017. 5. 1.	이현정 경기광명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19대 대통령 선거에 바라는 것 몇가지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학생 명예기자단의 취재 지원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소개 및 후보자토론회의 진행 과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블로그³⁵에 총 2회 게시되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협의체 회의를 계기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홍보 계획”을 적시에 제공하고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캐릭터 ‘자두’ 이미지 (2종 8개)를 제작하여 공식 페이스북 등에 적극 활용하였다.

그림 3-13 후보자토론회 홍보용 이미지



온라인(On-line) 공간에서도 활발한 홍보활동이 이루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특집 홈페이지에 ‘후보자토론회’ 링크 메뉴를 개설하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토론회 개최일정 등 토론회 관련 정보를 안내, 토론회 다시보기 서비스 배너(Banner) 게시, 후보자토론회 시청 인증샷 기획행사를 실시하는 한편, 자체 공식 ‘페이스북’(Facebook)을 개설하여 기획행사 4회, 카드뉴스 12회, 토론회 정보제공 6회, 일반 정보 14회에 이르기까지 총 36회의 다채로운 시각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림 3-14 후보자토론회 실시간 중계

35 <http://bolg.n.ec.go.kr/130183701730>

또한 네이버(NAVER) 대선 특집페이지에 ‘국민질문 공모’의 배너를 게시하였으며, 후보자 토론회 실시간 중계(네이버·다음, oksusu, NEC-TV) 및 다시보기 서비스(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네이버)를 제공하였다.

또한, 한국선거방송(eTV)을 통해 후보자토론회 방송일정 등을 여러 차례 안내하였으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외벽에 설치한 후보자토론회 일정 안내를 비롯하여 17개 시도 거점지역의 거리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한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소개 리플릿(Leaflet)과 배경막(Roll-up banner)을 제작하여 홍보에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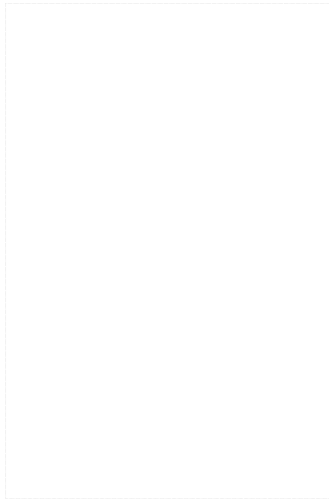
그림 3-15 후보자토론회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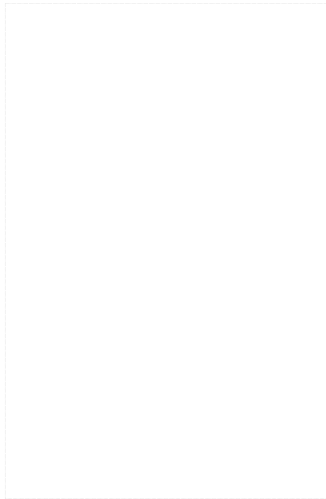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외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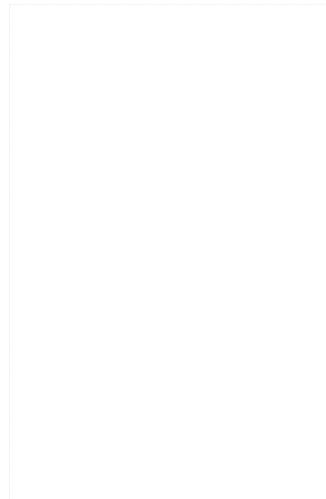
후보자토론회 개최일정 안내 현수막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소개 리플릿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소개 리플릿

그 밖에 KBS는 자사 본관 스튜디오에서 개최된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를 공식 페이스북(<https://ko-kr.facebook.com/KBSPR>)을 통해 생중계하였는데, 토론회 생방송 직전과 직후에 5명의 후보자들과의 ‘사전대담’ 및 ‘토론 뒤 소감 한마디’ 등으로 구성된 후보자토론회 특집 연계프로그램(“선관위 주최 후보 토론회 같이 볼까?”)을 생방송으로 진행하였다.

그림 3-16 초청 1차후보자토론회 KBS 특집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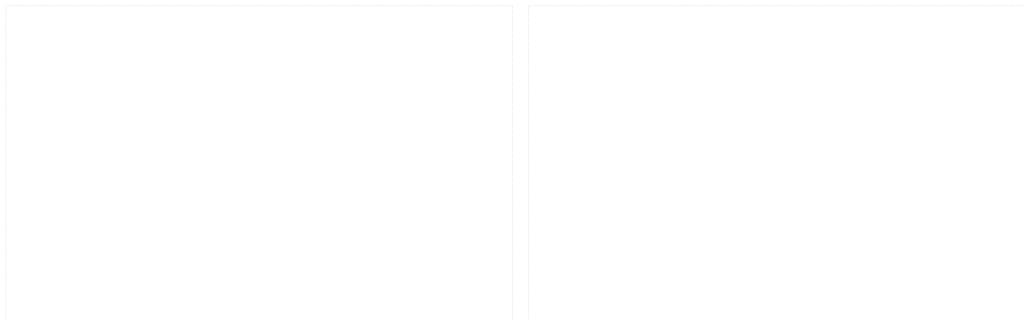
※ 사진출처 : KBS디지털뉴스부 제공 자료영상 캡처

(9) 토론회장 설비 및 안전관리

① 토론회장 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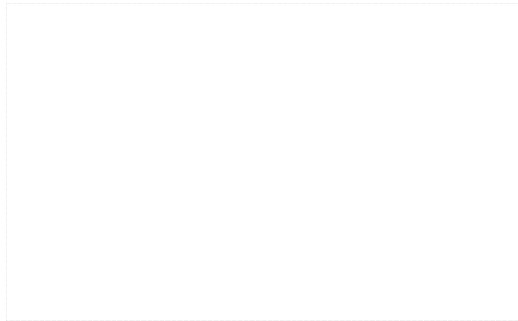
토론회장 세트설비에 있어서는 역동적인 토론이 가능하도록 각 후보자의 연단 사이의 간격을 좁혔으며, 화려한 색상과 복잡한 구조를 지양하여 후보자들이 토론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후보자들이 연단 뒤에 선 채로 진행되는 완전시간총량제 자유토론 방식을 적용한 초청 1·3차 후보자토론회를 위해서는 연단을, 좌식으로 진행되는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와 초청외 후보자토론회를 위해서는 탁자와 의자를 설치하였다.

그림 3-17 후보자토론회 개최 스튜디오 설비 현황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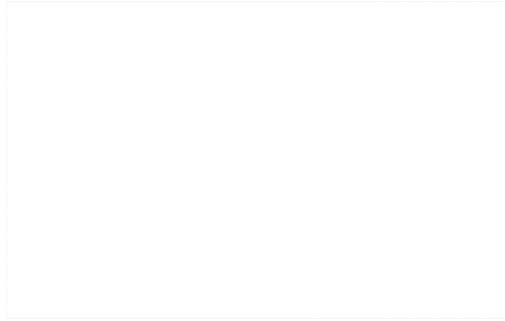


초청 1차 후보자 연단 (KBS 본관 TS-4 스튜디오)

초청 2차 후보자 좌석 (MBC 상암 C스튜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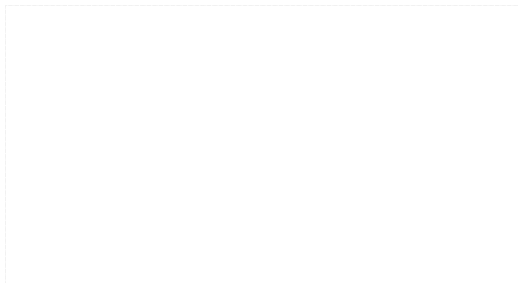
초청 3차 후보자 연단 (MBC 상암 C스튜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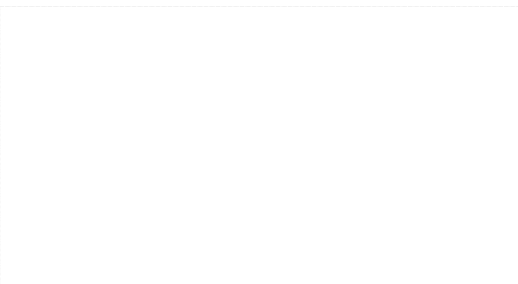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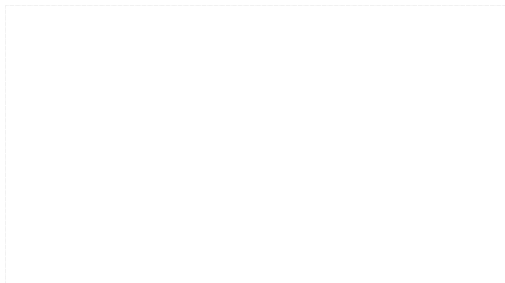
초청외 후보자 좌석 (KBS 본관 TS-4스튜디오)

초청 1차와 초청외 후보자토론회에서 후보자 배경은 군청색의 커튼을 사용하여 시각적 안정감을 주었고, 세트 우측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슬로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표출하는 구조물과 세트 중앙에 원형 LED화면을 설치하였다. 특히,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에서는 후보자 뒤에 소속 정당의 상징색 LED 기둥을 2개씩 설치하였으며, 초청외 후보자토론회에서는 스튜디오 천장에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슬로건 “열린토론 바른선택”을 표출하는 LED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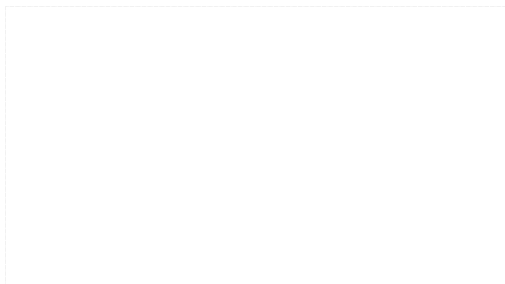
그림 3-18 후보자토론회 개최 스튜디오 설비 현황 (2)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구조물 초청1차 (KBS 본관 TS-4 스튜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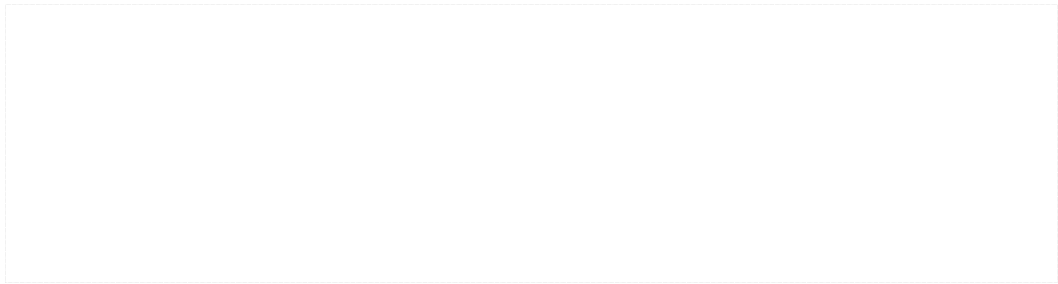
바닥 LED화면 초청 1차 (KBS 본관 TS-4 스튜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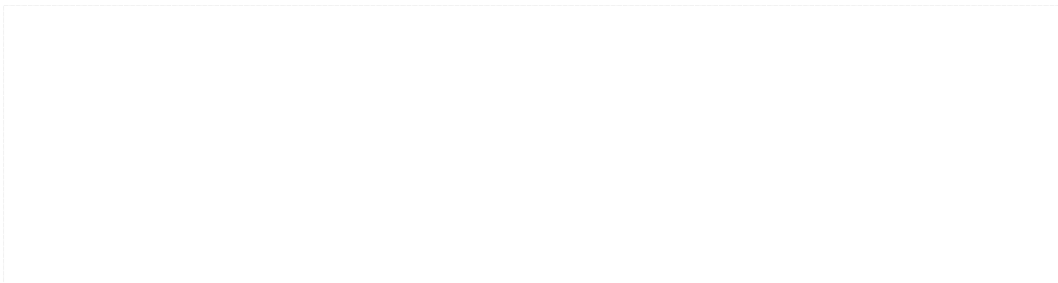
‘열린토론 바른선택’ 천정 구조물 초청외 (KBS 본관 TS-4 스튜디오)

MBC 상암 스튜디오에서 개최된 초청 2·3차 후보자토론회는 후보자 뒤에 LED판을 설치하여 토론회 진행 중 후보자 사진, 소속 정당명 등이 번갈아가며 표출되도록 하여 시각 효과와 흥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스튜디오 천장에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표출하는 모니터를 설치하였다. 세트 중앙에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와 ‘열린토론 바른선택’ 그리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기관명 및 로고를 조화롭게 디자인한 원형판을 바닥에 부착하였다.

그림 3-19 후보자토론회 토론회장 구조물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천정 구조물 초청 2차 (MBC 상암 C스튜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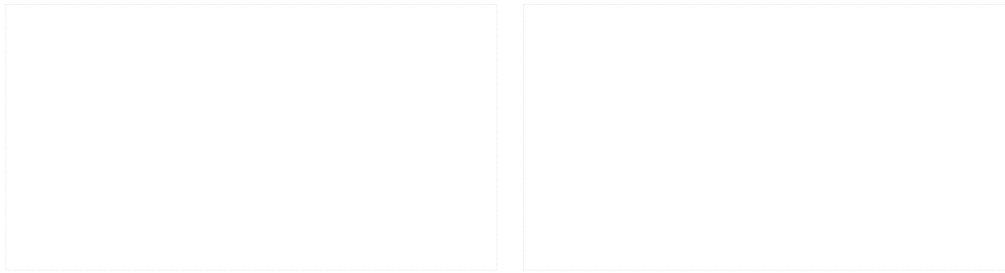


사회자 배경 초청 2·3차 (MBC 상암 C스튜디오)

토론회마다 후보자와 사회자 전담 카메라를 1대씩 설치하고, 지미집(Jimmy jib) 크레인카메라로 토론회장 전경을 다양한 각도에서 텔레비전 화면에 표출하여 화면구성의 역동성을 제고하였다. 다만, 초청의 후보자토론회의 경우 참석 후보자가 9명이나 되었고, 1인 1대의 방송용 카메라를 사용하기에는 스튜디오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1대의 카메라가 후보자 2명씩을 전담하였다.

각 후보자의 맞은편에는 1회 발언시간 및 잔여총량시간이 표출되는 별도의 모니터를 설치하여 후보자 스스로 자신의 발언시간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스튜디오의 별도 공간에 토론시간관리시스템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세트를 각각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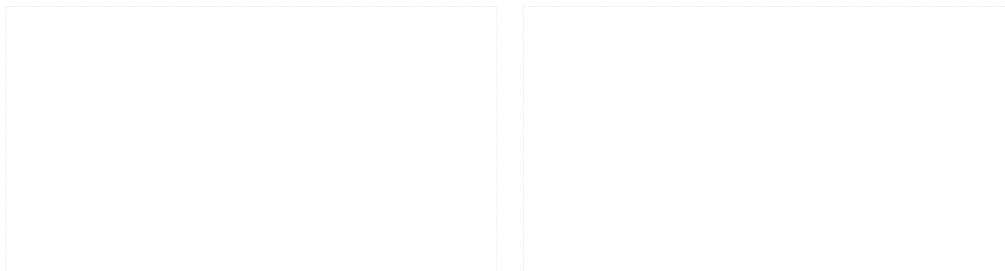
그림 3-20 토론시간관리시스템



토론시간관리시스템 초청2차
(MBC 상암 C스튜디오)

후보자별 발언시간관리 모니터
초청외 (KBS 본관 TS-4 스튜디오)

그림 3-21 수어통역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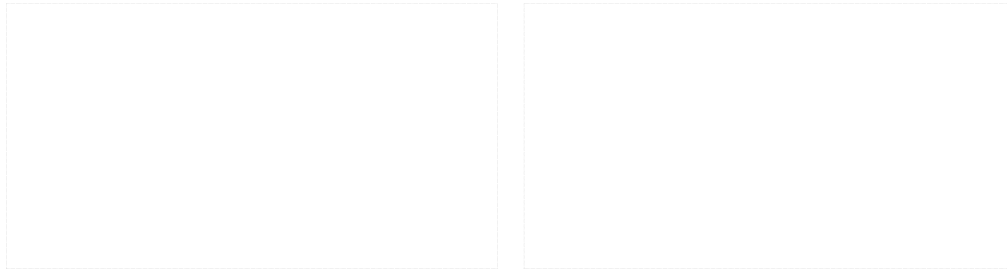


초청 1차-초청외 (KBS 본관 TS-4 스튜디오)

초청 2·3차 (MBC 상암 C스튜디오)

또한, 토론회장인 KBS와 MBC 스튜디오 부근에 후보자 대기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모니터실 등 부대시설을 완비하였으며, 방송사에서 분장을 원하는 후보자들에게는 방송사 소속 분장사가 후보자 대기실을 방문하여 분장하도록 하였다. 언론사 기자들을 위해서는 대형 TV모니터와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기자석을 KBS와 MBC 1층 로비에 설치하였다. 특히,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 당일 국민질문 선정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 제10차 위원회의 개최를 위해 토론회장과 다른 층에 별도의 회의장소를 확보하였다.

그림 3-22 기자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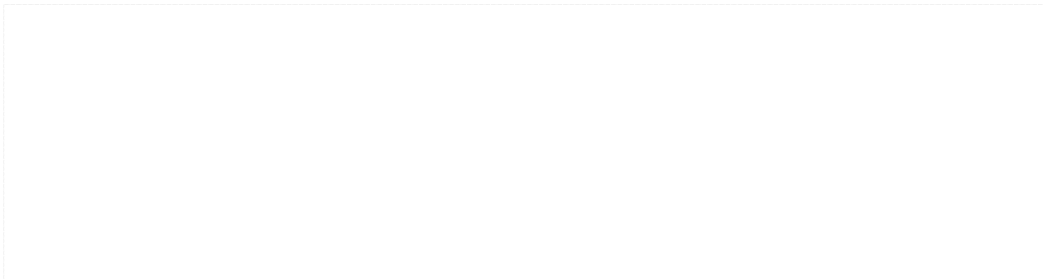
초청 1차 (KBS 본관 TS-4 스튜디오)

초청 2차 (MBC 상암 C스튜디오)

② 안전관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토론회의 완벽한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별로 핫라인을 구축하고 토론회장인 스튜디오 내·외부의 사전 점검을 엄격하게 실시하였다. 또한, 각 중계주관방송사 주변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을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였다. 특히, 정당 관계자 및 후보자, 언론사, 토론회 관계자 등에게 등록신청을 받아 방송사 출입카드의 발급과 차량출입비표 발급 등 출입통제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하였다. 특히, 각 후보자측에 토론회의 개최 및 진행과 관련하여 협조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였다.

그림 3-23 토론회장 출입통제



초청 2·3차 (MBC 상암 C스튜디오)

(10) 토론회 진행

후보자토론회 생방송은 토론회 진행표와 대본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방송화면은 중계주관 방송사(KBS·MBC) 관계자와의 방송제작 실무회의를 거쳐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구성하였다.³⁶ 4월 23일(일) 개최된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와 유사한 토론방식(주제별 시간총량제

자유토론)으로 진행된 4월 19일 ‘KBS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주제의 범위를 벗어난 토론, 후보자간 감정 다툼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사회자의 개입 시점과 범위 및 토론방식 안내 등 사회자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 대비하였다.

개별 후보자의 경제정책 발표 후 1:1자유토론으로 진행된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와 관련하여 각 후보자의 정책 발표 시 프레젠테이션 사용 여부 및 USB 등 보조수단의 허용 등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토론회 개최에 임박하여 결정할 경우 후보자간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 하에, 정책발표는 후보자들이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관별을 사용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1회 발언은 가급적 2분 안에 이루어지도록 설명회와 당일 리허설에서 상세하게 안내하였고, 주제 전환 시 후보자들이 자신의 잔여발언시간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등 후보자들이 발언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또한, 토론 내용이 주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사회자가 개입하여 주제를 주지시키는 등 정책중심의 토론을 유도하였다.

또한 청각장애인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어통역 및 자막방송을 실시하였다.³⁷ 이와 관련해서는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 이후 청각장애인 시민단체로부터 수어통역화면의 확대와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 배치 등의 민원이 있었다. 이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부터 수어통역화면의 크기 확대, 후보자별 자막색상 구별 등 중계주관 방송사의 여건에서 단기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시민단체의 요구를 반영하였다.³⁸

①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

4월 23일 일요일 밤 8시부터 KBS 본관 TS-4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개최된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에서는 주제와 무관한 상호공방 및 과도한 감정적 네거티브로 인해 공직선거법이 지향하는 후보자토론회의 개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회 생방송 종료 직후인 밤 10시 향후 대책에 관한 전체 위원회의를 소집하여, 앞으로 남은 4월 28일(금)의 초청 2차 및 5월 2일(화)의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

36 토론회 방송화면의 최종 구성은 중계주관방송사에서 결정한다.

37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제12항은“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8 본 백서 제4장 ‘4. 주요 민원사례’ 194쪽 참조

에서는 공직선거법의 가치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위한 정책중심의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각 후보자측에 강력하게 요청하기로 결정하고, 4월 25일(화) 공문을 발송하였다.

후보자간 자유토론은 반론·재반론이 오가며 비교적 균형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한 차례의 질문도 받지 못한 후보자도 있었다. 따라서 주제가 전화되는 시점에서 후보자별 잔여시간에 커다란 편차가 있었다.³⁹ 사드 및 대북정책, 북핵 해법, 국방개혁 등의 논점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진 첫 번째 주제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은 각 후보자에게 주어질 18분의 발언시간 중 후보자에 따라서는 최대 15분에 근접한 시점까지 진행되어, “권력기관 및 정치개혁 방안”을 다루는 주제 2에서는 후보자별로 잔여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심층적인 토론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편, 토론회 초반에 특정 후보자와는 토론을 하지 않겠다는 예측하지 못한 발언이 나와 긴장감이 감돌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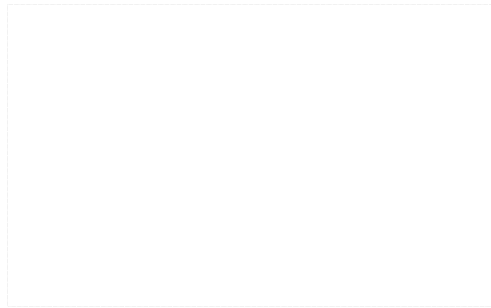


그림 3-24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

②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

4월 28일 금요일 밤 8시부터 MBC 본사 C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개최된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에서는 경제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각 후보자들의 경제 정책 및 공약을 중심으로 ‘성장 vs. 분배’, ‘기업 투자 및 규제’, ‘4차 산업혁명’, ‘복지 및 증세’, ‘일자리 공약’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 비용 발언을 중심으로 후보자간 장시간의 공방이 있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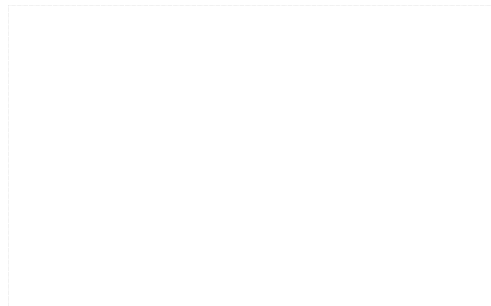


그림 3-25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

39 토론회가 1시간 7분 경과한 시점에서 사회자가 고지한 후보자별 잔여발언시간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 5' 18", 홍준표 10' 11", 안철수 8' 33", 유승민 3' 32", 심상정 5' 31".

3분의 정책발표에 이은 후보자간 1:1 자유토론(후보자당 2분 총량) 과정에서는 주어진 발언시간을 약 5초 정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일부 후보자는 사회자의 제지가 없음을 항의하였고, 또한 토론 중에 사회자가 개입하여 발언시간 준수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에서 특정 후보자와는 토론을 하지 않겠다는 일부 후보자의 발언과 관련하여, 4월 26일(수) 향후 후보자토론회 진행 관련 검토를 위한 긴급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위원회의에서는 초청 2차 토론회에서 정책중심의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이 진지하게 검토되었으며, 생방송 도중 돌발 상황에 따른 예시문안을 대본에 추가하여 사회자가 즉각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③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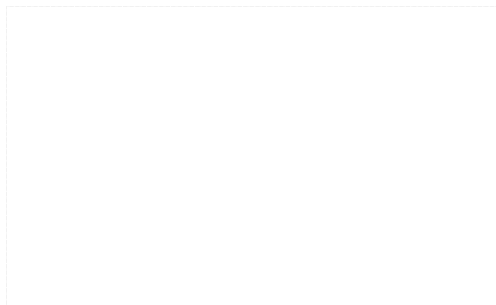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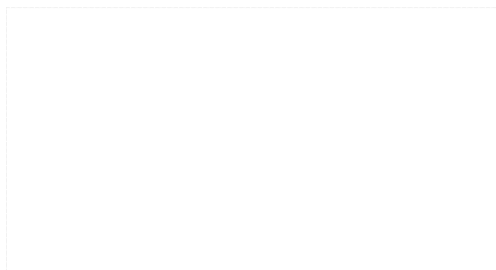


그림 3-26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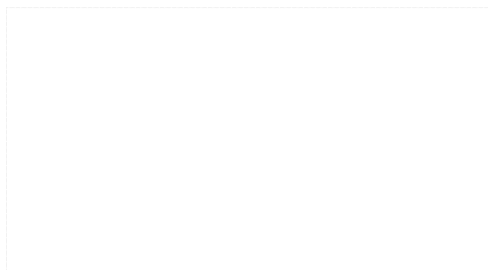
5월 2일(화) 밤 8시부터 MBC 본사 C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개최된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는 사회분야의 정책을 중심으로 학제개편, 단설유치원, 반값 등록금 등 교육 정책과 4대강 사업 등 환경문제, 강성노조, 여가부패지, 사드배치 비용분담 그리고 복지 재원 등 사회복지 문제까지 정책중심의 다각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개최한 이 토론회에서는 사회자 공통질문과 국민질문, 주제전환 시점에 후보자별 잔여시간 표출 등을 위해 5분할 화면을 활용하였다.

그림 3-27 초청 3차후보자토론회 5분할 방송화면



주제 전환 시 잔여발언시간 화면표출



국민질문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후보자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지 못한 후보자가 있었으며, 자신의 발언시간을 아껴서 토론회 마무리 시점에 2분 정도 국민들에 대해 자신의 소회를 밝히는 후보자 등 후보자별로 발언시간을 심사숙고하여 관리하는 장면도 볼 수 있었다.

특히,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에서는 “복지·교육 정책”을 다루는 첫 번째 주제의 논점이 많아 2개의 주제에 대해 토론시간을 동일하게 나누지 않고 토론의 흐름을 고려하되, 국민질문이 포함된 두 번째 주제 “국민통합 방안”의 토론시간을 고려하여 1시간 10분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범위를 정해놓고 운영하였다.

④ 초청의 후보자토론회

초청의 후보자토론회는 4월 24일(월) 밤 11시부터 25일(화) 새벽 1시까지 2시간 동안 KBS 본관 TS-4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개최되었다. 9명의 후보자들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와는 달리 ‘기조연설’을 포함하여 완전시간총량제 자유토론으로 운영하였다.

1회 발언을 가급적 2분 이내로 하여줄 것을 사전 설명회와 당일 리허설을 통해 안내하였음에도 ‘기조연설’에만 총 9분의 발언시간에서 3~4분 정도를 할애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유토론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간에 상호 반론·재반론이 오가기도 하였고, 후보자 본인의 정치철학이나 정책 공약을 위해 시간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9명이라는 많은 후보자가 참석하는 관계로 발언시간이 부족하거나, 토론회 분위기가 산만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는 달리, 초청의 후보자토론회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⑤ 수어통역방송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수어(手語)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청각장애 유권자들의 선거권 행사와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생중계 시 자막방송과 수어통역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중계주관방송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토론회의 시청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였는데,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17. 4. 28.)와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17. 5. 2.)의 경우 수어통역사의 표출화면을 기존의 타원형에서 사각형으로 조정하여 크기를 일부 확대하였으며, 수어통역 시 발언하는 후보자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의 자막방송과 관련해서는, 후보자들이 발언할 때마다 후보자

별 지칭어의 색상을 자막에서 달리 표출하여 청각장애 유권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토론회 당일 본방송을 시청하지 못한 청각장애인 유권자들을 위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의 ‘토론회 다시보기’에 토론회 전문 자막을 함께 제공하였다.

그림 3-28 후보자토론회 수어통역방송 개선



그림 3-29 후보자토론회 수어통역방송 자막



※ 화자 전환 시 자막색상에 변화를 주고, 후보자별 지칭어 표시 병행

궁극적으로 청각장애 유권자들을 위한 선거방송토론의 수어통역은 중장기 계획을 통해 법적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선거방송토론의 생중계 시 청각장애 유권자들을 위한 별도의 수어통역방송 채널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구미의 몇몇 사례들은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⁴⁰

(11) 시청률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Nielsen Korea)의 집계결과에 따르면 지상파 3사(KBS·MBC·SBS)를 비롯한 7개 채널에서 전국에 동시 생중계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의 전국 기준 평균 시청률은 35.2%로 나타났다. 특히, 4월 23일 일요일 밤 8시부터 2시간 동안 황금시간대에 생방송으로 진행된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는 38.5%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다. 또한, 4월 8일(금)에 있었던 초청 2차 토론회는 31.2%, 그리고 대선 1주일 전인 5월 2일(화)에 마지막으로 열린 초청 3차 토론회는 36%의 시청률을 보였다. 반면, 4월 24일 월요일 밤 11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2시간 동안 9명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개최된 초청외 후보자토론회의 시청률은 5.5%에 머물렀다.

표 3-37 후보자토론회 시청률 현황

(단위 : %)

구분	AGB닐슨(전국)										합계
	KBS	MBC	SBS	소계	MBN	TV 조선	JTBC	YTN	연합뉴스 TV	소계	
초청 1차	11.3	6.2	9.4	26.9	4.3	2.9	-	1.7	2.7	11.6	38.5
초청 2차	10.8	5.2	6.6	22.6	3.5	2.1	-	1.6	1.4	8.6	31.2
초청 3차	10.9	5.4	6.8	23.1	3.5	1.3	5.0	1.8	1.3	12.9	36.0
초청외	3.8	1.7	-	5.5	-	-	-	-	-	-	5.5

40 예컨대 2016년 미국 대선의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비영리 수어방송채널 DPAN(The Deaf Professional Artists Network) TV는 힐러리 클린턴(민주당)과 도널드 트럼프(공화당)의 양자 TV토론을 사회자를 포함하여 3명의 수어통역사를 투입하여 수어방송을 실시하였고, 2017년 독일 총선을 3주 앞두고 9월 3일(일) 20:15~22:00까지 생방송으로 개최된 기민당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시민당의 마르틴 슈츠 총리후보자간의 TV토론에서 공영방송사 Phoenix은 수어통역사 2명을 투입하여 별도의 수어방송을 실시하였으며, 9월 5일 20:15~21:30까지 개최된 군소 5개 정당 TV토론도 독일 제1공영방송(ARD)에서 실시간 수어방송을 별도로 제공하였다.

이번 대선에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이외에 언론기관이 관련학회 등과 공동으로 주최한 주요 대선 후보자 TV토론이 3회 개최되어 총 6회의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가 높은 국민적 관심 속에 종료되었다.

그 중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는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으며,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의 시청률도 언론기관에서 주관한 토론회보다 높았다.⁴¹ 이러한 결과는 후보자토론회의 시청 접근성 제고를 위해 다수의 방송사가 수중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성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앞서 언급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의 평균 시청률(38.5%)은 지난 제18대 대선 후보자토론회의 평균 시청률(40.97%)에는 미치지 못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2012년의 경우 언론기관이 주관한 후보자토론회가 한 차례도 성사되지 못한 관계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가 후보자들을 한자리에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던 것이 주된 이유의 하나로 분석된다.

표 3-38 역대 대선 후보자토론회 시청률 현황

(단위 : %)

구분	초청 1차	초청 2차	초청 3차	초청외	비고 (중계현황)
15대 (1997)	55.1	59.6	43.7	28.7	지상파 3사
16대 (2002)	38.5	36.7	36.4	8.3	지상파 3사
17대 (2007)	27.0	23.5	21.5	5.6	KBS, MBC
18대 (2012)	42.6	44.4	35.9	6.8	지상파 3사 및 종편 등
19대 (2017)	38.5	31.2	36.0	5.5	지상파 3사 및 종편 등

이러한 관점에서 인터넷상에서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경우까지 고려할 때 실제 시청률은 공식 집계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대선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시청 행태에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는 특징적 현상은 시청 매체의 다양화이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구용역 결과보고서(2017)에 따르면 후보자토론회의 시청 매체로서 텔레비전은 여전히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와 포털사이트(Portal site) 등 '신매

41 닐슨코리아가 집계한 언론기관 주관 주요 대선후보자 토론회의 전국 기준 시청률은 다음과 같다. 4월 13일 SBS(한국기자협회 공동 주최)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자 초청 토론” 1·2부 합 22.4%, 4월 19일 KBS1 “대선후보 KBS초청토론” 26.4%, 4월 25일 JTBC(중앙일보, 한국정치학회 공동 주최) 1·2부 합 31.44%(유료방송가 기준).

체'(New media)를 통해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유권자의 비율도 간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⁴²

특히 19세와 20대 유권자들에게 두드러지게 관찰되는 이러한 현상은 후보자토론회의 시청 행태가 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에 따라 일방적 시청이라는 전통적 수동적 유형에서 쌍방향적 소통을 통한 참여적 능동적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무엇보다 다양화된 매체환경은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하겠다.”⁴³

42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효과 분석의 일환으로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7년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6일간 실시된 사후조사에서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했다고 응답한 유권자 968명 중 대다수인 82.4%가 텔레비전을 통해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시청한 유권자도 16%나 되었으며, 이들 중 19세와 20대 유권자들의 44%는 포털사이트 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실시간 방송을 통해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연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017. 22-23쪽.

43 위의 책. 23쪽.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평가 및 기록

1) 국민모니터단 운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 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유권자들의 평가를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모니터단을 운영하였다.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당원을 제외한 만 19세 이상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여 2017년 3월 22일(수)부터 4월 7일(금)까지 자체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모니터단을 공개 모집하였다. 총 252명의 지원자 중 서류심사 및 전화인터뷰를 거쳐 50명을 선발하였으나, 여성 선발자 1명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여 국민모니터단은 최종 49명(남성 26명, 여성 23명)으로 운영되었다.

표 4-1 국민모니터단 구성 현황

• 연령별

(단위 : 건)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전체	11 (22.4%)	4 (8.2%)	15 (30.6%)	9 (18.4%)	10 (20.4%)	49 (100%)
남	7 (26.9%)	1 (3.9%)	8 (30.8%)	3 (11.5%)	7 (26.9%)	26 (100%)
여	4 (17.4%)	3 (13.0%)	7 (30.5%)	6 (26.1%)	3 (13.0%)	23 (100%)

• 지역별

(단위 : 건)

구분	수도권	중부권	전라·제주권	경상권	계
전체	23 (47.0%)	6 (12.2%)	6 (12.2%)	14 (28.6%)	49 (100%)
남	12	3	3	8	26

구분	수도권	중부권	전라·제주권	경상권	계
	(46.2%)	(11.5%)	(11.5%)	(30.8%)	(100%)
여	11 (47.9%)	3 (13.0%)	3 (13.0%)	6 (26.1%)	23 (100%)

선발된 국민모니터단에 주어진 역할은 4월 23일(일)과 28일(금) 그리고 5월 2일(화)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여 개최한 초청1·2·3차 후보자토론회 생방송(20:00~22:00)을 시청한 후 2일 이내에 토론회 평가표와 설문지(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공)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debates@nec.go.kr)에 제출하는 것이었다. 특히, 마지막 초청3차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에는 평가표와 설문지 이외에 3회 시청에 대한 전체적인 개인 소감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⁴⁴ 이와 관련하여 4월 14·15일 2일에 걸쳐 참가자 전원에게 『TV토론 모니터링 매뉴얼』 등 교육 자료를 우편 및 전자 우편으로 보내어 토론회 시청 및 평가 방법 등을 안내하였다. 국민과 함께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지향하며 공개 모집한 국민모니터단은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가 개최된 4월 23일(일)부터 5월 9일(화)까지 운영되었다.

(1) 국민모니터단 평가 주요 결과⁴⁵

① 토론주제 및 질문사항 평가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

- 주제 선정 :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과 “권력기관 및 정치개혁 방안”은 한반도가 처한 요즈음의 위기 상황과 높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대체로 시의적절한 주제였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포함한 주제 선정으로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음.

44 제출된 소감문 중 우수 소감문 작성자 5명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였다.

45 이 내용은 국민모니터단 참가자들이 제출한 평가서와 설문지를 바탕으로 가장 빈번한 공통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 국민인터뷰 및 국민질문 : 토론회 생방송 시작 부분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들이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을 말하는 ‘국민인터뷰’ 영상은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으려는 노력이 엿보여 긍정적이었음.
- 국민질문을 공개 모집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반영된 질문을 선정한 것은 토론회의 흥미를 유발하고 토론회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음.
- 국민질문을 밀봉하여 생방송으로 진행된 토론회의 도입부에서 개봉한 점은 토론회의 신뢰도를 높인 반면, 보다 다양한 국민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생각을 듣지 못한 점은 아쉬웠음.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

- 주제 선정 : 토론분야가 ‘경제’였음에도 갑자기 튀어나온 사드배치 비용부담 문제는 현재 이슈를 언급했다는 점에서는 나쁘지 않았지만, 주제에서 벗어나 경제정책에 대한 토론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았음.
- 국민들의 관심은 대부분 거시경제보다는 미시적인 일상생활의 세부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 사회자가 몇 가지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후보자들의 답을 들어보는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음.
- 국민인터뷰 및 국민질문 : 본격적인 자유토론에 앞서 초청2차 후보자토론회의 쟁점 사항인 ‘경제’ 관련 국민인터뷰를 먼저 보여준 것은 전반적으로 신선하고 좋았지만, “경제가 잘 되면 좋겠다” 또는 “취업 했으면 좋겠다”와 같이 원론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었던 점은 아쉬웠음.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

- 주제 선정 : 대통령 탄핵 이후 사회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통합이 토론회의 주제로 다루어진 것은 매우 적절하였음.
- 사회분야 토론에는 복지, 교육, 비정규직 문제, 4차 산업혁명 등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이슈들이 많았지만, 모든 이슈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토론을 하기에는 시간적·내용적 제약이 있었던 바, 주제의 범위를 좁혀서 심도 있는 토론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민인터뷰 및 국민질문 : 국민질문으로 제시된 각 후보자의 국민소통방안은 소통리더십을 파악하기에 좋은 질문이었지만, 인터뷰이(Interviewee)직업이나

나이, 지역 등도 자막으로 처리하여 세대별 또는 직업별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안과 대선 후보자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보다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임.

표 4-2 평소에 관심 있었던 질문의 제시 여부

(단위 : 명)

차수	제시되었다	제시되지 않았다	계
전 체	122 (83.0%)	25 (17.0%)	147 (100%)
1차	41 (83.7%)	8 (16.3%)	49 (100%)
2차	44 (89.8%)	5 (10.2%)	49 (100%)
3차	37 (75.5%)	12 (24.5%)	49 (100%)

표 4-3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공약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정책 유무

(단위 : 명)

차수	있다	없다	무응답	계
전 체	51 (34.7%)	93 (63.3%)	3 (2%)	147 (100%)
1차	15 (30.6%)	33 (67.4%)	1 (2%)	49 (100%)
2차	20 (40.8%)	28 (57.2%)	1 (2%)	49 (100%)
3차	16 (32.7%)	32 (65.3%)	1 (2%)	49 (100%)

② 토론방식 및 사회자의 역할 평가

- 토론 방식 : 스탠딩 토론은 의자만 없이 서서 토론을 하는 것 이외에는 기존의 좌식 토론방식과 차이가 없었음.
- 스탠딩 방식은 토론의 역동성 증대 측면과 참신함에서는 성공적이었음.
- 사회자의 역할 : 사회자의 적절한 개입이 없었음.
- 주제를 벗어난 발언을 할 때는 사회자의 직권으로 마이크 전원을 끌 수 있도록 하거나, 발언시간을 초과할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함.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

- 토론 방식 : 초청1차 후보자토론회와 같이 5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서서 산만하게 진행되는 토론 방식보다 초청2차 후보자토론회처럼 좌석에 앉아 토론 자체에 몰두하게 하는 방식이 좋았음.
- 연단 뒤에 서서하는 토론보다 생동감이나 역동성은 조금 떨어진 측면이 있었지만, 각 후보자의 정책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았음.
- 사회자의 역할 :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허위사실 유포 또는 인신공격 자체에 대해 사회자가 강한 어조로 공지한 것이 좋았음
- 발언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발언을 제지하고, 주제에서 벗어난 발언을 하는 후보자에게는 그 사실을 상기시키는 등 토론의 흐름이 주제 이외의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하였음.
- 반면, 사회자의 이러한 진행은 종종 토론의 흐름을 중단시키는 느낌이 들었음.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

- 토론 방식 : 스탠딩 토론방식은 토론회의 역동성을 배가시켰으며, 경직되고 딱딱한 분위기였던 초청2차 토론회보다 보는 즐거움이 컸음.
- 서로 대화하듯이 의견을 주고받는 자유토론방식은 각 후보자의 정책을 비교하기 쉽고, 보기에 편하게 느껴졌음.

- 반면, 스탠딩 토론방식 자체가 토론에 역동성을 주지는 않았으며, 지난 2회의 토론회에 비추어 볼 때 한국에서 스탠딩 토론은 시기상조라는 인상을 받았음.
- 심층적인 토론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였음.

표 4-4 토론 진행방식 평가

(단위 : 명)

차 수	적 절	부 적 절	계
전 체	93 (63.3%)	54 (36.7%)	147 (100%)
1차	24 (49.0%)	25 (51.0%)	49 (100%)
2차	37 (75.5%)	12 (24.5%)	49 (100%)
3차	32 (65.3%)	17 (34.7%)	49 (100%)

표 4-5 토론 진행방식의 부적절성에 대한 이유

(단위 : 명)

구 분	이 유	계
전 체	① 일정한 규칙과 통제 부재	17 (30.9%)
	② 정책설명 기회 부족	13 (23.7%)
	③ 토론방식 선정의 부적절함	8 (14.5%)
	④ 후보자 간 공정성 결여	9 (16.4%)
	⑤ 기타	8 (14.5%)
	합 계	55 (100%)
차 수	이 유	계
1차	① 일정한 규칙과 통제 부재	10 (40%)
	② 정책설명 기회 부족	3 (12%)
	③ 토론방식 선정의 부적절함	5 (20%)
	④ 후보자 간 공정성 결여	5 (20%)
	⑤ 기타	2 (08%)
	합 계	25 (100%)
2차	① 일정한 규칙과 통제 부재	1 (7.1%)
	② 정책설명 기회 부족	6 (42.9%)
	③ 토론방식 선정의 부적절함	1 (7.1%)
	④ 후보자 간 공정성 결여	2 (14.3%)
	⑤ 기타	4 (28.6%)
	합 계	14 (100%)
차 수	이 유	계

구분	이유	계
3차	① 일정한 규칙과 통제 부재	6 (37.5%)
	② 정책설명 기회 부족	4 (25%)
	③ 토론방식 선정의 부적절함	2 (12.5%)
	④ 후보자 간 공정성 결여	2 (12.5%)
	⑤ 기타	2 (12.5%)
	합계	16 (100%)

표 4-6 전체 토론시간 평가

(단위 : 명)

차수	적절	부족함	길었음	계
전체	43 (29.2%)	102 (69.4%)	2 (1.4%)	147 (100%)
1차	16 (32.7%)	32 (65.3%)	1 (2%)	49 (100%)
2차	14 (28.6%)	34 (69.4%)	1 (2%)	49 (100%)
3차	13 (26.5%)	36 (73.5%)	-	49 (100%)

표 4-7 참석 후보자 수의 적절성 평가

(단위 : 명)

차수	적절	부족함	많았음	계
전체	75 (51%)	3 (2%)	69 (47%)	147 (100%)
1차	24 (49%)	1 (2%)	24 (49%)	49 (100%)
2차	25 (51%)	1 (2%)	23 (47%)	49 (100%)
3차	26 (53.1%)	1 (2%)	22 (44.9%)	49 (100%)

표 4-8 사회자 역할 평가

(단위 : 명)

차수	적절	부적절함	계
전체	99 (67.3%)	48 (32.7%)	147 (100%)
1차	21 (42.9%)	28 (57.1%)	49 (100%)
2차	38 (77.6%)	11 (22.4%)	49 (100%)

차수	적절	부적절함	계
3차	40 (81.6%)	9 (18.4%)	49 (100%)

표 4-9 사회자 역할의 부적절성에 대한 이유

(단위 : 명)

차수	소극적 역할	진행능력 미숙	계
전 체	32 (62.7%)	19 (37.3%)	51 (100%)
1차	23 (79.3%)	6 (20.7%)	29 (100%)
2차	3 (23.1%)	10 (76.9%)	13 (100%)
3차	6 (66.7%)	3 (33.3%)	9 (100%)

③ 중계방송 및 기타사항 평가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

- 화면 구성 : 세트장 설비 및 후보자 간 화면분할을 포함한 화면구성은 공정하고 시각적 효과가 좋았음.
- 반면, 후보자별로 남은 발언시간을 확인할 수 없어서 아쉬웠던 바, 화면에 후보자별 잔여시간을 표출한다면 보다 흥미로운 시청이 가능할 것임.
- 수어통역 : 청각장애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어통역사를 2인 이상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

- 화면 구성 및 세트장 설비 : 후보자 간 1:1 자유토론 시 후보자의 LED배경의 움직이는 그래픽이 시청자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경향이 있는 바, 집중하며 시청하는데 방해가 되었음.
- 수어통역 : 수어통역의 화면 크기가 너무 작아서 시력이 좋지 않은 청각장애인은 시청에 불편함을 느낄 것임.

- 화면 구성 및 세트장 설비 : 후보자 초청 요건에 관한 자막이 화면 왼쪽 하단에 잠시 표출되었는데, 노출시간이 짧고 크기도 작아 확인하기가 어려웠음. 따라서 알림자막의 경우 크기와 표출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④ 후보자토론회 총평

국민모니터단 운영 결과,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이번 대선 후보자토론회에서 제공된 정보는 다른 매체들과 비교할 때 더 유익했다고 평가하였다.

표 4-10 후보자토론회와 타매체와의 유익성 비교

(단위 : 명)

차수	매우 유익	유익	보통	유익하지 않음	무응답	계
전 체	34 (23.1%)	60 (40.8%)	42 (28.6%)	10 (6.8%)	1 (0.7%)	147 (100%)
1차	9 (18.4%)	15 (30.6%)	17 (34.7%)	7 (14.3%)	1 (2%)	49 (100%)
2차	14 (28.6%)	23 (47%)	11 (22.4%)	1 (2.0%)	--	49 (100%)
3차	11 (22.4%)	22 (44.9%)	14 (28.6%)	2 (4.1%)	--	49 (100%)

〈표 4-11〉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대선 후보자토론회의 공정성·유익성·흥미성 등에 대한 모니터단의 평가는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1 차수별 후보자토론회 평가

•총평

(단위 : 건)

평가항목	1점	2점	3점	4점	5점	계
공정성	7 (4.8%)	7 (4.8%)	33 (22.4%)	53 (36.0%)	47 (32%)	147 (100%)
흥미성	8 (5.4%)	28 (19.1%)	49 (33.3%)	31 (21.1%)	31 (21.1%)	147 (100%)
유익성	10 (6.8%)	22 (15.0%)	42 (28.6%)	54 (36.7%)	19 (12.9%)	147 (100%)
정책이해 도움	13 (8.8%)	32 (21.8%)	47 (32.0%)	39 (26.5%)	16 (10.9%)	147 (100%)
후보의 자질파악 도움	10 (6.8%)	15 (10.2%)	26 (17.7%)	60 (40.8%)	36 (24.5%)	147 (100%)

•초청 1차

(단위 : 건)

평가항목	1점	2점	3점	4점	5점	계
공정성	7 (4.8%)	7 (4.8%)	33 (22.4%)	53 (36.0%)	47 (32%)	147 (100%)
흥미성	8 (5.4%)	28 (19.1%)	49 (33.3%)	31 (21.1%)	31 (21.1%)	147 (100%)
유익성	10 (6.8%)	22 (15.0%)	42 (28.6%)	54 (36.7%)	19 (12.9%)	147 (100%)
정책이해 도움	13 (8.8%)	32 (21.8%)	47 (32.0%)	39 (26.5%)	16 (10.9%)	147 (100%)
후보의 자질파악 도움	10 (6.8%)	15 (10.2%)	26 (17.7%)	60 (40.8%)	36 (24.5%)	147 (100%)

•초청 2차

(단위 : 건)

평가항목	1점	2점	3점	4점	5점	계
공정성	2 (4.1%)	2 (4.1%)	7 (14.3%)	20 (40.8%)	18 (36.7%)	49 (100%)
흥미성	1 (2.1%)	9 (18.4%)	17 (34.7%)	11 (22.4%)	11 (22.4%)	49 (100%)
유익성	1 (2.1%)	5 (10.2%)	11 (22.4%)	23 (46.9%)	9 (18.4%)	49 (100%)
정책이해 도움	1 (2.1%)	7 (14.3%)	18 (36.7%)	15 (30.6%)	8 (16.3%)	49 (100%)
후보의 자질파악 도움	1 (2.1%)	5 (10.2%)	8 (16.3%)	22 (44.9%)	13 (26.5%)	49 (100%)

• 초청 3차

(단위 : 건)

평가항목	1점	2점	3점	4점	5점	계
공정성	2 (4.1%)	2 (4.1%)	14 (28.5%)	17 (34.8%)	14 (28.5%)	49 (100%)
흥미성	2 (4.1%)	8 (16.3%)	16 (32.7%)	12 (24.5%)	11 (22.4%)	49 (100%)
유익성	2 (4.1%)	8 (16.3%)	14 (28.6%)	18 (36.7%)	7 (14.3%)	49 (100%)
정책이해 도움	3 (6.1%)	10 (20.4%)	14 (28.6%)	15 (30.6%)	7 (14.3%)	49 (100%)
후보의 자질파악 도움	4 (8.2%)	3 (6.1%)	11 (22.4%)	16 (32.7%)	15 (30.6%)	49 (100%)

⑤ 국민모니터단 활동 평가

대부분의 참가자들(84.9%)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및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높은 관심이 국민모니터단에 지원한 동기라고 응답하였으며(<표 4-12>), 국민모니터단 활동에 대한 만족도 역시 매우 높은 수치(87.8%)를 보였다(<표 4-13>).

표 4-12 국민모니터단 지원 동기(복수응답 가능)

(단위 : 명)

지 원 동 기	계
대통령선거에 관심이 많아서	30 (56.6%)
후보자토론회에 관심이 많아서	15 (28.3%)
취업·경력에 활용하기 위해서	-
각종 모니터 활동에 관심이 많아서	7 (13.2%)
기타	1 (1.9%)
계	53 (100%)

표 4-13 국민모니터단 활동 만족도

(단위 : 명)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21 (42.9%)	22 (44.9%)	5 (10.2%)	1 (2%)	--	49 (100%)

(2) 국민모니터단 우수 소감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국민모니터단 참가자들에게 마지막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에 초청 1·2차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시청 소감을 A4용지 2쪽 이내로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49명의 참가자들이 제출한 소감문 중 우수 소감문으로 채택된 5개의 소감문을 이 백서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소감문의 내용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는 무관하며, 추가적인 교정 없이 원문 그대로 게재하였다. 소감문의 순서는 작성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른 것이다.

• 소감문 1_박연경⁴⁶

대한민국의 평범한 주부로서 정치보다는 가정에, 정치인들보다는 가족에 관심이 많았고, 선거를 할 때마다 별 다른 생각 없이 투표하곤 했다. 그저 후보들의 고향이나 정당만 보고 한 표를 던졌을 뿐 그들의 정치철학이 무엇인지, 공약이 무엇인지는 궁금하지 않았다. 그들의 과란만장한 삶이나 희망찬 미래에 대한 약속보다는 갈등이 많아서 불거리가 풍부한 연속극에 훨씬 흥미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에게 관심을 갖던 안 갖던, 투표를 하던 안 하던 세상이 바뀔 거라는 환상이나 누가 당선되어도 세상은 딱히 바뀌지 않은 것이 현실이어서 차라리 치열하리만큼 끔찍한 내 현실에 집중하고, 투자하려는 생각이 맞았던 것 같다. 어쩌면 나 같은 사람이 많아서였을까. 정치는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기 바빴고, 정치인들의 속임수에 홀라당 넘어가버린 국민들은 항상 알게 모르게 피해를 입었다.

내가 생애 처음으로 대통령후보 토론회를 본 것은 18대 대선이었다. 그것도 우연하게 채널을 돌리다 잠깐 본 것이 다였는데, 그 짧은 시간동안 들었던 생각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한 거지?’라는 죄책감뿐이었다. 나의 한 표가 얼마나 의미 있고 대단한 것인지도 모른 채 나는 투표권을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 대신 배경보고 찍기’를 행사한 것이다. 지난날들이 부끄러워서 나는 그날부터 후보들의 발언이나 지난 대통령후보 토론회를 찾아봤다. 주변 사람들은 중년의 여자가 정치에 관심 많아서 뭐하냐며 무시했지만 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것이다.

내가 이번 토론회 모니터단을 신청한 계기는 이번 선거가 최초의 장미대선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제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제 손으로 끌어내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수록 정치인들은 우리의 눈치를 보고 정치는 조금씩 바뀌어졌다.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할수록 토론회의 수준이 높아지고, 후보자들의 진정성 있는 마음가짐, 철저한 준비성이 돋보이는 태도, 예비 대통령으로서의 뛰어난 역량을 위해 그들 모두가 노력하리라 굳게 믿었다.

내 믿음은 현실이 되었다. 그저 느낀 점 몇 자 적었을 뿐인데 1차 토론회보다 2차 토론회

46 경기거주 50대 주부

가, 2차 토론회보다 3차 토론회의 결과가 훨씬 만족스러웠다. 비록 서로 간의 네거티브나 허위사실에 관한 논란은 끝날 때까지 지속되었지만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점만으로도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은 것 같다.

토론회는 분야별 2시간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이지만 바쁜 현대인에게는 긴 시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5년을 위해 고작 2시간 투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토론회를 통해 한사람의 전부를 볼 수는 없겠지만 대한민국의 작은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것, 어떤 후보에게 투표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제시받을 수 있다는 것,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대통령, 나라가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은 큰 기회이자 소중한 시간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보고 그들을 손가락질하길 바란다.

- 소감문 2_송은주⁴⁷

장미대선 선거일을 앞두고 벌써 재외투표율 75%, 사전투표율 26%를 기록했다. 국민들이 촛불을 내려놓은지 얼마 되지 않아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한 후 투표하기에 무척 짧은 시간이었다. 때문인지 후보자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자리인 TV토론에 대한 관심도 높았던 것 같다. TV토론은 ‘부동표’인 내게 가장 중요한 척도였다. 지난 대선 때 TV토론을 무척 흥미롭게 보아서 바쁜 와중에도 꼼꼼히 챙겨보자는 의지로 모니터 단에 지원하였는데,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은 것 같다. 토론을 좋아하며 이를 통해 항상 배우는 점이 많았던 학생이자 젊은 유권자의 눈으로 면밀히 TV토론 전반을 살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후보자로 나선 이들의 태도와 말 한마디가 속속들이 궁금했다. 어느 후보가 나라 경영에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아 어떤 정책 공약을 거침없이 답할 수 있다면, 자신의 주장이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면, 거짓이 아닌 진실만을 말한다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내용을 다루기에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다. 자유로운 토론이 되어야 했기에 인당 발언 시간 총 18분이라는 최소한의 형식과 사회자의 개입이 최소한이었던 점이 아쉽다. 사회자가 즉석에서 공통 질문을 던진 경우 매끄럽게 답변한 경우가 많지 않음을 보며 후보자의 편의 상 자유토론이 더 좋다고도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 후보자의 지지율이 다르므로 선두를 달리는 후보자에게 질문이 몰렸다. 즉석에서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자극적인 질문을 앞세우는 경향이 있었으며, 후보자 간 감정이 격화되거나 이해 방향이 다를 경우에는 토론 흐름이 정체되었다. 토론에는

47 서울거주 20대 여대생

질문과 답변이 필수이나, 후반부로 갈수록 후보자 간 남은 시간 격차가 벌어져서 후보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그리고 누군가 상대방을 비방하더라도 제지할 방법이 없었다. 물론 점수를 더 따기 위한 토론 대회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후보자의 토론은 달라야 한다. 하지만 1차부터 3차 토론까지 정리되지 못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러나 TV토론은 후보자의 정책을 이해하는 데 그 어떤 매체보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 후보자들이 선택하는 단어부터 정치 철학이 드러났다. 강조하고 싶은 공약과 차별화된 공약 역시 토론을 보면 자연스레 알 수 있었다. 글로만 전달되는 공약에서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재원이 많이 필요한 정책은 ‘공약은 좋지만 과연 실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고, 매번 대선 때 등장하지만 이루어지지 못한 정책은 이번에도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러나 후보자들이 직접 대화 중에 언급하는 정책들은 진짜 살아있는 느낌이었다. 대북 정책에 관해 토론하면서 역대 정부가 걸어온 길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옳은지 논쟁하는 후보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진보와 보수를 벗어나, 어떻게 해야 북한과의 관계에서 실익을 얻을 수 있는지 토론하는 모습에서 서로 다른 시각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태 하지 못한 일을 하겠다는 힘 있는 발언들은 차기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었다. TV토론을 통해 새로 알게 된 공약도 많았고, 정치를 직접 하고 계신 분들의 소견을 들으며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다.

언론 매체들은 부족한 정책 부분을 채우기 보다는 특정 후보의 자질과 루머를 다루는 데 그치곤 한다. 진실과 거짓을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 혼란만 가중된다. 스스로 백지가 되어 TV토론을 보게 해준 모니터단이 아니었다면 나 역시도 자극적인 발언들에 집중했을 것이다. 물론 언론을 통해 후보자의 선거 활동을 알게 되는 부분도 많다. 그러나 TV토론에서 보고 느낀 후보자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차기 대통령을 향한 바람이 생겼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TV토론의 무게감을 안고 공약을 지키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투표에 참여하고자 한다.

• 소감문 3_윤정아⁴⁸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다. 그동안 또래에 비해 정치나 시사문제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사회변화를 위해 권리를 행사하고 실천적 참여를 했던 것은 오로지 선거 때, 투표라는 행위를 했을 때뿐 입을 깨달았다. 사실 많은 젊은이들이 나와 비슷할 것이다.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지만, 방법을 몰라서 또는 거창한 행위가 요구되어야 할 것 같아서 참여를 주저하게 된다. 지난겨울, 처음으로 촛불을 들며 생각해보았다. 한 개인의 미미한 힘이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작은 관심과 참여가 하나로 모이면 나비효과처럼 큰 바람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이번 제19대 대선 후보 TV토론회의 모니터단에 지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였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선인 만큼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들의 정책을 유권자들이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이루어지는 토론이 효율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해, 비판적 시각으로 토론회를 평가하는 모니터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시민참여의 작은 한 부분이자 시작이라고 믿었다.

세 차례의 토론이 모두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비효율적인 토론방식과 소극적인 사회자의 역할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고, 정책제시와 검증 보다는 인신공격과 네거티브 공방으로 토론시간이 낭비되는 것에 대해 토론회의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토론 진행규칙 중 하나였던 시간총량제의 목적은 후보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이었으나, 동등하게 주어 진 시간을 바탕으로 진행된 자유토론이 특정후보에게 질문이 몰리는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모든 후보에게 질문과 답변의 기회가 동등하게 제공되지 못했다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았다. 또한 자신이 내세우는 대선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제시와 실효성 검증보다는 상대후보의 허물을 들추고 토론주제와 상관없는 색깔론 또는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는데 집중하는 모습, 지지표 결집을 위해 국민을 분열시키는 후보자의 행태는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무적인 부분은 있다. 과거 대선과정에서 행해졌던 토론회는 미리 쓰여진 대본 읽기식 토론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형식적인 토론회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을 앞두고 치루어진 토론회는 비교적 자유롭게 발언이 오가는 시간이었기에 후보자의 이념과 생각,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가감 없이 파악할 수 있었다는

48 서울거주 30대 여성 교직원

점이 좋았다. 또한 토론이 회를 거듭해 갈수록 원래 토론의 목적인 정책문제를 다루려는 노력이 조금씩 보여졌다는 것은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대선후보자들이 의식하고 있음을 방증하였다.

다만 앞으로의 토론회는 방식적 측면에서도 내용적 측면에서도 개선해야 될 점이 여전히 많다. 장기적으로 볼 때 올바른 토론문화의 정착은 반드시 필요한 숙제이다. 후보자 별로 질문과 답변의 기회와 시간이 동등하게 제공될 수 있는 효율적인 토론방식의 구상이 필요하고, 토론진행자의 역할은 중립적 입장에서 보다 명확해야 할 것이다. 중구난방식 토론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주제 설정이 필요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유권자들과 함께 하는 토론도 고려해 볼 만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의 나는 결혼과 출산 후 경력단절의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저녁이 있는 삶을 꿈꾸며 살아간다. 뉴스에서 심심찮게 접하는 내집마련의 어려움이 나의 일이고, 고령화시대 노후대책 문제가 나의 가족의 일이다. 나는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사람이다. 다가올 미래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소극적으로 이끌려가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은 무임승차와 같다는 것을 요근래 절실히 느꼈다. 사회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잘잘못을 평가할 수 없고, 언론에 선동되고 댓글에 끌려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 모니터단 활동은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다. 단순히 토론방식의 개선점만을 생각해본 것이 아니라, 시민참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처음으로 토론회를 집중하여 시청하게 되었고 우리가 주권을 위임한 정치인들을 검증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민들은 대선과 같은 커다란 이슈가 있을 때만 반짝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가 사는 사회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소통의 도구로서 역할을 하는 토론회가 민주적인 방식과 유익한 내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노력 역시 더욱 필요할 것이다.

• 소감문 4_윤현숙⁴⁹

– 들어가며.

이번 TV토론 모니터단은 내게는 새로운 기회이자, 경험이었다. 거의 60여년이 다되어가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번만큼 대선에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나 싶었을 정도로 각 후보들에 대해 공부하고 알아가는 과정이었다. 그 긴 시간동안 행했던 투표엔 과연 나의 생각과 소신이 있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옆집 사람이라서 지방선거에선 별다른 선택의 고민이 없이 누군가를 뽑았었다, 남편의 지인이라서, 혹은 아들의 고등학교 동문이라서 뽑아왔던 국회의원과 군수들을 보며. 그리고 예전과 그다지 차이가 없는 지금 강원도의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든다. 하물며 대통령은 어땠었나. 그저 매번 찍던 특정정당에 반복해서 표를 줄 뿐, 그 사람들을 왜 뽑아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내게 도움을 주려 하는지,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려고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시간이었다.

이와 동시에 드는 생각은, 왜 나는 지금 모니터단을 할 때까지 스스로 성찰을 하지 못했나 하는 자괴감이다. 나름 사회 지식인으로 자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만큼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나 할까. 너무나 당연했기에, 20살이 되면서 내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였기 때문에 쉽게 생각했었다. 모든 권리에 책임이 따른다. 그 책임이 이번 탄핵 사태에서 드러난 듯하다. 내 무관심의 결과가, 이런 모습이라는 생각에 죄책감마저 드는 것 같다.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 TV토론 모니터단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음에 감사한다. 굳이 선발되지 않더라도, 언젠가 국민 모두가 TV토론에 대해서, 각 후보자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정치에 대해서 모니터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아픈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후보들은 국민을 두려워할 수 있었으면 한다.

– TV토론에 대해서.

첫 스탠딩토론, 무대본, 시간총량제 자유토론, 1:1정책검증토론... 이번 토론을 구성했던 방법들이다. 지금껏 있었던 토론과는 다르게, 더 발전된 토론의 모습을 위해서 노력한 이 결과물들에 감사드린다. 기존의 토론회는 각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에 지나지 않았었다. 특히나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바 있다. 최근 박근혜 정권의 민낯을 들춰내고, 처벌한 것도 촛불민심으로 대변된 국민의 역할이었겠지만,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 또한 우리들이었다. TV토론에서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하지 못함과 정책적 이해의 부족함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은 박근혜였다. 무엇이

49 강원거주 50대 여성 요양보호사

문제였을까.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당시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그리고 지금도 여전한 문제인 강력한 지역주의, 좌·우 진영논리들 때문일지 모른다. 지금껏 이것들은 대통령의 자질을 넘어서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토론에 참여했던 이정희 후보의 자멸 역시 박근혜를 향하는 표를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본다. 대선 후보자의 자질 검증 문제와 함께, 지역주의, 이념논리는 아직 우리나라 정치의 미성숙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했다. 그 나라의 정치수준은 국민의 수준에 따른다는 말이 있다. 이전까지의 내 모습이 우리나라 정치 수준을 만들었던 원인을 제공한 꼴이다.

최근 탄핵으로, 조기 장미대선을 치르게 되면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변화했다. 정치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 무책임했던 1번 찍기 등의 행태가 어떤 형식의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직접 체감했기 때문이겠다. 자연스럽게 TV토론에 대한 관심도 역시 높아졌으며, 각 후보들 역시 ‘무능한’ 대통령 후보자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토론에서도 최대한 대본을 읽지 않고 토론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와중에 언론은 미국식 스탠딩 TV토론, 자유토론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고조시켰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역시 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유권자들의 생각이 바뀌고, 후보들의 태도가 바뀐 것은 분명 좋은 징조임에 틀림없다. 물론 일부 후보가 저열하고, 준비되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생각과 멘트들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을지언정 나머지 후보들은 나름의 공약과 합리성을 국민들에게 어필하려 노력했다. 특히 1차 토론, 네거티브가 주가 됐던 토론 이후 유권자들의 반응에 따라 각 후보들이 다음차 토론회에 이런 모습들을 수정해 나가는 자정작용은 의미를 넘어 감동이기도 했다.

국내 토론 사상 처음으로 시작된 스탠딩 토론. ‘정말 스탠딩이었나, 서있는 것이 앉아서 진행되는 것과 무엇이 다르나’와 같은 수많은 비판들을 차치하고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과감한 결단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방송사와 달리, 정부기관인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정부기관이 맞나요? 아무튼, 법에 따라 있어야 하는 공공기관) 선거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TV토론에 있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법에 명시되어 있듯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공성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이를 중요시한다면,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은 커다란 리스크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리스크에 의한 소극적 변화들은 경직성으로 비춰지며 유권자들의 비판을 받기도 한다. 언론기관이 항상 편파성 시비와 싸움을 하고,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하는데, 신뢰성 부분에서 국가기관의 공정성 시비는 그 어느 것보다 치명적이기 때문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면에서 이번 시도는 앞으로 있을 또 다른 TV토론, 5년, 10년 후에 더 나아질 토론회를 준비하는 초석 혹은 발판과 같은 중대한 시도였다고 본다.

여전히 나아가야 할 점은 많다. 토론방식은 보다 혁신적으로, 국민과 직접 호흡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며(미국의 경우 대학 강의실에서, 강당에서 직접 TV토론회를 진행한다고..) 후보자 선정 기준 역시, 그리고 TV토론의 횟수 역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인의 후보자는 너무 많았고, 다원화 사회로 불리는 오늘날 후보자들은 점점 더욱 많아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공정성의 문제로 후보자 수를 줄이거나, 양자토론 구도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 역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어떻게?

첫 토론은 이번 토론과 같은 형식으로 준비하되, 2자, 3자의 토론을 돌아가면서 진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토론회 참여 대상후보가 이번 대선처럼 5인이 될 지라도, 혹은 7인이 될 지라도 더욱 풍부한 토론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 토론은 전체적으로, 그리고 2-3명의 후보들이 각자 따로 묶여 토론이 진행된다면 지금 가지는 문제들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의 문제점들은 모두 다수의 후보자들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발언 시간의 부족 문제에서 기인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이 시행되기 위해서, 3회보다 더 많은 +a의 토론회가 진행되어야 하겠고, 이것은 역시 유권자의 관심도 하락과 후보들의 피로도 등에 대한 문제와 씨름해야 하겠지만 보다 TV토론이 중요해 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국민들 모두 지금보다 정치적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꼭 시도해 봐야할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 TV토론 모니터단에 대해서.

앞서 모니터단 활동을 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전했고 개인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음을 밝혔다. 그러나 50인 정도의 모니터단으로 토론회 전체를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찾기란 백사장의 모래를 한 움큼 쥐고서 모든 모래 성분을 분석해보겠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선발되는 모니터단은, 정치적 관심도가 있는 사람 혹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가까운 사람들, 언론인, 혹은 개인 시간이 많은 일부 사람들에게 편향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질문을 통해 국민전체의 질문을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TV토론 모니터단 역시 그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면 훨씬 영양가 있는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TV토론이 끝이 난 후 자막 혹은 사회자 멘트를 통해 토론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고, 준비된 객관식의 질문들, 소수의 주관식 질문을 준다면 그 양이 많더라도 하더라도 TV토론을 시청했던 모든 시청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은 물론 많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찾는 것 역시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모든 집단은 기본적으로 폐쇄 되어있다. 이 말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폐쇄된 집단이기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에 힘들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집단들은 자신의 관심이 있는 곳에서, 연관성이 있는 곳에서 그리 멀리까지 뻗어 나가지 못한다는 것

이다. TV토론을 시청하는 사람들 역시 그 시간까지 야근하는 노동자들, 청소부, 국밥집 이모님 등 모든 국민을 포괄하지는 못할지 모른다. 선발된 TV토론 모니터단의 풀이 좁다는 말도 같은 맥락으로 언급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국민과 소통하고 그를 통한 개선방안을 내어놓을 수 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하며, TV토론 시청자를 시작으로 시청하지 못한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시 보거나 서비스가 진행되는 것도 시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않은가. 국민질문이나, 다시보기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는데 이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내부에서도 이런 폐쇄성과, 국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보다 확실한 대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마치며.

민주주의사회에서 우리는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를 선택하고, 선출한다. 지방자치제도를 강화하자는 이야기는 우리가 직접 뽑은 사람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을 주자는 이야기와 같다. 적어도 나와 살을 부대끼고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내 삶의 질을 아는 사람을 뽑는다면 내게 돌아 올 수 있는 정책적 혜택이 많아지기 때문이겠다. 대통령은 언제나 필요하다. 국내·외적 문제를 총괄하고 결정하는 우리의 대표지만, 안타깝게도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 삶의 수준을 체감하고 공감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물론 지방자치장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후보자에 대해 심도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언론이 아니고 (편향성과 가짜뉴스로 인해 직접적 판단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TV토론뿐일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국민과 보다 소통하려 노력하고, 더 나은 TV토론을 준비하는 것이겠다. 그런 의미 있는 과정 중에 내가 자리할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 훗날 민주주의의 한 가운데서, 내가 있었고 활동했었고, 거기에 대한 소감을 남길 수 있음에 자랑스러울 것이다.

• 소감문 5_최주은⁵⁰

기다리고 기다리던 5월이 왔다. 세상이 온통 초록으로 빛나고 꽃과 새들이 노래하고 쏟아지는 햇살에 눈이 부시다. 지난 겨울, 온세상이 얼어붙는 영하의 날씨에 얼은 손을 부비며 들었던 작은 촛불들은 넘실넘실 바다가 되었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염원은 이제 기대와 설렘으로 바뀌어 푸르른 5월을 맞이하게 되었다.

국민의 힘으로 전 대통령을 떠나보내야 했고, 또다시 국민의 힘으로 새 대통령을 뽑으려 한다. 이런 역사적인 순간, 우연히 대통령 후보자 TV토론의 모니터단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고 영광스럽게도 나는 대한민국 새 대통령이 되고자 나선 후보자들의 면면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토론 모니터를 하는 동안 내 의견 한마디가 대통령 선거에 아주 작은 영향이라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에 책임과 즐거움을 동시에 느꼈다. 평소 정치에 대해 잘 모르고 부족한 부분도 많았던 터라 토론에 집중하기 위해선 뉴스를 수시로 살펴보며 공부도 해야 했고 한 줄이라도 잘못 기술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마디라도 다시 확인하고 고민해서 쓰고자 노력했다. 모니터를 하는 동안 대통령 선거라는 역사적인 순간에 완전히 폭 빠져있었던 것 같다. 힘들기도 했지만 참으로 행복했다.

토론은 3차례 다 TV방송을 지켜보면서 자주 가는 인터넷 게시판(주로 20~40대 여성들이 활동)의 댓글들을 수시로 확인하고 1차 정리를 한 다음, 다시보기로 1-2번 반복 시청하고 화제가 된 방송클립은 다시 확인하기도 했다.

모니터한 내용을 전송하고 그 다음 토론회를 시청할 때면 그 전에 내가 지적했던 부분이 정말로 개선이 되었는지 나도 모르게 살펴보게 되는데, 우연의 일치였는지 아님 여러 분들이 함께 건의한 때문인지 내가 건의한 내용이 반영되었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 그럴 때면 무척 반갑고 보람되기도 했다.

토론을 보다보면, 후보들은 서로 간의 공약을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했지만 다른 이의 공약 중에 마음에 드는 공약은 “나도 참고하겠다. 검토해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흐뭇한 기분이 들었다. 후보자 토론의 목적이 장차 대통령이 될 후보자를 검증하고 최종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겠지만, 각기 다양한 입장과 생각을 갖고 나온 후보자들이 토론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고 함께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습들이 진짜 민주주의가 아닌가 생각했다.

토론이 막바지에 이르자 서로 간 견제가 더욱 치열해지면서 제대로 된 정책토론보다도 상

50 경남거주 40대 주부

대를 비방하고 험뜯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흠집을 내려는 모습이 자주 비쳤고 이럴 때마다 화가 나고 답답해지기도 했다. 후보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유권자들이 예전처럼 일단 던지고 보는 식의 말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으며 이런 순간들조차도 눈여겨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달라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든 후보자들은 스스로가 대한민국 역사라는 대하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느낌이 들 것이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무슨 일이든 다 해결 할 수 있고 대한민국을 정의롭고 잘사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진짜 화려한 주인공처럼 보인다. 그런데 국민들은 선거 때가 되면 그제서야 “아,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오늘도 여전히 힘겨운 하루를 살고 있지만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 최고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운명이 내 손에 달렸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벅차다. 이제 나와 내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할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5월 9일, 이제 진짜 주인공들이 화려하게 등장할 차례다.

국민보다 우위에 선 제왕적인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며, 국민들을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대통령. 자랑스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랑하고 싶은 대통령을 맞이하고 싶다.

2)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연구용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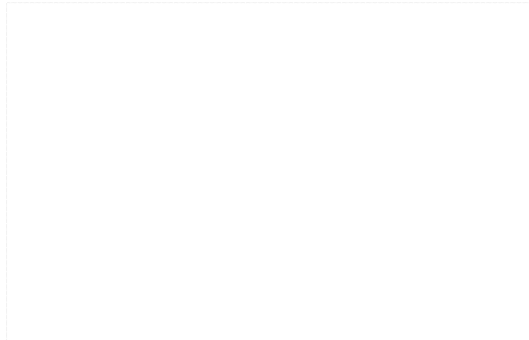


그림 4-1 제19대 대통령선거 효과분석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기능적 효과를 다각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성숙한 정치문화의 구현에 기여하는 선거방송토론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후 평가 및 후속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실증자료의 확보 등을 위해 2017년 3월 31일(금) 정치토론 관련 학과를 대상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연구용역을 공개 모집하

였다. 이에, 4월 12일(수) 6명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다수의 관련 학회에서 제출한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회를 개최한 결과,⁵¹ 한국정치학회가 연구용역 기관으로 선정되어 평가회 결과 통지 직후인 4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연구를 수행하였다.⁵²

이소영 대구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하는 5명의 한국정치학회 연구팀이 진행한 이 연구는 후보자토론회의 다각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제도적 측면”(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 횟수, 시간, 진행방식 등), “인식적 측면”(후보자토론회의 공정성, 유용성, 흥미성 및 유권자의 인지도, 관심도 등), “효과적 측면”(심리·인지효과, 태도효과, 참여효과, 선택효과 등)의 3가지 분석 영역으로 나뉘어 빈도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진행되었다.⁵³

이를 위해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 개최 이전에 3일 간의 사전조사(2017. 4. 20.~4. 22.)를, 5월 9일 선거일 다음날부터 6일 간의 사후조사(2017. 5. 10.~5. 15.)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유권자 1,51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 가운데 1,011명(67%)이 사후조사에 응하였다. 사후보정 후 확보된 1,000명의 표본은 ‘임의전화걸기’(Random Digit Dialing: RDD) 방식으로 추출되었으며, 가구전화 및 휴대전화를 활용한 ‘컴퓨터 이용 전화조사’(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CATI)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의 데이터를 지역별·성별·연령별로 보정하였다.⁵⁴

51 이날 평가위원으로는 이주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 최영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방송토론팀장, 김종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대외협력팀장, 안명규 인터넷선거정보도심의위원회 심의팀장, 김경환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류정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팀장이 참석하였다.

52 이 연구는 3회에 걸쳐 개최된 제19대 대통령선거 초청 후보자토론회만을 대상으로 한다.

5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2017).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연구』, 17-18쪽.

표 4-14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방법	전화면접조사(CATI): 동일 대상자에게 후보자토론회 개최시점을 전후로 설문조사 진행
조사기간	사전조사 : 2017년 4월 20일 ~ 4월 22일 사후조사 : 2017년 5월 10일 ~ 5월 15일
표본수	사전조사 : 총 1,514명 조사 후 지역/성/연령별 사후보정 사후조사 : 총 1,011명 조사 후 지역/성/연령별 사후보정 패널유지율 : 66.8%
표본추출방법	가구전화 RDD + 휴대번호 RDD (Random Digit Dialing)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 3.1% point
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 출처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2017).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연구』, 18쪽.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연구』의 핵심 영역인 “제도 분석”, “인식 분석”, “효과 분석”의 주요 결과를 도표를 중심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후보자토론회 제도분석⁵⁴

－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 횟수, 시간

표4-15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사전조사)

필요성	비율(%)
반드시 필요하다	70.4
어느 정도 필요하다	24.8
별로 필요하지 않다	4.1
전혀 필요하지 않다	0.7

54 위의 책, 18쪽.

55 위의 책, 27-41쪽.

표 4-16 적절한 후보자토론회 횟수

사전조사		사후조사	
횟수	비율(%)	횟수	비율(%)
5	20.5	8	3.6
6	42.4	9	7.6
7	15.7	10	78.9
8	8.2	11	1.2
9	0.4	12	2.8
10	12.2	14	0.8
15	0.2	15	4.0
20	0.5	20	1.2

표 4-17 후보자토론회의 시간(사후조사)

시간	비율(%)
줄여야 한다	3.3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55.2
늘려야 한다	41.5

－ 후보자토론회의 진행방식

표 4-18 여론조사 상위 후보자 중심의 토론방식에 대한 선호

진행 방식	비율(%)
여론조사 상위 후보 위주의 토론 방식	38.2
주요 정당 후보 모두 참여하는 토론 방식	61.8

표 4-19 선호 토론 방식(사후조사)

토론 방식	비율(%)
대본 없는 스탠딩토론	19.8
정책 발표 후 상호 정책검증토론	17.2
후보자 간 자유토론	33.2
주도권토론	9.9
방청객 질문에 응답하는 토론	18.5
기타	1.5

표 4-20 스탠딩 토론 만족도(사후조사)

만족도	비율(%)
매우 만족	13.2
어느 정도 만족	51.4
불만족	29.7
매우 불만족	5.7

표 4-21 후보자 상호간정책검증토론 만족도(사후조사)

만족도	비율(%)
매우 만족	12.9
어느 정도 만족	62.3
불만족	22.2
매우 불만족	2.6

■ 후보자토론회 인식 분석⁵⁶

표 4-22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관심경도와 투표여부(사후조사)

(단위 : 명(%))

구분	투표했다	투표하지 않았다	합계
많은 관심을 갖고 보았다	546(99.6)	2(0.4)	548(56.6)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보았다	353(99.2)	3(0.8)	356(36.8)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가끔 보았다	46(97.9)	1(2.1)	47(4.9)
특별한 관심 없이 지나치며 보았다	16(94.1)	1(5.9)	17(1.8)
합계	961(99.3)	7(0.7)	968(100.0)

※ $\chi^2=8.645$, $df=3$, $p=0.034$ ⁵⁷ (유의수준 $p<0.05$)

56 위의 책, 45-60쪽.

57 이는 교차분석에서 피어슨 카이제곱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보다 작다면 교차분석이 유의미하다는 뜻이다. <표 4-22>의 경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도와 투표참여 여부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4-2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가장 잘 검증된 영역



※ 1,000명의 응답자 중 618명(61.8%)이 후보자토론회가 후보자의 자질을 가장 잘 검증하였다고 응답

표 4-23 후보자토론회의 선거정보 획득에 대한 효과성

구분	빈도(명)	응답률(%)
매우 효과적이다	385	38.5
어느 정도 효과적이다	515	51.5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80	8.0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7	0.7
무응답	14	1.4

표 4-24 후보자토론회의 상대적 유용성(타정보매체와 비교)

구분	빈도(명)	응답률(%)
매우 유익했다.	279	27.9
다소 유익했다.	548	54.8
별로 유익하지 않았다.	148	14.8
전혀 유익하지 않았다.	13	1.3
무응답	12	1.2

▪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⁵⁸

– 심리·인지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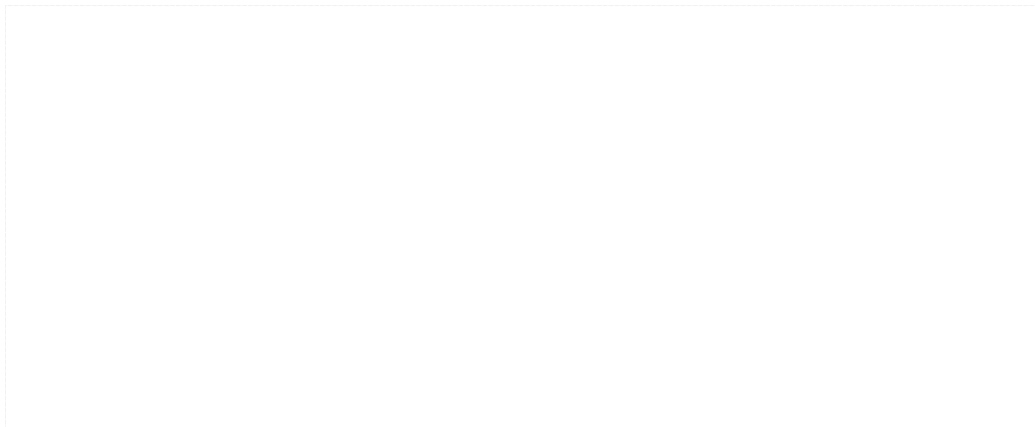
표 4-25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 여부

구분	빈도	%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적이 있다	968	96.8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적이 없다	32	3.2
합계	1,000	100

그림 4-3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 선거 관심도의 변화



그림 4-4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 주변사람들과의 선거 관련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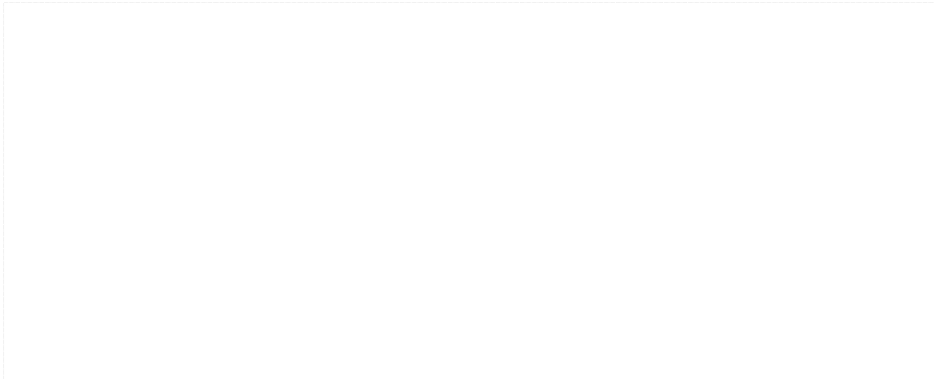
58 위의 책, 63-86쪽.

- 공약과 대선 쟁점 정보에 대한 인지도(%)

그림 4-5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약에 대한 인지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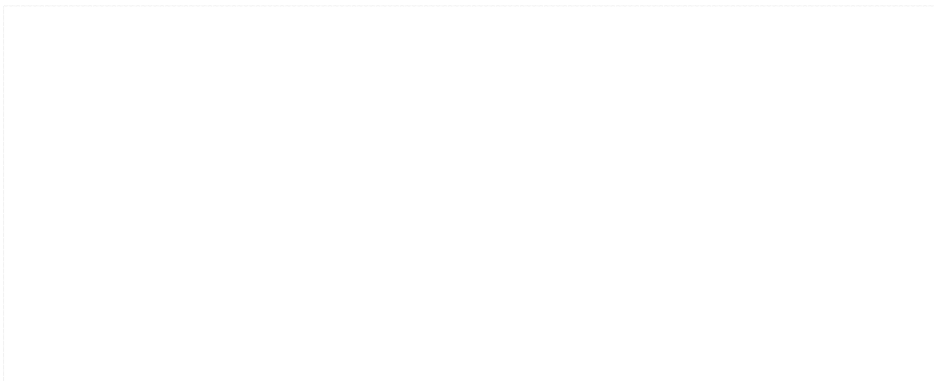


그림 4-6 토론회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정책과 대선 쟁점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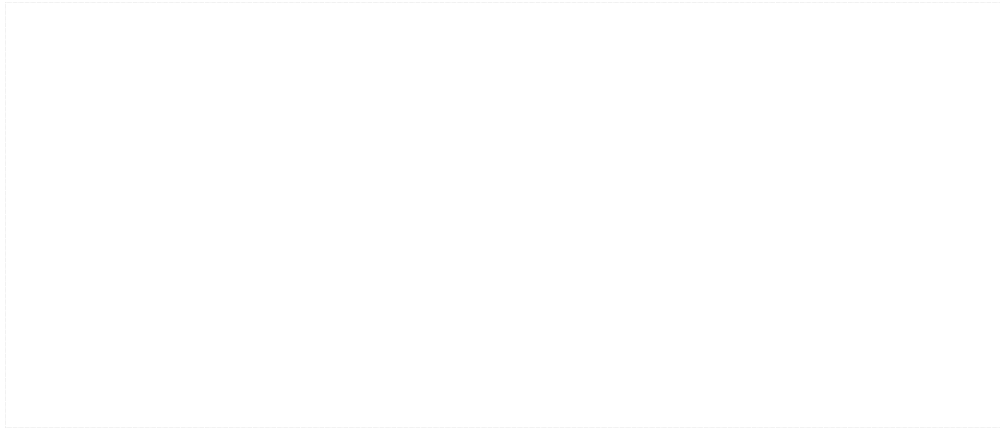
- 태도 효과 : 후보자 호감도에 미친 영향

그림 4-7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 변화(사전/사후조사)



※ 수치는 평균을 나타내며, 11점 척도로 측정 (0: 매우 싫어한다 - 10: 매우 좋아한다)

그림 4-8 후보자토론회가후보결정에 미친 영향 비교(%) : 제17대 대선~제19대 대선



※ 후보자토론회가 시청자들의 지지 후보자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제17대 대선에서 61.2%, 제18대 대선에서 63.8%, 제19대 대선에서 68.1%로 상승 하였음.
특히, 매우 영향을 미쳤다고 대답한 조사 대상자의 비율은 제19대 대선(28.9%)에서 제17대 대선(15.8%)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상승 하였음.

그림 4-9 후보자토론회가후보 지지에 미친 영향(사후조사)



※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비해서 유권자의 기존 후보자 선호를 강화하기 보다는 설득효과에 기여한 것으로 볼수있음.

1) 유권자대토론회_유권자 평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17년 5월 17일(수) “참여와 소통! 유권자가 말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라는 부제로 씨네큐브 광화문에서 제6회 유권자의 날 기념 유권자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유권자대토론회는 대통령선거와 후보자토론회라는 거대 정치 담론을 일상적인 언어를 이용하여 생활주변의 이야기로 풀어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표 4-26 유권자대토론회 개최 개요

구 분	내 용
행사명	제6회 유권자의 날 기념 유권자대토론회 《부 제》 ‘참여와 소통! 유권자가 말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일 시	2017. 5. 17.(수) 14:00~16:00
장 소	씨네큐브 광화문(서울시 종로구 소재)
출연자	진 행 자 오동진(영화평론가) 토론게스트 - 김태훈 (대중문화칼럼니스트·방송인, 전 MBN ‘황금알’) - 배종찬 (여론조사 전문가,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 신은하 (탈북유권자,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 - 안봉근 (새내기유권자,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1학년) - 이섬숙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부회장]

일반 유권자가 대통령선거 및 후보자토론회라는 정치과정을 경험한 바를 일상적인 언어로 이야기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권자대토론회를 대중친화적인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영화평론가 오동진이 사회를 맡았으며, 대중문화칼럼니스트 김태훈,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배종찬, 탈북유권자 신은하,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부회장 이섬숙, 새내기 유권자 안봉근이 패널로 출연하였다.

유권자대토론회에 참석한 유권자들은 선거의 중요성과 참여의 가치를 돌이켜 보게 하는 영화 ‘스윙 보트’(Swing Vote, 2008)의 편집 영상,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준비과정을 담은 기록 영상, 제19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유권자의 소망을 담은 국민인터뷰 등 총 3편의 영상을 보며,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TV토론회의 의미와 역할’, ‘선거의 중요성과 참여의 가치’ 등에 대하여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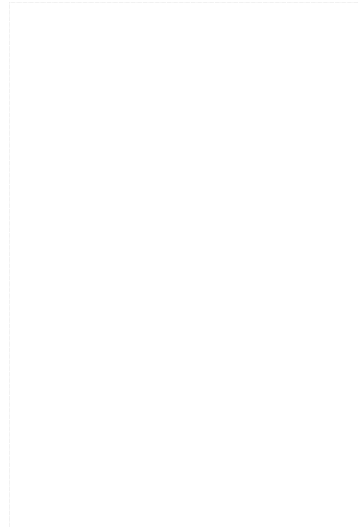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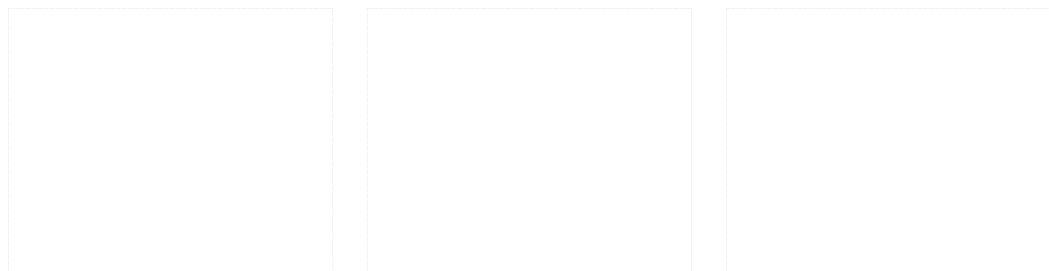


그림 4-10 유권자대토론회 웹포스터

유권자대토론회를 홍보하기 위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에 포스터를 게시하고, 수도권 소재 111개 대학교와 98개 기관·단체에 유권자대토론회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개최 3일전부터는 개최 장소와 주변 상가에 전단지를 비치하고, 영화관을 방문하는 유권자들이 개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X-배너도 설치하였다.

그리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유권자대토론회 개최 사실이 기사화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취재안내를 통해 개최 당일 한국선거방송, 국회방송, EBS, 연합뉴스 등 다수의 언론사가 취재·보도하였다.

그림 4-11 유권자대토론회 뉴스 보도



한국선거방송 뉴스 보도

EBS 뉴스 보도

국회방송 뉴스 보도

한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유권자대토론회를 방송영상으로 제작하여 한국선거방송을 통해 방영하였다.

2)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심포지엄_전문가 평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전문적인 외부 평가를 통한 객관적인 분석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및 모색의 거시적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한국언론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2017년 7월 12일(수) 한국프레스센터(서울시 중구 태평로 소재)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⁵⁹

이날 평가회는 한국언론학회장을 역임한 서울대 양승목 교수가 사회를 맡아 제1주제와 제2주제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운영과 개선방안”에 대해 성균관대 이상철 교수가, 두 번째 세션에서는 대구대 이소영 교수가 중앙토론회가 의뢰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⁶⁰ 연구의 결과를 한국정치학회를 대표하여 발표하였다. 각 주제발표 후에는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표 4-27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심포지엄 개최 개요

구 분	내 용
개최 일시	2017. 7. 12.(수), 15:00~18:00
개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제1부	사 회: 양승목 (서울대학교 교수) ■ 제1주제 ■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의 운영과 개선방안 : 참여민주주의와 속의민주주의 그리고 TV토론 발표 : 이상철 (성균관대학교 교수) 토론 : 박용찬 (MBC 논설위원실 실장) 오미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가천대 교수) 유경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이영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이주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

59 평가 심포지엄 자료집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debates.go.kr>) 상단메뉴 ‘자료실’ → ‘세미나/토론회’에 게재되어 있다.

60 연구보고서의 전문은 이 백서의 ‘부록’(5.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연구, 256-279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debates.go.kr/2016_data/data01.php)에서도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구 분	내 용
제2부	<p>■ 제2주제 ■</p> <p>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p> <p>발표 : 이소영 (대구대학교 교수)</p> <p>토론 : 김신동 (한림대학교 교수)</p> <p>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p> <p>조화순 (연세대학교 교수)</p> <p>최영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방송토론팀장)</p> <p>허익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p>

공동 주최기관인 한국언론학회와 협의하여 후보자토론회의 운영과 개선방안, 후보자토론회의 효과 분석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였다. 주제는 선거일이 두 달여 지난 시점에서 시의적절하였다는 평가가 있었으며, 사회자·발제자·토론자 선정에 있어 학계, 언론계, 토론전문가 등 각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초빙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포지엄을 진행할 수 있었다. 평가 심포지엄 시작 전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최은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및 남택용 상임위원을 비롯하여 위원,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 등과의 환담시간을 마련하여 원활한 토론회가 진행될 수 있었으며, 사전답사, 초청장 발송, 주요 참석자와의 연락망 구축 등으로 토론회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고, 한국선거방송뿐만 아니라 국회방송에서도 특집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대규모 제작팀이 참여하는 등 전국방송에서 뉴스와 TV 프로그램으로 영상화되어 심포지엄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그림 4-12 제19대 대선 후보자토론회 평가 심포지엄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_자체 평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은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에 대한 자체평가를 위해 2017년 5월 24일(수) 직원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하였다.⁶¹ 무엇보다 이 자리에서는 이번 대선 선거방송토론의 관리 및 진행 과정을 성찰적으로 회고하고, 향후 발전방안 모색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이 진행되었다. 또한, 선거방송토론 백서 제작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구성 및 작성 방향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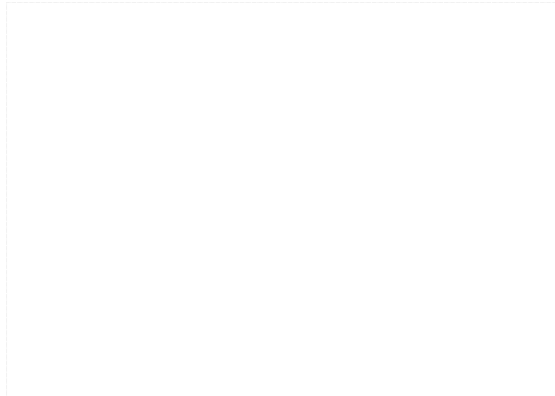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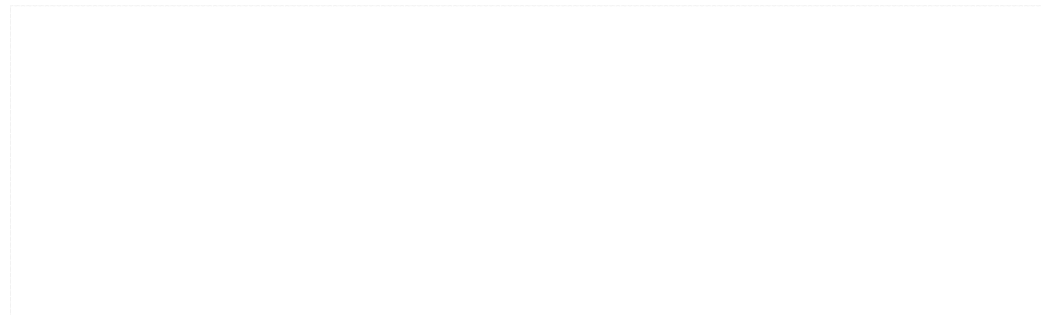


그림 4-1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직원 공동연수

이번 직원 공동연수는 공직선거정책 토론회와 후보자토론회를 실무적으로 관리한 사무국 직원 간에 선거방송토론의 개최 의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불평부당성(Impartiality)과 공정성(Fairness)을 견지하며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발전에 공직선거를 위한 선거방송토론을 관리한다는 공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4-1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직원 합동평가



직원 공동 연수에 이어 6월 22일(목)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과 사무국 직원의 합동 평가회가 개최되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및 사무국 직원이 참석한 이날 평가회에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한국정치학회가 수행한 『제19대 대통령선거

61 직원 공동연수는 5월 25일부터 3일간 전남 여수시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토론멘토링’ 프로그램을 계기로 여수에서 이루어졌다.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연구』의 중간결과를 방송토론팀장이 요약 보고한 후에 토론회 진행방식·사회자 역할·토론회 개최 시간 그리고 초청대상 후보자의 수 등 후보자토론회 전반에 관한 위원들의 진지한 평가가 이어졌다. 또한 이날 평가회에서는 법정토론회의 사회자 후보군 정비, 토론회의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및 향후 개선사항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기록영상 제작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공직선거정책토론회·후보자토론회)의 준비 과정 및 스튜디오 현장 등 생생한 장면을 추후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영상기록미디어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등 기록영상” 자료를 제작하였다.

그림 4-15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등 기록영상



이 영상자료는 각종 검토 회의 및 위원회의, 선거방송토론 설명회, 토론회장 설비, 토론회 리허설 및 각종 홍보 장면 등을 담고 있으며, 배경음악 및 이해를 돕기 위한 자막을 삽입하여 풀HD급 2종(길이 8' 22" 및 22' 43")으로 제작되었다. 영상은 별책부록으로 본 백서 DVD에 수록되었으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⁶² 및 페이스북⁶³에서도 볼 수 있다.

표 4-28 선거방송토론 기록영상 촬영내역

구분	일시	장소	촬영내역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설명회	2017. 4. 3.(월) 16:00	국회의원회관 20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등록 • 추첨 및 기록·공표 • 안내자료 설명 등
위원회의	2017. 4. 7.(금) 9:00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실	회의 장면
전문위원회의	2017. 4. 11.(화) 9:00		회의 장면
준비소위원회	2017. 4. 12.(수) 17:00		회의 장면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2017. 4. 10.(월) 10:00~12:00	KBS TS-4 스튜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회장 설비 및 세트 설치 등 • 위원 모니터실 • 리허설(후보자 토론 장면) • 단체 기념사진 촬영
후보자토론회 설명회	2017. 4. 19.(수) ·초 청-10:00 ·초청외-14:00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등록 • 개회 및 폐회 • 참석자 소개 • 추첨 및 기록·공표 • 안내자료 설명 등
후보자토론회	2017. 4. 23.(일) 20:00~22:00	KBS TS-4 스튜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회장 설비 및 세트 설치 등 • 프레스룸 • 위원 모니터실 • 후보자 대기실(출입/이동) • 리허설(후보자 토론 장면) • 단체 기념사진 촬영
	2017. 4. 24.(월) 23:00~01:00	KBS TS-4 스튜디오	
	2017. 4. 28.(금) 20:00~22:00	MBC A 스튜디오	
	2017. 5. 2.(화) 20:00~22:00	MBC C 스튜디오	
국민인터뷰	2017. 4. 14.(금)	서울역	국민인터뷰 장면
토론회 준비상황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악청사 전경 • 사무실 전경 등 • 사무국 회의 장면 • 거리현수막 게시 장면 등 홍보장면

62 <http://www.debates.go.kr> 상단메뉴 '자료실' →'기타 자료실' (No.62, 게시일: '17. 8. 31.)

63 <https://ko-kr.facebook.com/2017debate> (영상등록일 : '17. 10. 18.)

주요 민원사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자토론회에 큰 이목이 집중되었던 만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팩스와 ‘국민신문고’⁶⁴ 등을 통해 후보자토론회에 관한 다양한 의견의 서면민원이 제기되었다.⁶⁵ 특히, 4월 28일(금) 초청2차 및 5월 2일(화) 초청3차 후보자토론회의 개최를 앞두고 한 사회단체에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방문하여 후보자토론회의 수어통역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 주용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소 3인의 수어통역사를 화면에 표출
- 수어통역사 표출화면의 크기 확대
- 중계방송사마다 수어통역사 배치
- 수어통역 관련 선거법 개정(수어통역 의무화)
- 청각장애인을 위한 패쇄자막의 크기 확대 및 각 후보자 이름의 글자색 구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해당 민원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위해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공영방송사 관계자 등과 수어통역방송 여건의 개선 가능성과 그 범위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거치는 등 청각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밖에 접수된 민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토론회 참석 후보자의 초청기준 강화, 토론회 도중 후보자들의 발언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실시간 ‘팩트체크’(Fact check) 도입, 외래어(‘스탠딩 토론’) 표현 자제 요청 등의 민원이 있었다.

64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온라인 공공민원창구이다.

65 2017년 2월 9일에 접수된 첫 민원부터 마지막 민원인 10월 24일까지 접수된 대선 후보자토론회 관련 서면민원만 18건이었으며, 선거운동기간(17. 4. 17.~5. 8.)에 접수된 전화민원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다.

부 록

주요업무추진 연표

2016년	
6. 1.	제19대 대선 후보자토론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6월~11월)
10. 4.	위원회 조직체계 정비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연구반 편성·운영(1개월)
2017년	
1. 2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 관리규정」 개정
2. 1.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리단 편성·운영(3팀)
2. 4.	후보자토론회 관련 자문회의 개최
3. 8.	공영방송(KBS·MBC) 관계자 업무협의회 개최
3. 9.	위원회의 방청대기실 및 방청석 설비
3. 10.~4. 10.	후보자토론회 토론의제개발 연구용역 실시(한국정당학회)
3. 14.~5. 9.	제19대 대통령선거 대비 상황근무반 편성·운영
3. 17.~3. 27.	공직선거정책토론회 토론의제 선정을 위한 전문가조사 실시
3. 17.	(제4차 위원회의) 후보자토론회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
3. 18.~4. 16.	후보자의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결과 수집
3. 20.	토론회 중계방송 참여 협조 요청(SBS 등)
3. 22.	정당관계자 업무협의회 개최(5개 정당)
3. 22.~4. 27.	후보자토론회 국민질문 공모
4. 6.	후보자토론회 토론의제 선정을 위한 국민여론조사 실시
4. 7.	(제6차 위원회의) 후보자토론회 사회자 선정 및 진행방식 결정·공표
4. 10.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5개 정당)
4. 11.	안전관리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회 개최(방송사, 경찰청, 소방서 등)
4. 12.~5. 6.	후보자토론회(초청 1·2·3차) TV토론 모니터단 운영
4. 13.	후보자토론회 방송화면구성 등에 대한 협조요청(공영방송사)
4. 14.	(제7차 위원회의) 후보자토론회 토론주제 선정
4. 13.~6. 30.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연구용역 실시(한국정치학회)
4. 14.~4. 16.	후보자토론회 국민인터뷰 제작(서울역, 용산역)
2017년	
4. 15.~4. 16.	후보자등록기간

4. 17.~5. 8.	선거운동기간
4. 17.	(제8차 위원회의) 후보자토론회 초청대상 후보자 등 선정
4. 19.	후보자토론회 설명회 개최
4. 21.	(제9차 위원회의) 후보자토론회 질문사항 선정(초청 1차, 초청외)
4. 23.	(제10차 위원회의) 후보자토론회 국민질문 선정(초청 1차)
4. 23.~5. 9.	후보자토론회 시청 인증샷 이벤트(페이스북, 이메일)
4. 24.~5. 10.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서비스 실시
4. 23.	후보자토론회 개최(초청 1차)
4. 24.	후보자토론회 개최(초청외)
4. 25.	정책검증 중심의 후보자토론회 협조 요청(초청대상 후보자)
4. 25.~4. 30.	재외투표기간
4. 28.	후보자토론회 개최(초청 2차)
4. 30.	(제12차 위원회의) 후보자토론회 질문사항 선정(초청 3차)
5. 2.	(제13차 위원회의) 후보자토론회 국민질문 선정(초청 3차)
5. 2.	후보자토론회 개최(초청 3차)
5. 4.~ 5. 5.	사전투표기간
5. 9.	제19대 대통령선거일
5. 17.	유권자대토론회-“참여와 소통! 유권자가 말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
6. 13.~7. 31.	후보자토론회 언론보도 분석 연구(미디어전략연구소)
6. 22.	제19대 대선 후보자토론회 평가 위원워크숍 개최
7. 12.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심포지엄 개최(한국언론학회 공동 주최)

토론회 토론진행표

1)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정책토론회 토론진행표

- 일시 : 2017. 4. 10.(월) 10:00 ~ 12:00(120분)
- 장소 : KBS TS-4 스튜디오
- 중계방송 : KBS, MBC, SBS 및 국회방송 등 동시 생중계
- 토론자(좌석순) : 김세연(바른정당), 이정미(정의당), 김종석(자유한국당),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김성식(국민의당)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타임 (누적시간)	영상	비 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20초	10:00:00	VCR	
2	오프닝	- MC 오프닝 및 토론자 소개	1분30초	10:01:30	MC/S/T	백운기 (KBS 앵커)
3	주제-진행 방식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소개 • 진행방식 소개 : 1인 총 발언시간 18분 	1분	10:02:30	MC/S/T	김세연 〈바른정당 사무총장〉
4	기조연설	[국정운영 방안 등 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의 입장] ※ 김세연/이정미/김종석/홍익표/김성식 토론자 (각 2분 정도)	12분 (약10분)	10:14:30		
5	사회자 공통질문 후 자유토론 I	[주제1 :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점 : 사드를 둘러싼 미중일 외교관계, 대북정책 등 ※ 사회자 공통질문(30초)⇒이정미/김종석/홍익표/김성식/김세연 토론자 답변 후 김종석 토론자 발언을 시작으로 자유토론 ※ MC 진행방식(토론규칙) 설명 : 토론자당 약 8분 정도 ※ 사회자 Bridge	47분 (40분 30초)	11:01:30	수어 MIX	김종석 〈자유한국당 (전)여의도 연구원장〉
6	사회자 공통질문 후 자유토론 II	[주제2 : 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점 : 가계부채,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일자리 창출 방안 등 각 당의 경제현안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 ※ 사회자 공통질문(30초)⇒홍익표/김성식/김세연/이정미/김종석 토론자 답변 후 김성식 토론자 발언을 시작으로 자유토론 ※ MC 진행방식(토론규칙) 설명 : 토론자당 약 8분 정도 ※ 사회자 Bridge	47분 (40분 30초)	11:48:30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7	맺음말	※ 사회자 Brid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세연/이정미/김종석/홍익표/김성식 토론자(각 1분) ※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맺음말 시간 조정 가능	6분 (5분)	11:54:30 11:54:30		김성식 〈국민의당 수권비전위원장〉
8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1분30초	11:56:00	S/T F.S	※ 좌석순 (사전 추첨)
9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11:56:10	VCR	위원 등 소개 (자막)

2) 후보자토론회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초청 1차) 토론진행표

- 일시 : 2017. 4. 23.(일) 20:00 ~ 22:00(120분)
- 장소 : KBS TS-4 스튜디오
- 중계방송 : KBS, MBC, SBS 등 동시 생중계
- 후보자(자리순):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문재인, 심상정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타임 (누적시간)	영상	비 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20초	20:00:00	VCR	
2	오프닝	- MC 오프닝 - 후보자 소개 및 인사	2분	20:02:00	MC/S/T	김진석 (KBS 기자)
3	인트로	- 국민인터뷰 영상	1분	20:03:00	VCR	
4	주제-진행 방식 설명	• 주제 소개 • 진행방식 소개 : 1인 총 발언시간 18분	1분	20:04:00	MC/S/T	유승민 (바른정당) 안철수 (국민의당) 홍준표 (자유 한국당)
5	국민질문 후 자유토론 I	[주제1 :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 • 논점 : 미중일 외교정책/ 통일, 북핵 등 대북정책 ※ 사회자 '국민질문'(1분) ⇒ 유승민/안철수/홍준표/문재인/심상정 후보자 답변 후 유승민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자유토론 ※ MC 진행방식(토론규칙) 설명 : 후보당 약 9분 정도 ※ 사회자 Bridge	53분 (46분)	20:57:00		
6	사회자 공통질문 후 자유토론 II	※ 사회자 Bridge [주제2 : 권력기관 및 정치 개혁 방안] • 논점 : 검찰, 청와대, 국정원 등/ 선거제도, 개헌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안철수/홍준표/문재인/심상정/유승민 후보자 답변 후 안철수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자유토론 ※ MC 진행방식(토론규칙) 설명 : 후보당 약 9분 정도	53분 (45분 30초)	21:50:00		
7	맺음말	※ 사회자 Bridge • 홍준표/문재인/심상정/유승민/안철수 후보자(각 1분) ※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맺음말 시간 조정 가능	6분 (5분)	21:56:00	수어 MIX	※ 좌석순 (사전 추첨)
8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1분	21:57:00	S/T F.S	위원 등 소개
9	타이틀	엔딩 타이틀	20초	21:57:20	VCR	(자막)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초청 2차) 토론진행표

- 일시 : 2017. 4. 28.(금) 20:00 ~ 22:00(120분)
- 장소 : MBC C 스튜디오
- 중계방송 : KBS, MBC, SBS 등 동시 생중계
- 후보자(좌석순) : 문재인, 심상정,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타임 (누적시간)	영상	비 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20초	20:00:00	VCR		
2	오프닝	- MC 오프닝 - 후보자 소개 및 인사	1분30초	20:01:30	MC/ S/T	박용찬 (MBC)	
3	인트로	- 국민인터뷰 영상	1분	20:02:30	VCR	논설위원실장)	
4	진행방식	• 진행방식 소개	1분	20:03:30			
5	정책검증 토론	[주제 : 각 후보자의 경제분야 주요 정책]					
		문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재인 후보 정책발표(3분) - 심상정 / 문재인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 유승민 / 문재인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 안철수 / 문재인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 홍준표 / 문재인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21분30초 (19분)	20:25:00	MC/ S/T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상정 후보 정책발표(3분) - 유승민 / 심상정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 안철수 / 심상정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 홍준표 / 심상정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 문재인 / 심상정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21분30초 (19분)	20:46:30		심상정 (정의당)
		유승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승민 후보 정책발표(3분) - 안철수 / 유승민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 홍준표 / 유승민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 문재인 / 유승민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 심상정 / 유승민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21분30초 (19분)	21:08:00		유승민 (바른정당)
		안철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철수 후보 정책발표(3분) - 홍준표 / 안철수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 문재인 / 안철수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 심상정 / 안철수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 유승민 / 안철수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21분30초 (19분)	21:29:30		안철수 (국민의당)
		홍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준표 후보 정책발표(3분) - 문재인 / 홍준표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 심상정 / 홍준표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 유승민 / 홍준표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 안철수 / 홍준표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21분30초 (19분)	21:51:00		홍준표 (자유한국당)
				수어 MIX	※ 좌석순 (사전 추첨)		
6	맺음말	☞ 사회자 Bridge • 심상정/유승민/안철수/홍준표/문재인 후보자(각 1분) ※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맺음말 시간 조정 가능	6분 (5분)	21:57:00			
7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1분	21:58:00	S/T F.S	위원 등 소개 (자막)	
8	타이틀	엔딩 타이틀	20초	21:58:20	VCR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초청 3차) 토론진행표

- 일시 : 2017. 5. 2.(화) 20:00 ~ 22:00(120분)
- 장소 : MBC C 스튜디오
- 중계방송 : KBS, MBC, SBS 등 동시 생중계
- 후보자(자리순) :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안철수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타임 (누적시간)	영상	비 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20초	20:00:00	VCR	
2	오프닝	- MC 오프닝 - 후보자 소개 및 인사	2분	20:02:00	MC/S/T	이경희 (한국외대 교수)
3	인트로	- 국민인터뷰 영상	1분	20:03:00	VCR	
4	주제-진행 방식 설명	• 주제 소개 • 진행방식 소개 : 1인 총 발언시간 18분	1분	20:04:00		
5	사회자 공통질문 후 자유토론 I	[주제1 : 복지·교육 정책] • 복지 : 저출산·고령화/사회적 약자/정책의 지속가능성/연금·보험/의료·환경 등 • 교육 : 공교육 정상화 방안/사교육 문제/ 학제개편 등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문재인/홍준표/유승민/심상정/안철수 후보자 답변 후 문재인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자유토론	53분 (45분30초)	20:57:00	MC/S/T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 자리순 (사전 추첨)
		≡ MC 진행방식(토론규칙) 설명 : 후보당 약 9분 정도 ≡ 사회자 Bridge				
6	국민질문 후 자유토론 II	≡ 사회자 Bridge [주제2 : 국민통합 방안] • 국민과의 소통/인사편중/사회갈등 해소/국가 미래비전 등 ≡ 사회자 '국민질문'(1분) ⇒ 홍준표/유승민/심상정/안철수/문재인 후보자 답변 후 홍준표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자유토론 ≡ MC 진행방식(토론규칙) 설명 : 후보당 약 9분 정도	53분 (46분)	21:50:00	수어 MIX	
7	맺음말	≡ 사회자 Bridge • 유승민/심상정/안철수/문재인/홍준표 후보자(각 1분) ※ 시간이 넘거나 모자라는 경우 맺음말 시간 조정 가능	6분 (5분)	21:56:00		
8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1분	21:57:00	S/T F.S	위원 등 소개 (자막)
9	타이틀	엔딩 타이틀	20초	21:57:20	VCR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초청외) 토론진행표

- 일시 : 2017. 4. 24.(월) 23:00 ~ 4.25.(화) 01:00(120분) • 장소 : KBS TS-4 스튜디오
- 중계방송 : KBS, MBC 동시 생중계
- 후보자(좌석순) : 오영국, 장성민, 조원진, 이경희, 김선동, 남재준, 이재오, 김민찬, 윤홍식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타임 (누적시간)	영상	비 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20초	23:00:00	VCR	
2	오프닝	- MC 오프닝 및 후보자 소개	2분	23:02:00	MC/S/T	백운기 (KBS 앵커)
3	인트로	- 국민인터뷰 영상	1분	23:03:00	VCR	
4	주제 진행 방식 설명	- 주제 소개 - 진행방식 소개 : 1인 총 발언시간 10분	1분	23:04:00		오영국 (경제애국당) 장성민 (국민통합당) 조원진 (새누리당) 이경희 (한국국민당) 김선동 (민중연합당) 남재준 (통일한국당)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김민찬 (무소속) 윤홍식 (홍익당) ※ 좌석순 (사전 추첨) 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1) 후보 사퇴
5	기조연설	• 오영국/장성민/조원진/이경희/김선동/ 남재준/이재오/김민찬/윤홍식 후보자 (약 2분 정도)	20분 (18분)	23:24:00		
6	사회자 공통질문 후 자유토론 I	[주제1 : 정치-외교 분야] • 논점 :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 권력기관 및 정치 개혁 방안 등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장성민/조원진/이경희/김선동/ 남재준/이재오/김민찬/윤홍식/오영국 후보자 답변 후 장성민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자유토론 ▶ MC 진행방식(토론규칙) 설명 : 후보당 약 4분 정도 ▶ 사회자 Bridge	41분 (36분30초)	24:05:00	MC/S/T	
7	사회자 공통질문 후 자유토론 II	▶ 사회자 Bridge [주제2 : 경제-사회 분야] • 논점 : 경제활성화/ 복지교육 정책 등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조원진/이경희/김선동/남재준/ 이재오/김민찬/윤홍식/오영국/장성민 후보자 답변 후 조원진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자유토론 ▶ MC 진행방식(토론규칙) 설명 : 후보당 약 4분 정도	41분 (36분30초)	25:46:00	수어 MIX	
8	맺음말	▶ 사회자 Bridge • 이경희/김선동/남재준/이재오/김민찬/ 윤홍식/오영국/장성민/조원진 후보자 (각 1분) ※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맺음말 시간 조정 가능	10분 (9분)	25:56:00		
9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1분	25:57:00	S/T F.S	위원 등 소개 (자막)
10	타이틀	엔딩 타이틀	20초	25:57:20	VCR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7. 3. 17.

총 3면

www.debates.go.kr

TEL 02)3473-9947/8

FAX 0505)058-1173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4회 개최
 = ‘초청 대상’ 후보자토론회 3회 개최, 4월 23일·28일, 5월2일 =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초청대상’ 후보자 3회, 그 외 후보자를 대상으로 1회 등 총 4회 개최한다.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는 ▲1차는 4월 23일(일), 정치분야, ▲2차는 4월 28일(금), 경제분야, ▲3차는 5월 2일(화), 사회분야로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초청대상’은 국회에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언론기관이 3월 18일부터 4월 1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가 해당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4월 15일~16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4월 17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초청 대상’ 후보자를 확정한다.

그 외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는 4월 24일 오후 11시부터 2시간동안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공영방송사인 KBS와 MBC를 통해 전국에 동시 생중계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회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국민질문을 공모할 예정이다. 누구든지 후보자에게 궁금한 사항을 인터넷·모바일 웹, 우편·팩스 등으로 질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3월 22일부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www.debate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개요 1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개요

① 개최개요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 개최시기 : 2017. 4. 17(월) ~ 5. 8.(화) ※ 선거운동기간 중
- 초청대상 : 다음 선정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다. 언론기관의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 100분의 5 이상 후보자

※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음.

② 개최일시·장소

- 법 제82조의2제4항에 따른 토론회(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구 분	개최일시	개최장소	중계방송사	토론분야
1차	2017. 4. 23.(일) 20:00 ~ 22:00	KBS 스튜디오	KBS, MBC	정 치
2차	2017. 4. 28.(금) 20:00 ~ 22:00	MBC 스튜디오	KBS, MBC	경 제
3차	2017. 5. 2.(화) 20:00 ~ 22:00	MBC 스튜디오	KBS, MBC	사 회

- 법 제82조의2제5항에 따른 토론회(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토론회)

개최일시	개최장소	중계방송사	토론분야
2017. 4. 24.(월) 23:00 ~ 4. 25.(화) 01:00	KBS 스튜디오	KBS, MBC	국정전반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 국민질문 공모

= 대통령 후보자에게 질문 있습니다! =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에서 후보자에게 물을 국민질문을 공모한다.

이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후보자를 검증하고, 후보자에게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한 것이다.

공모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www.debates.go.kr)와 모바일웹, 우편·팩스 등으로 응모할 수 있다.

공모 기한은 3차례 개최하는 토론회 일정에 따라 ▲ 정치분야(1차 토론회), 4월 16일 ▲ 경제분야(2차 토론회), 4월 23일 ▲ 사회분야(3차 토론회), 4월 27일까지다.

국민질문은 정치·경제·사회 등 토론 주제에 맞게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된다. 가장 많이 접수된 공통 질문 중 일부를 선정하여 TV토론회에서 후보자에게 직접 묻는다.

공모 참가자 중 50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권도 제공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 TV토론회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후보자 TV토론 모니터단’을 4월 7일까지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국민질문 공모 개요 1부.

2.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 모니터단 모집 개요 1부.

대통령후보자에게 질문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 내 용

- ▶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3차례의 TV토론회가 방송됩니다.
- ▶ 토론분야별로 질문을 공모하여 많이 질문한 내용 중 일부를 선정하여 국민질문 코너를 진행합니다.
- ▶ 대통령후보자에게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 경 품 : 총 500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 당첨자 발표 : 2017. 5. 12.(금) 13:00(선물은 발표 후 2주 이내 발송)

◆ 참여방법

- ▶ 공모분야 및 접수기간

토론회 개최	1차[4월 23일(일)]	2차[4월 28일(금)]	3차[5월 2일(화)]
분 야	정치	경제	사회
접수기한	4. 16.(일)	4. 23.(일)	4. 27.(목)

▶ 질문 작성 방법

- 이렇게 작성해주세요 : 공통질문으로 후보자 정책과 비전을 들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 이런 질문은 안돼요 : 후보자 지정 질문, 개인의 민원이나 탄원인 내용,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옹호하는 내용

- ▶ 문의사항은 이메일(debates@nec.go.kr) 또는 전화(02-3473-9947)로 문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 모니터단 모집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효과, 주제 및 진행방식 등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날카로운 판단력으로 평가를 해주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모집내용

- ▶ 지원자격 : 제19대 대통령선거 유권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 ▶ 선발인원 : 50명 정도
- ▶ 신청기간 : 2017. 4. 7.(금)까지
- ▶ 신청방법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http://debates.go.kr>)의 ‘공모하기’ 또는 팩스(02-3473-9949) 신청
- ▶ 발표 : 2017. 4. 13.(목) 09:00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http://debates.go.kr>)에 명단 게시 및 개별 통지

■ 활동내용

- ▶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의 효과, 주제·진행방식 등 평가, 설문 참여
- ▶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청 소감 작성 등

구 분	1차	2차	3차
제19대 후보자 TV토론 일정	2017. 4. 23.(일) 20:00~22:00 정치분야	2017. 4. 28.(금) 20:00~22:00 경제분야	2017. 5. 2.(화) 20:00~22:00 사회분야

■ 선발기준

- ▶ 지원동기 등 지원서 내용을 심사하되, 연령·성별·지역 등을 안배하여 선발

■ 대 우

- ▶ 사전 교육을 필요하고 토론회 평가서(3회)와 소감문을 제출 하신 분께 활동비 지급(회당 50,000원), 우수 소감문을 작성하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 지급

■ 기 타

- ▶ 지원 시 기재한 연령, 성별 등이 허위로 판정되거나 지원 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선발하지 아니하며, 선발 후에는 선발을 무효로 합니다.
- ▶ 문의사항은 이메일(debates@nec.go.kr) 또는 전화(02-3473-9947)로 문의

후보자토론회‘시간총량제 자유토론’방식 결정 = 기초연설 생략, 국민질문 등 참여 확대 =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시간총량제 자유토론 및 스탠딩 토론 방식으로 진행하며, 기초연설은 생략하여 후보자간 충분한 토론시간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제18대 대선 토론회는 후보자 간 질문·답변 시간이 1~3분 정도로 제한되어 후보자가 공약견해를 밝힐 시간이 부족하고 유권자도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가 어려웠고, 후보자가 카메라를 향해 앉아서 토론을 진행하여 토론의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었다.

■ 1·3차 토론회는 시간총량제 자유토론 및 스탠딩 토론

총 3회의 초청대상 토론회 중 1차(정치분야)와 3차(사회분야) 토론회는 시간총량제 자유토론 방식을 도입하여 후보자별로 주어진 발언시간의 총량 내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다른 후보자와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다.

후보자 5인을 기준으로 자유토론 발언시간은 후보자당 총 18분이다.

후보자가 서서 토론하는 스탠딩 방식도 도입했다. 토론회의 긴장감과 역동성을 살리고, 후보자의 몸짓·자세 등도 함께 볼 수 있어 후보자의 다양한 역량을 검증하고 토론회에 대한 몰입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2차 토론회(경제 분야)는 1·3차 토론회와 달리 한 후보자의 정책발표 후 나머지 후보자와 1:1로 질문·답변하는 정책검증 토론을 앉아서 진행한다.

- **기조연설 생략 및 각 분야별 토론주제 2개로 압축, 국민 참여 확대**

사회자 안내멘트를 간소화하고 기조연설을 생략하며 분야별 토론주제도 2개로 줄여 120분의 제한된 시간을 최대한 후보자 토론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후보자와 국민의 소통 확대를 위하여 토론회 시작전, 국민의 바람소망을 담은 인터뷰 영상을 상영하고, 공모로 선정한 국민질문을 후보자에게 공통으로 묻고 답변을 듣는다.

- **서류·도표·그림 등 참고자료 사용 가능**

이번 대선에서는 A3 용지 규격 이내의 서류·도표·그림, 그 밖의 참고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 **후보자토론회 사회자**

후보자토론회 사회자는 ▲ 1차 김진석 KBS 기자 ▲ 2차 박용찬 MBC 논설위원실장 ▲ 3차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이며, 비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는 ▲ 백운기 KBS 앵커가 각각 진행한다.

한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4월 10일(월)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국정운영 방안 등 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의 입장 등을 듣는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KBS·MBC·SBS를 통해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 붙임 1.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1부.
2.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개요 1부. 끝.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 1차3차 초청 후보자토론회(5인 기준)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국민인터뷰	인트로 영상(국민인터뷰)	1분
사회자 공통질문 (또는 국민질문)후 후보자 자유토론	주제 1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A/B/C/D/E 후보자 답변 후 A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자유토론	91분 (후보자당 총 18분)
	주제 2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C/D/E/A 후보자 답변 후 B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자유토론	
맺음말	•C/D/E/A/B 후보자(각 1분)	5분

■ 2차 초청 후보자토론회(5인 기준)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국민인터뷰	인트로 영상(국민인터뷰)	1분
후보자 상호간 정책 검증토론 (후보자 모두발언 후 1:1자유토론)	주제 : 각 후보자의 경제분야 주요 정책 •A 후보자 정책발표(3분) B 후보자와 A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C 후보자와 A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D 후보자와 A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E 후보자와 A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95분
	•B 후보자 정책발표(3분) C 후보자와 B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D 후보자와 B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E 후보자와 B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A 후보자와 B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C 후보자 정책발표(3분) D 후보자와 C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E 후보자와 C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A 후보자와 C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B 후보자와 C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D 후보자 정책발표(3분) E 후보자와 D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A 후보자와 D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B 후보자와 D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C 후보자와 D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E 후보자 정책발표(3분) A 후보자와 E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B 후보자와 E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C 후보자와 E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D 후보자와 E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맺음말	•B/C/D/E/A 후보자(각 1분)	5분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 개요

1. 개최일시·장소

- 개최일시 : 2017. 4. 10.(월) 10:00 ~ 12:00
- 개최장소 : KBS 스튜디오(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2. 중계방송

- KBS·MBC·SBS 텔레비전 : 2017. 4. 10.(월) 10:00 ~ 12:00

3. 토 론 자

- | | | |
|----------|-------------|-------|
| ○ 더불어민주당 |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 홍 익 표 |
| ○ 자유한국당 | (전)여의도연구원장 | 김 종 석 |
| ○ 국민의당 | 수권비전위원장 | 김 성 식 |
| ○ 바른정당 | 사무총장 | 김 세 연 |
| ○ 정의당 | 부대표 | 이 정 미 |

4. 사 회 자 : 백 운 기(KBS 앵커)

5. 토론주제

- 주제 1 :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
- 주제 2 : 경제 활성화

6. 토론진행방식

- 기조연설 ⇒ 사회자 공통질문 ⇒ 자유토론 ⇒ 맺음말

7. 주관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19대 대선 후보자토론회 토론주제 결정

= 1차 토론회 대북정책·정치개혁방안, 3차 토론회 국민통합방안 토론 =

후보자 정보와 공약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4월 14일 위원회의를 열고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토론주제를 결정하였다.

3회에 걸친 후보자토론회 중 스탠딩토론으로 진행되는 ▲ 1차 토론회(4월 23일) 정치분야 주제는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 ‘권력기관 및 정치개혁 방안’, ▲ 3차 토론회(5월 2일) 사회분야는 ‘복지·교육정책’, ‘국민통합 방안’이다. 후보자는 주제별로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답한 후 총 18분의 발언시간 내에서 자유토론을 이어가게 된다.

1차, 3차 토론회별 사회자 공통질문은 4월 21일과 30일에 각각 정하며, 국민질문 공모를 통하여 가장 많이 접수된 질문도 일부 선정한다.

정책검증 토론으로 진행되는 2차 토론회(4월 28일) 경제분야는 정해진 주제 없이 후보자가 주요 경제 정책을 발표한 후, 후보자간 1:1 토론하게 된다.

한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민참여 토크톡(TalkTalk)!’ 행사를 서울역(4월 14일~15일)과 용산역(4월 16일)에서 개최한다. 누구든지 토론회 주제별로 자신의 바람을 담은 인터뷰를 하고, 국민질문도 제출할 수 있다. 인터뷰 영상과 국민질문은 후보자토론회에서 볼 수 있다.

또한, 가족친구 등과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사진을 찍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인증샷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1차 후보자토론회 개최

= 4월 23일 오후 8시, 외교·안보·대북정책, 권력기관·정치 개혁방안 토론 =

후보자 정보와 공약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4월 23일 KBS 스튜디오에서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1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자는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홍준표(자유한국당), 안철수(국민의당), 유승민(바른정당), 심상정(정의당) 후보로 총 5명이다.

토론 주제는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1주제)’과 ‘권력기관 및 정치 개혁 방안(2주제)’이다. 1주제에 관한 질문은 토론회를 시작하기 전에 공모를 통해 접수된 국민질문 중에서 선정한다. 2주제에 관한 공통질문은 “현행 헌법 하의 대통령 권력에 대한 평가와 집권 후 검찰, 청와대, 국정원 등 개혁을 위한 우선 조치사항”으로 결정됐다.

토론회는 스탠딩 방식으로 진행되며, 후보자는 2가지 주제에 대해 총 18분 내에서 다른 후보자와 자유롭게 토론하고, 맺음말은 1분 정도 할 수 있다.

그 외 9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는 4월 24일 KBS 스튜디오에서 저녁 11시부터 2시간동안 개최된다. 정치·외교와 사회·경제 분야를 주제로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대해 후보자별로 10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면 된다.

KBS와 MBC, SBS 텔레비전·라디오를 통하여 생중계되며, 4월 24일부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TV토론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붙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요 1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요

참석 대상 후보자 명단

구 분	기 호	소속정당명	후보자 성명
4. 23.(일) 토론회 ※ 의석수 5석 이상, 직전 선거 3% 이상 득표율 등 기준을 충족하는 후보자(초청대상) 「공직선거법」제82조의2제4항	1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2	자유한국당	홍준표
	3	국민의당	안철수
	4	바른정당	유승민
	5	정의당	심상정
4. 24.(월) 토론회 ※ 초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자 「공직선거법」제82조의2제5항	6	새누리당	조원진
	7	경제애국당	오영국
	8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9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10	민중연합당	김선동
	11	통일한국당	남재준
	12	한국국민당	이경희
	14	홍익당	윤홍식
15	무소속	김민찬	

※ 기호13번 김정선 후보(한반도미래연합) : 4. 21. 사퇴

사회자

- ① 4월 23일(일) 1차 토론회 : 김진석 KBS기자
- ② 4월 24일(월) 토론회 : 백운기 KBS앵커

▪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① 4월 23일(일) 1차 토론회 : 후보자 5명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국민인터뷰	인트로 영상(국민인터뷰)	1분
사회자 공동질문 (또는 국민질문)후 후보자 자유토론	주제 1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	91분 (후보자당 총 18분)
	•사회자 공동질문(30초) ➡ A/B/C/D/E 후보자 답변 후 A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자유토론	
	주제 2 권력기관 및 정치개혁 방안	
	•사회자 공동질문(30초) ➡ B/C/D/E/A 후보자 답변 후 B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자유토론	
맺음말	•C/D/E/A/B 후보자(각 1분)	5분

② 4월 24일(월) 토론회 : 후보자 9인 대상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국민인터뷰	인트로 영상(국민인터뷰)	1분
기조연설	• A/B/C/D/E/F/G/H/I 후보자	91분 (후보자당 총 10분)
사회자 공동질문 후 후보자 자유토론	주제 1 : 정치·외교 분야 -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 - 권력기관 및 정치 개혁 방안 등	
	•사회자 공동질문(30초) ➡ B/C/D/E/F/G/H/I/A 후보자 답변 후 B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자유토론	
	주제 2 : 경제·사회 분야 - 경제 활성화 - 복지·교육 정책 등	
	•사회자 공동질문(30초) ➡ C/D/E/F/G/H/I/A/B 후보자 답변 후 C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자유토론	
맺음말	•D/E/F/G/H/I/A/B/C 후보자(각 1분)	9분

제19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토론회 개최

= 4월 28일 오후 8시, 경제 정책 검증 토론 =

후보자 정보와 공약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선거방송(eTV) 채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4월 28일 MBC 스튜디오에서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2차 토론회는 1차 토론회와 달리 한 후보자의 경제분야 정책발표 후 나머지 후보자와 1:1로 자유 토론하는 정책검증 토론 으로 진행한다.

2차 토론회는 앞서서 진행하며 후보자는 총 19분내에서 토론하고 맺음말은 1분 정도 할 수 있다. KBS와 MBC, SBS, YTN 텔레비전·라디오를 통하여 생중계되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후보자 TV토론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또한 가족친구 등과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사진을 찍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인증샷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중앙토론회에서는 이번 토론회가 네거티브식 토론보다는 각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초점을 맞춘 토론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요 1부

[붙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요

1. 개최일시·장소 등

구분	개최일시	개최장소	중계방송사	사회자	토론분야
2차	2017. 4. 28.(금) 20:00 ~ 22:00	MBC	MBC, KBS, SBS ,YTN	박 용 찬 (MBC 논설위원실장)	경제분야

2. 토론자

기 호	소속정당명	후보자 성명
1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2	자유한국당	홍준표
3	국민의당	안철수
4	바른정당	유승민
5	정의당	심상정

3.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국민인터뷰	인트로 영상(국민인터뷰)	1분
후보자 상호간 정책 검증토론 (후보자 모두발언 후 1:1자유토론)	주제 : 각 후보자의 경제분야 주요 정책	9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후보자 정책발표(3분) B 후보자와 A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C 후보자와 A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D 후보자와 A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E 후보자와 A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B 후보자 정책발표(3분) C 후보자와 B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D 후보자와 B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E 후보자와 B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A 후보자와 B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C 후보자 정책발표(3분) D 후보자와 C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E 후보자와 C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A 후보자와 C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B 후보자와 C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D 후보자 정책발표(3분) E 후보자와 D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A 후보자와 D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B 후보자와 D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C 후보자와 D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E 후보자 정책발표(3분) A 후보자와 E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B 후보자와 E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C 후보자와 E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D 후보자와 E 후보자간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맺음말	•B/C/D/E/A 후보자(각 1분)	5분

제19대 대통령선거, 마지막 후보자토론회 개최

= 5월 2일 오후 8시, 복지·교육 정책 및 국민통합 방안 토론 =

후보자 정보·공약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

한국선거방송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5월 2일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MBC 스튜디오에서 이번 대통령선거의 마지막 후보자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 주제는 ‘복지·교육 정책(1주제)’과 ‘국민통합 방안(2주제)’이다. 1주제에 관한 공통질문은 “복지·교육 관련 공약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려는 공약과 다른 후보와 차별성이 뚜렷한 공약”으로 결정됐으며, 2주제에 관한 질문은 토론회 시작 전 공모를 통해 접수된 국민질문 중에서 선정한다.

3차 토론회는 1차 토론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후보자는 2가지 주제에 대해 총 18분 내에서 다른 후보자와 자유롭게 토론하고, 맺음말은 1분 정도 할 수 있다.

KBS와 MBC, SBS, YTN 텔레비전·라디오를 통하여 생중계되며, 중앙 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후보자 TV토론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또한 가족친구 등과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사진을 찍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인증샷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중앙토론회에서는 이번 토론회가 제19대 대통령선거의 마지막 후보자 토론회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시청과 관심을 바란다 고 밝혔다.

붙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요 1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요

1. 개최일시장소 등

구분	개최일시	개최장소	중계방송사	사회자	토론분야
3차	2017. 5. 2.(화) 20:00 ~ 22:00	MBC	MBC, KBS, SBS ,YTN	이 정 희 (한국외대 교수)	사회분야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및 자막방송 실시

2. 토론자

기 호	소속정당명	후보자 성명
1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2	자유한국당	홍준표
3	국민의당	안철수
4	바른정당	유승민
5	정의당	심상정

※ 토론회는 스탠딩방식으로 진행되며, 발언순서 및 좌석 배치는 사전추첨에 의해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안철수 순으로 정해짐.

3.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국민인터뷰	인트로 영상(국민인터뷰)	1분
사회자 공동질문 (또는 국민질문)후 후보자 자유토론	주제 1 복지·교육정책	91분 (후보자당 총 18분)
	•사회자 공동질문(30초)⇒ A/B/C/D/E 후보자 답변 후 A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자유토론	
	주제 2 국민통합 방안	
	•사회자 공동질문(30초)⇒ B/C/D/E/A 후보자 답변 후 B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자유토론	
맺음말	•C/D/E/A/B 후보자(각 1분)	5분

제19대 대선 후보자토론회 평가 심포지엄 개최

= 7. 12.(수)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각계 전문가 참여 =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1390

한국선거방송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7월 12일(수)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와 공동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는 처음으로 후보자별 시간총량제, 스탠딩 토론 방식을 도입하여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고 판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초청대상 후보자수가 많고, 특정 후보자에게 질문이 집중되는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토론회는 이번 심포지엄이 후보자토론회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성숙한 선거문화를 위한 선거방송토론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포지엄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운영과 개선방안 및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등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성균관대 이상철 교수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운영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제하며, 토론자로는 유경한 한국외대 미네르바교양대학 교수, 이영음 한국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박용찬 MBC 논설위원실 실장,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오미영 위원 및 이주현 사무국장이 참여한다.

제2세션에서는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에 대하여 발제하며, 김신동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허익범 위원과 최영돈 방송토론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심포지엄에 참석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 100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면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뜻 깊은
담론의 장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심포지엄 개요 1부.

[붙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심포지엄 개요

1. 행사개요

- 일 시 : 2017. 7. 12.(수) 15:00~18:0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서울 중구 소재)
- 주 최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한국언론학회

2. 진행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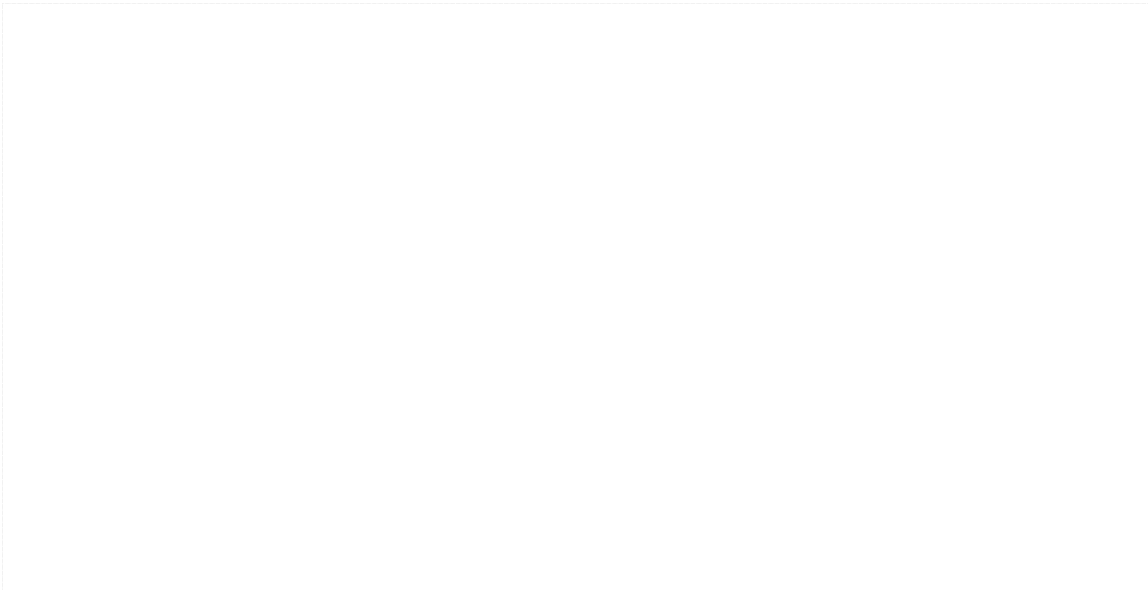
구분	시 간	내 용	비 고
개회	15:00~15:01	1' · 개회 및 국민의례	
	15:01~15:02	1' · 내빈소개	
	15:02~15:08	6' · 개회사 최은수(중앙토론회 위원장, 양승찬(한국언론학회 부회장)	
	15:08~15:11	3' · 축사 문상부(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제1부	15:15~16:30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운영과 개선방안 · 발제 : 이상철(성균관대 학부대학 교수) ·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경한(한국외대 미네르바교양대학 교수) - 이영음(한국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 박용찬(MBC 논설위원실 실장) - 오미영(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 이주현(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 	
휴식	16:30~16:40	10'	
제2부	16:40~18:00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 발제 : 이소영(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신동(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조희순(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배종찬(리서리앤리서치 본부장) - 허익범(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 최영돈(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방송토론팀장) 	
폐회	18:00	· 마무리 및 폐회	

1) 후보자토론회 주요 언론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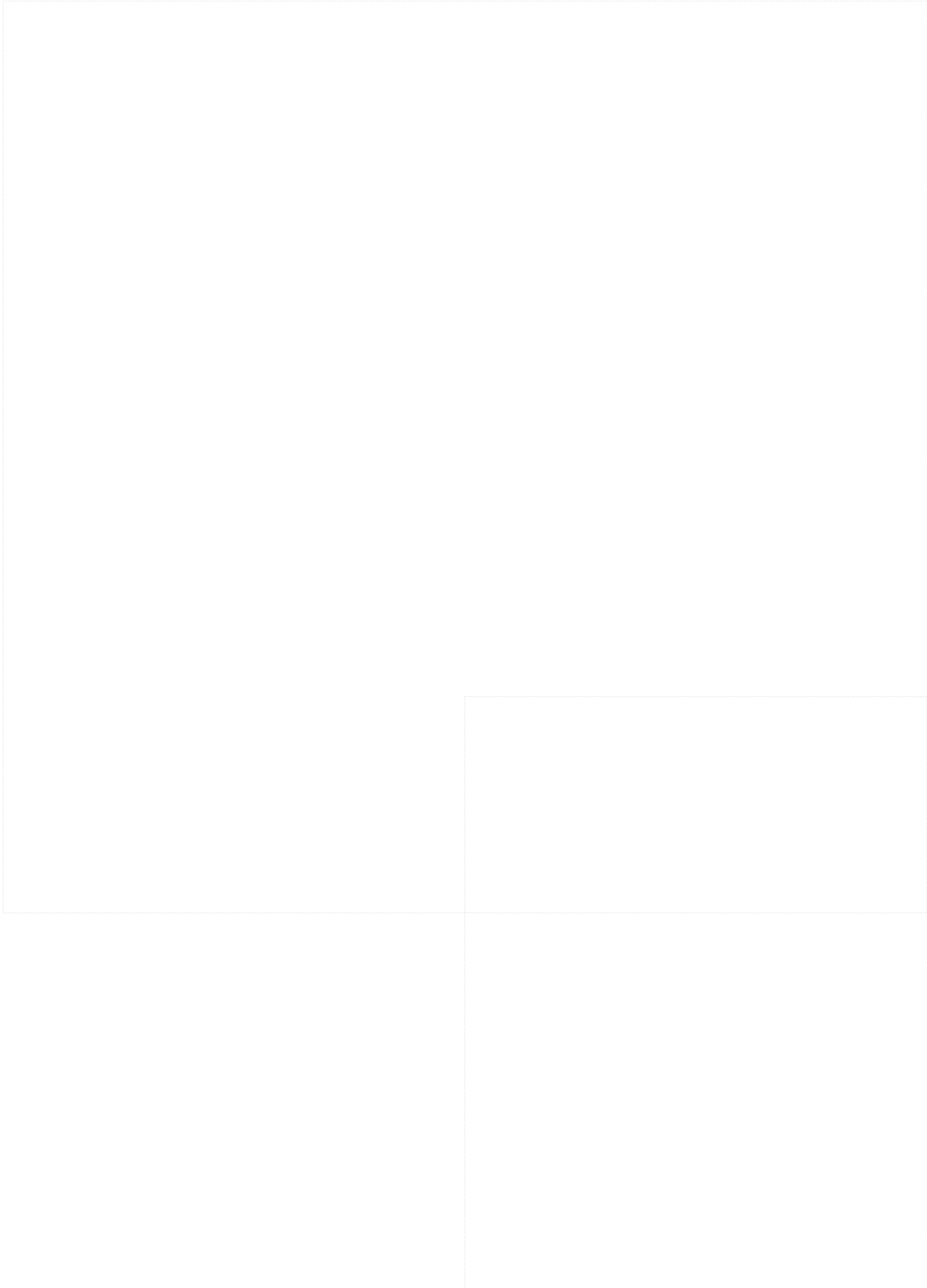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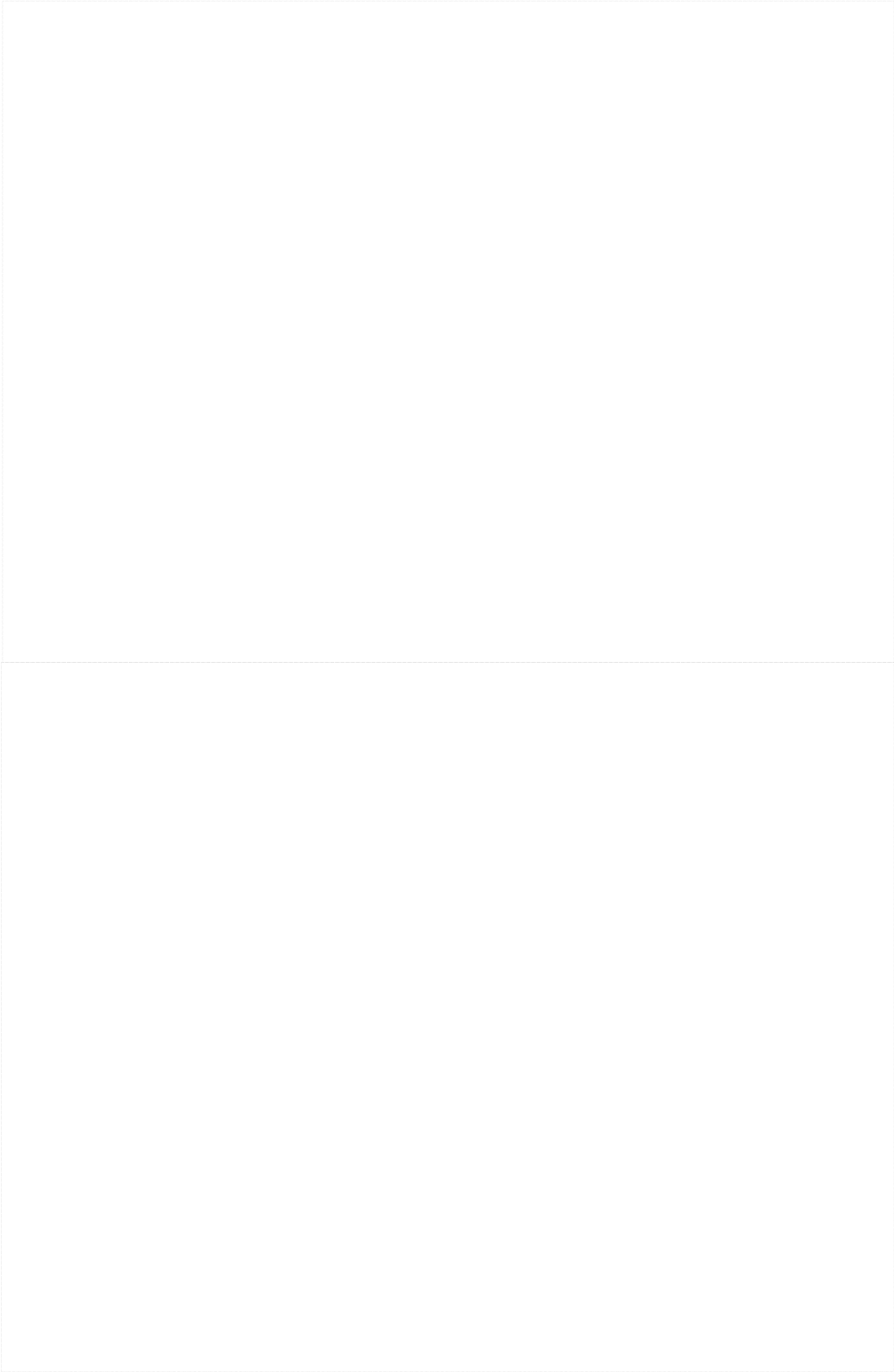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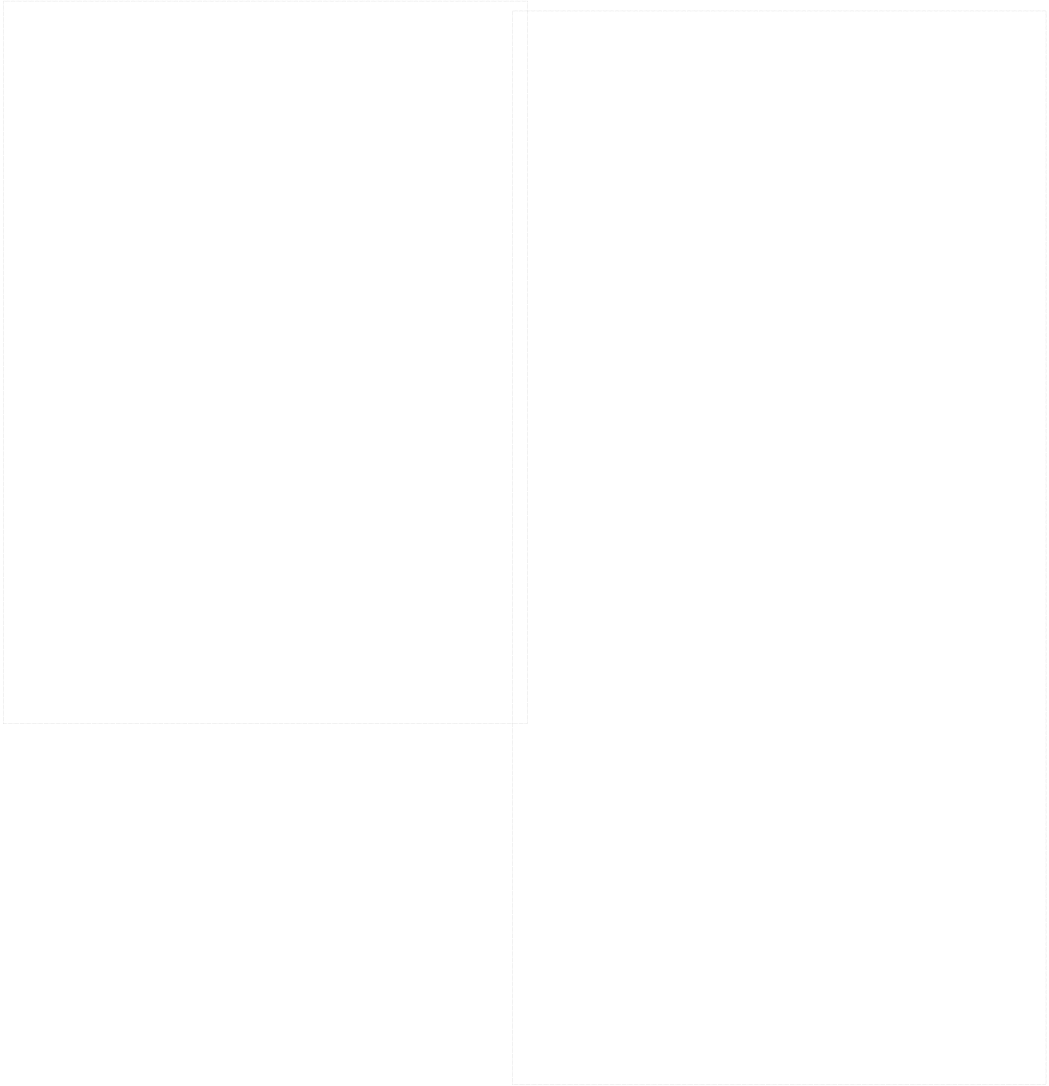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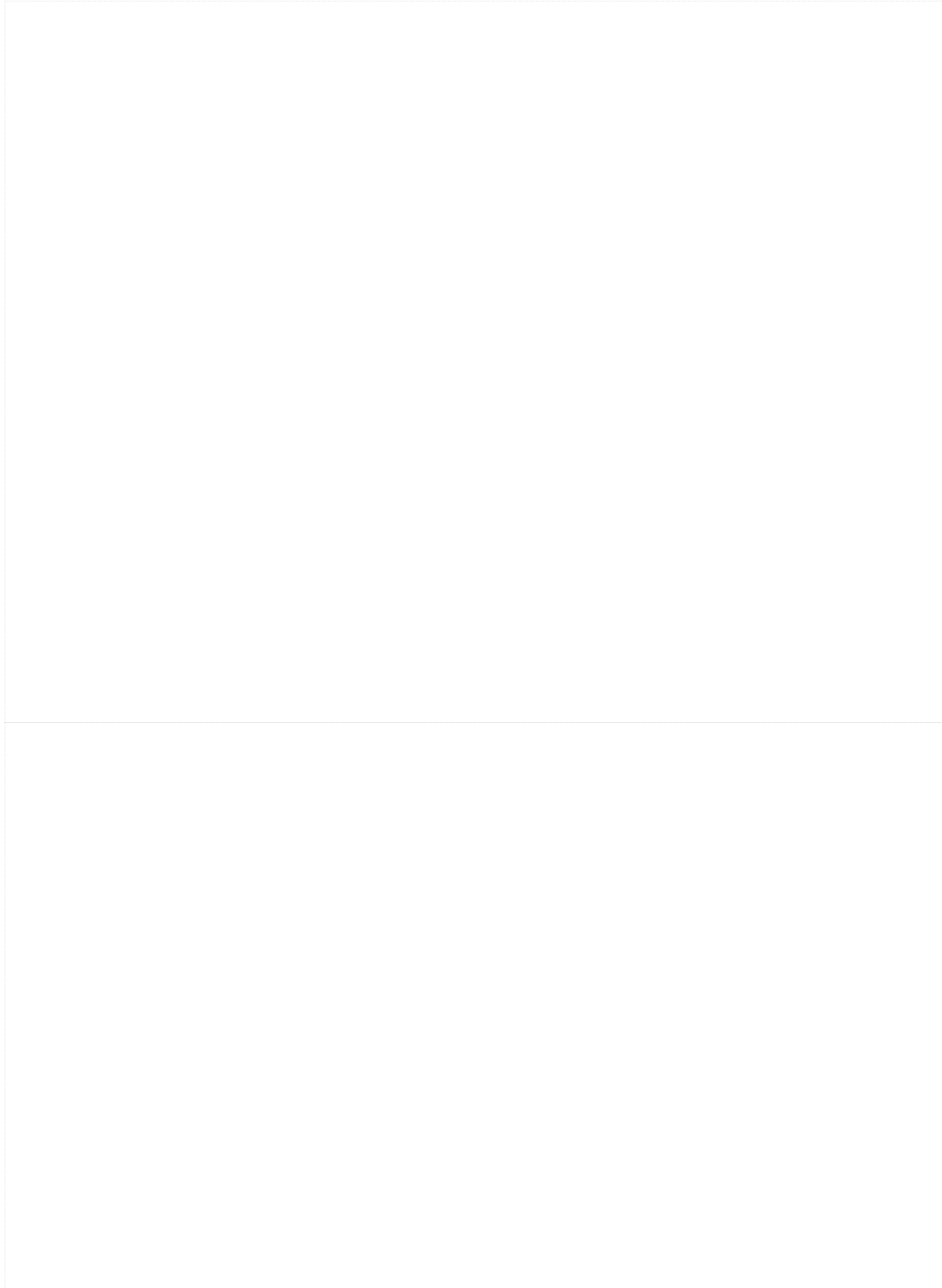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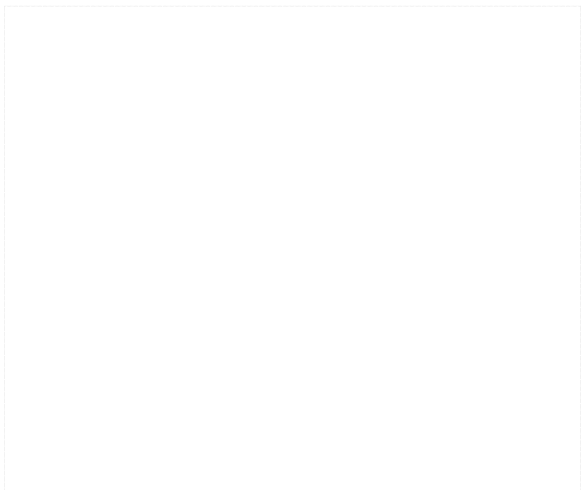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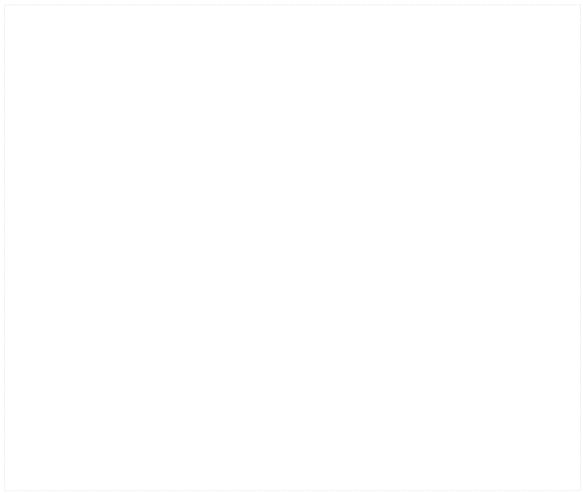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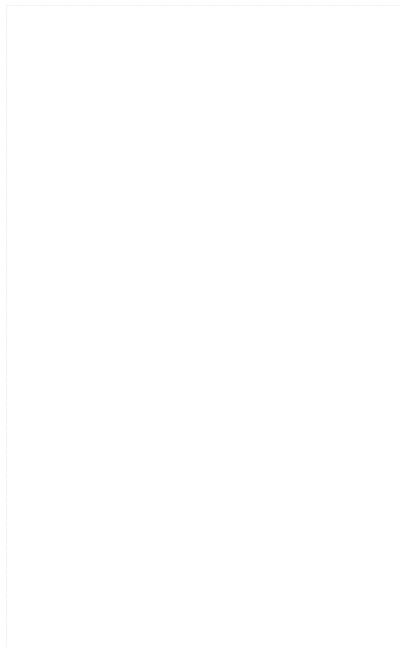












2) 후보자토론회 언론보도 분석⁶⁶

2017년 6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관련 언론보도의 분석을 (사)미디어전략연구소에 의뢰하였다. 연구는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장석준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하여 2017년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었다.

(1) 문제 제기

국내의 TV토론은 여러 차례의 선거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정치과정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와 동시에 TV토론의 효과와 영향력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TV토론의 유권자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는 단계에 머무르면서 확장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최근의 TV토론 연구의 다양한 접근 중 하나로 여겨지는 분야가 TV토론의 언론 보도 분석이다. 언론은 TV토론을 통하여 새로운 형식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형성해 나아가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선거캠페인과 유권자에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TV토론에서의 분야별 쟁점 및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만 언론의 TV토론에 대한 보도의 태도는 심도 깊은 탐사 보도보다는 토론회의 승패, 토론회 후의 지지도 변화 등의 언론 보도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19대 대통령 후보자 TV토론의 언론분석을 실시함으로써 TV토론 연구의 확대를 시도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보수지와 진보지의 TV토론 보도의 특징과 TV토론에 대한 평가적 관점의 기사의 특징 그리고 헤드라인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TV토론의 역할을 숙의와 담론 형성을 위한 공론장을 가진 참여민주주의 관점으로 논의하면 첫째, 유권자에게 정치 및 선거 이슈에 대한 정보와 후보자 자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습효과(learning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TV토론은 정치적 관심

66 이 내용은 연구 수행기관의 요약 보고서이며, 연구 의뢰기관과는 무관함.

을 발생시킴으로써 선거와 정치에 대한 참여 증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 셋째, TV토론은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한다(Lemert et al., 1991; 이미영, 2004). 즉, TV토론은 학습효과, 정치 참여,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순기능을 참여 민주주의 과정에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TV토론 효과연구를 통하여 TV토론은 후보의 정책, 이미지 그리고 인성 등의 지식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이며 유권자의 개인적 성향, 정당지지 성향, 정치지식, 정치 효능감, 매체 의존도 등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권혁남, 2011; 이강형; 2004; Kraus, 1988; Sears and Chaffee, 1979). 특히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선거 초반에는 TV토론이 후보자의 정치적 입장과 인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후보자에 대한 평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내의 TV토론 언론보도 연구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후보지지도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미디어의 힘에 의해 중재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TV토론 직후 언론보도는 토론회에 대한 기억과 특히 토론 승패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TV토론 이후 언론이 어떠한 방식으로 보도하는지에 대해 내용분석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3) 연구방법

가. 연구문제

- 1) TV토론 신문보도의 특징(기사유형, 보도주체, 보도태도, 정책 및 쟁점비교, 사설의 경향성)은 어떠한가?
- 2) TV토론 신문보도 평가기사의 특징(주체 및 내용의 다양성)은 어떠한가?
- 3) TV토론 신문보도 헤드라인 제목의 유형은 어떠한가?

나.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의 언론보도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선정한 언론사는 일반적으로 보수적 성향으로 알려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하는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총 4개의 신문사이다. 이는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고 연구 분석의 균형을 가지고 있기 위함이며 4개의 신문사 모두 중앙 일간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기간은 제19대 대통령선거 제1차 후보자 TV토론이 개최된 2017년 4월 13일 다음 날인 2017년 4월 14일부터 대선 투표일인 5월 9일 전날인 5월 8일까지 총 25일 동안 4개 신문사의 대선 TV토론과 관련된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기사는 조선일보 103건, 중앙일보 124건, 한겨레신문 72건, 경향신문 109건으로 총 408건이다.

다. 분석유목

연구문제 1)에 대한 분석유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TV토론 기사 유형

- 과정 : 토론회 형식논의, 개최전망, 준비과정, 개최안내
- 내용 : 요약보도 스트레이트, 지상중계, 차이비교, 스케치
- 평가 : 종합적인 평가, 형식과 진행에 대한 평가, 정책·이미지, 토론결과
- 영향 : 여론조사 결과, 시청률
- 기타 : 발언공방, 사이버 공방, 토론회 기대

2) TV토론 보도주체

- 기자
- 데스크취합 : 여러 명의 기자가 하나의 기사를 제공한 경우
- 내부기고 : 사실, 정치부장, 본사 논설위원
- 외부기고 : 교수, 연구원, 여론조사 전문가, 소설가, 시민단체, 심리학자
- 기타 : 보도주체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3) TV토론 보도방식

- 사실중심의 보도 : 객관적 내용전달
- 평가중심의 보도 : TV토론의 기사 작성 주체의 평가적 요소

4) TV토론 보도의 종류

- 정책관련 기사 : TV토론 중 후보자의 정책을 다룬 기사
- 이미지관련 기사 : TV토론 중 후보자의 이미지를 다룬 기사

5) TV토론 관련 일반기사의 보도태도

-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6) TV토론 관련 사설의 보도태도

-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7) TV토론 형식 및 진행방식 보도 유무

- 있음, 없음

연구문제 2)에 대한 분석유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평가 주체의 다양성

- 기자 및 언론인, 전문가, 정당관계자, 시민단체, 일반시민, 기타

2) 평가 내용의 형식

- 토론방식, 종합적, 정책, 이미지, 토론결과, 기타

연구문제 3)에 대한 분석유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헤드라인 제목의 유형

- 보고 : 일반보고, 인용보고
- 단정 : 옳고 그름, 찬성 반대
- 평가 : 해설적 의미
- 추론 :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진술

2) 헤드라인 제목의 균형

- 중립적 : 특정후보 언급없고 토론 주제와 관련
- 주요후보부각 :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후보가 헤드라인에 언급된 경우
- 기타 : 정당 등이 언급된 경우

(4) 연구결과와 결론

TV토론 기사의 유형은 전체적으로 ‘내용’과 ‘평가’에 대한 기사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등의 진보지가 상대적으로 TV토론 ‘평가’에 대한 기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V토론 보도의 주체와 관련된 항목에서는 ‘기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조선일보의 경우 ‘내부기고’의 비율이 다른 언론사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TV토론과 관련한 언론사의 목소리를 강조하고자 함으로 해석된다. TV토론 보도의 방식에서는 한겨레신문이 평가 중심 기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TV토론 관련한 기자의 주관적 견해의 피력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TV토론 보도의 종류에서는 정책관련기사와 이미지관련 기사가 비슷한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진보지인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이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한겨레신문은 정책관련 기사가 적은 것으로 경향신문은 정책관련 기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V토론 기사보도 방식 태도에서는 보수지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부정적 기사가 높은 양상을 보여주었으며 진보지인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긍정적 기사와 부정적 기사의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실보도 방식 태도에서도 보수지인 조선일보가 부정적 기사의 빈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TV토론 관련 조선일보 기사의 전체적인 경향성은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것은 진보정당의 후보가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하고 있었던 이번 대선 캠페인의 특징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추가적으로 이번 대선 TV토론의 형식과 진행방식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와 관련된 기사의 빈도는 전체기사 중 11.9%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가기사의 주체는 ‘기자’와 ‘전문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한겨레신문의 경우 ‘일반시민’의 비중이 높은 것은 특이할 만한 점이었다. 평가기사의 내용 형식면에서는 한겨레신문이 정책에 대한 평가 기사가 많았으며 조선일보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된 것이 특징적인 점이었다.

마지막으로 헤드라인 제목의 유형과 관련해서는 진보지인 경향신문이 객관적 보도의 양태를 보여주는 ‘보고’의 항목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한겨레신문은 상대적으로 ‘추론’의 항목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헤드라인 제목의 균형은 ‘주요후보부각’의 편향성 부분이 지적될 수 있는 항목으로 경향신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한겨레신문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TV토론의 언론 보도의 양태가 경마식 보도나 승패에 집중되고 있는 경향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비판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경향성을 이번 대선 TV토론 언론보도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인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의 경우 완벽한 객관성을 지니기에는 한계점을 갖고 있기에 본 연구의 결과도 분석 유목과 선정된 언론사의 경우로 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 TV토론에서 언급되었던 후보자들의 정책관련 기사에 대한 관심도와 평가 중심의 언론보도가 이번 TV토론 언론 보도에서 그 비중이 적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보수지의 이번 TV토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기사를 살펴볼 수 있었지만 이데올로기로 인한 진보지와 보수지의 편향성 논란도 크게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함께 실시된 제19대 대선에서 실시된 TV토론의 다양한 시도와 함께 보수지와 진보지의 정파적 보도의 문제점이 개선된 TV토론 언론 보도의 모습을 알 수 있었다.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연구 결과⁶⁷

2017년 3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후보자토론회의 역할 및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연구용역 사업을 공모하였다. (사)한국정치학회가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연구는 2017년 4월에서 6월까지 총 3개월간 진행되었다.

1) 서론

후보자토론회는 유권자들의 후보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만큼 유권자들이 후보자 간 비교를 통해 합리적 투표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일차적 목표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능한 한 많은 유권자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후보자토론회는 변화하는 유권자들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네트워크 시대를 맞이하여 가속화된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후보자토론회가 생방송 시간의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공유되며 확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번 제19대 대선의 후보자토론회는 과거에 비해 훨씬 중요한 선거 정보원으로 작용하면서 역대 가장 많은 유권자들에게 노출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컸지만 후보 검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던 이번 제19대 대선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후보자토론회가 매우 중요한 기제로 활용되었다.

67 본 내용은 연구 수행기관의 분석 요약보고서이며, 연구 의뢰기관과는 무관함.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이번 후보자토론회의 흥미성, 유익성, 공정성 등에 대해 유권자들은 상당히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실제로 선거에 대한 관심도나 정책에 대한 인지, 후보자의 자질 및 능력 비교 등에 있어 후보자토론회가 상당한 정도의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는 다양한 토론회 방식이 시도되면서 토론회 방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시청자들의 흥미를 제고하는 데에도 일조하였다.

그러나 후보자토론회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제도적으로나 효과에 있어서, 그리고 유권자들의 기대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후보자토론회는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번 대선의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토론회 방식과 횟수, 시간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은 물론이고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는 유권자들에게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 받음으로써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신뢰하고 활용하는 선거캠페인의 중심 기제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및 국정수행능력을 비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 대선 과정의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의 정치적 인식과 태도 및 참여, 그리고 후보자 선택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다각적 분석이 요구된다. 더불어, 수많은 정보에 노출되는 오늘날의 유권자들의 요구를 후보자 토론회가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함께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 위에서 본 연구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를 다각적 차원에서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그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현재의 후보자 토론회가 가지는 장단점을 진단하고 향후 후보자토론회의 발전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분석

한국 선거에서 후보자토론회가 도입된 이후 후보자토론회는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후보자토론회는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후보자토론회의 형식 등은 꾸준히 변화해왔다. 예컨대 제15대 대선에서는 후보자 1인에 여러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질의답변하는 기자회견식의 후보자토론회가 열렸지만, 현재는 후보자 간 직접 충돌하여 토론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타운홀미팅식 토론회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는 대개 호의적인 편이다. 특히 시청도를 통해 본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도, 유용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1997년 대선 후보자토론회에서는 후보자간 인신공격이 주를 이뤄 진정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일반 시민들의 지적이 있었고, 2007년에서도 후보자토론회의 가장 큰 문제로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 행해진다는 것이 꼽히고 있다. 이외에는 후보자들에게 충분한 발언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상당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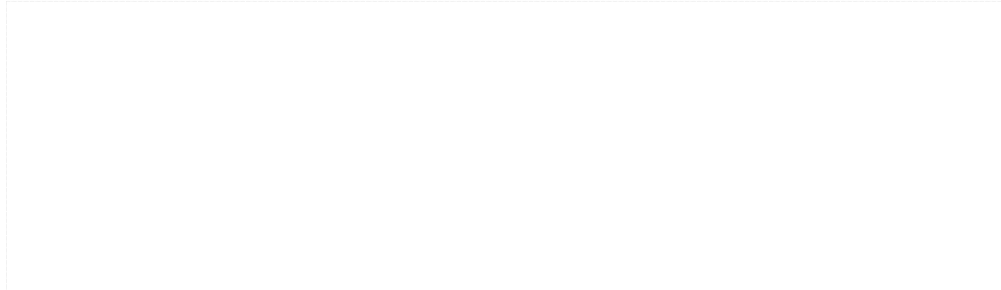
국내·외 후보자토론회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학습, 참여, 선택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한다. 유권자들은 후보자토론회 시청을 통해 정치, 사회문제를 학습하여 인지적 수준, 다시 말해 후보자의 정책공약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유권자들이 정치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인지적 자원을 제공하여 투표의향, 후보 지지의견 표명 등 참여적 행위를 자극하는 효과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면서 얻은 지식과 정보는 시민들이 주변 사람들과 정치적 대화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가장 결정적인 효과는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파악하여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기존에 지지하던 후보를 더욱 지지하게 되는 강화효과가 훨씬 우세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내용과 범위

본 연구는 제19대 대선 후보자토론회의 제도,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인식, 후보자토론회의 효과와 관련한 유권자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각 영역별 분석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연구의 범위



제도적 측면에서는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 횟수, 시간, 진행방식을 중심으로 빈도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어떠한 요인들이 응답자들의 선호를 구성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부가적으로 시도하였다.

인식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후보자토론회 자체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과 평가를 조사하였다. 후보자토론회를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인지도), 어느 정도 관심을 두는지(관심도), 흥미를 유발하는지(흥미성), 유용한 정보의 제공자로 인식하는지(유용성),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지(공정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과 평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를 심리·인지적, 태도, 참여, 선택의 효과로 나누어 분석한다. 토론회가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인지적 영역과 정책 및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후보자토론회가 정치과정의 다양한 영역에서 유권자의 정치행태를 결정하는 유용한 기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빈도분석과 더불어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의 후보자 선호, 정책인지, 선거관심, 후보자 결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변인과 정치심리학적 변인을 통제한 상황에서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2) 조사 방법

본 연구는 제19대 대선 후보자토론회 전후에 각각 동일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는 패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14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들 중 약 67%인 1,011명이 사후조사에 응답하였으며, 사후보정 후 1,000명의 표본을 확보하였다. 표본은 RDD 방식으로 추출하였으며 가구전화 및 휴대전화를 통한 컴퓨터 지원 전화조사(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한 후 지역

별, 성별, 연령별로 데이터를 보정하였다.

본 연구의 패널은 토론회 시청에 동의한 유권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평균 유권자들에 비해 정치적인 관심이나 효능감, 정책인지도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모집단인 전체 토론회 시청자들에서도 예상되는 바이다.

본 조사의 데이터는 아래 표와 같이 구성된다.

표 1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조사설계

조사 대상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 방법	전화면접조사(CATI) : 동일 대상자에게 후보자토론회 개최시점을 전후로 설문조사 진행
조사 기간	사전조사 : 2017년 4월 20일 ~ 4월 22일 (3일간) 사후조사 : 2017년 5월 10일 ~ 5월 15일 (6일간)
표본수	사전조사 : 총 1,514명 조사 후 지역/성/연령별 사후보정 사후조사 : 총 1,011명 조사 후 지역/성/연령별 사후보정 패널유지율 : 66.8%
표본추출 방법	가구전화 RDD + 휴대전화 RDD (Random Digit Dialing)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 3.1% point
조사 기관	리서치앤리서치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설문 문항은 <표 2>와 같다. 이 문항들 외에 응답자의 연령, 거주지, 교향, 성별, 교육수준, 가구 월평균 소득, 고용상태, 직업, 지지 정당, 이념 등에 관한 질문 문항이 포함되었다.

표 2 설문 문항 구성

설문문항	사전조사	사후조사
후보자토론회 시청 의향 또는 시청 여부	√	√
토론회 시청 횟수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시청 여부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시청 횟수		√
제19대 대선에 대한 관심도	√	√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도		√
후보자 선택 시 주요 고려 요인	√	
대선 투표 의향 또는 투표 여부	√	√
제18대 대선 투표 후보	√	
제19대 대선 투표 후보		√

설문문항	사전조사	사후조사
제18대 대선 당시 후보자토론회 시청 여부	√	
제18대 대선 후보자토론회가 투표참여 의향에 미친 영향	√	
제18대 대선 후보자토론회가 투표결정에 미친 영향	√	
내적 효능감: 누구에게 투표하는가가 중요	√	√
외적 효능감: 누가 권력을 잡느냐가 중요	√	√
공중파를 통한 후보자토론회 진행 필요성에 대한 의견	√	
정치상식·지식	√	
후보자 호감도	√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 4회 횟수 충분성	√	
후보자토론회 7회 횟수 충분성		√
후보자토론회 시간의 적절성		√
여론조사 상위권 주요 후보들만의 토론회 필요성		√
후보자토론회 진행 방식 선호		√
후보자토론회 진행 방식: 스탠딩 자유토론 만족도		√
후보자토론회 진행 방식: 상호 간 정책 검증 방식 만족도		√
후보자토론회를 통한 후보자 자질, 정책, 국정수행능력 비교		√
후보자 정책 공약 인지도	√	√
후보자토론회에서 나온 개별 후보자 정책공약에 대한 인지		√
후보자토론회를 통한 새로운 이슈 습득 여부		√
후보자토론회를 통한 이슈 관심도 제고		√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 주변 사람들과 대화		√
후보자토론회에서 가장 잘 검증된 영역		√
후보자토론회를 통한 대선 쟁점 정보 획득 효과성		√
후보자토론회를 통한 선거정보 획득 효과성	√	
후보자토론회 진행의 공정성	√	√
후보자토론회의 흥미성	√	√
후보자토론회의 유익성	√	√
제19대 대선 후보자토론회가 지지후보 결정에 미친 영향 정도		√
제19대 대선 후보자토론회가 후보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
가장 토론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후보		√
지지 후보 선택 정보 획득 매체		√
공공문제 정보 획득 매체	√	

(3) 응답자 특성

설문에 응답한 패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3 응답자 특성

		사례수	%
전 체		1,000	100.0%
성 별	남성	502	50.2%
	여성	498	49.8%
연령별	19-29세	175	17.5%
	30대	178	17.8%
	40대	206	20.6%
	50대	200	20.0%
	60대 이상	241	24.1%
권역별	서울	196	19.6%
	인천/경기	297	29.7%
	대전/충청	105	10.5%
	광주/전라	102	10.2%
	대구/경북	102	10.2%
	부산/울산/경남	157	15.7%
	강원/제주	41	4.1%
이번 대선 관심도	관심 있음	968	96.8%
	관심 없음	27	2.7%
	모름/무응답	5	0.5%
후보자토론회 시청 여부	시청함	968	96.8%
	시청 안함	32	3.2%
후보자토론회 시청 횟수	1회	159	16.4%
	2회	184	19.1%
	3회	153	15.8%
	4회	98	10.1%
	5회	92	9.5%
	6회	118	12.2%
	7회	136	14.0%
	모름/무응답	28	2.9%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 시청 여부	시 청 함	632	65.3%
	시청 안함	308	31.8%
	모름/무응답	28	2.9%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1회	164	26.0%

		사례수	%
후보자토론회 시청 횟수	2회	138	21.8%
	3회	172	27.2%
	4회	158	25.0%
선거기간 정보 습득 매체	TV	470	47.0%
	신문	42	4.2%
	인터넷	413	41.3%
	선거홍보물	27	2.7%
	기타	42	4.2%
	모름/무응답	6	0.6%
투표 후보별	문재인	539	53.9%
	홍준표	116	11.6%
	안철수	142	14.2%
	유승민	63	6.3%
	심상정	57	5.7%
	기타 후보	2	0.2%
	모름/무응답	81	8.1%
이념 성향별	보수	136	13.6%
	중도	659	65.9%
	진보	156	15.6%
	모름/무응답	49	4.9%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109	10.9%
	고등학교 졸업	246	24.6%
	대학교 재학중	53	5.3%
	대학교 졸업	519	51.9%
	대학원 이상	65	6.5%
	모름/무응답	8	0.8%
현재고용상태	고용중(정규직)	333	33.3%
	고용중(비정규직)	96	9.6%
	실업 상태	97	9.7%
	기타	13	1.3%
	응답 거부/무응답	461	46.1%
직업별	화이트 칼라	289	28.9%
	블루 칼라	142	14.2%
	자영업	167	16.7%
	가정주부	190	19.0%
	학생	74	7.4%
	농임여업	22	2.2%

		사례수	%
	무직/기타	114	11.4%
	모름/무응답	2	0.2%
가구월평균소득	200 만원이하	178	17.8%
	201-300 만원	132	13.2%
	301-400 만원	144	14.4%
	401-500 만원	139	13.9%
	501 만원 이상	312	31.2%
	모름/무응답	95	9.5%
지지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411	41.1%
	자유한국당	67	6.7%
	국민의당	151	15.1%
	바른정당	31	3.1%
	정의당	39	3.9%
	기타 정당	3	0.3%
	없음	259	25.9%
	모름/무응답	39	3.9%
토론회 상식 인지도	0개 정인지	66	6.6%
	1개 정인지	218	21.8%
	2개 정인지	306	30.6%
	3개 정인지	306	30.6%
	3개 정인지	210	21.0%
	4개 정인지	134	13.4%
	5개 정인지	66	6.6%

이번 조사 응답자들의 후보자토론회 시청 횟수는 1회 시청이 약 16%, 2회 시청이 약 19%이며, 일곱 번의 모든 토론회를 다 시청한 경우도 14%에 이르렀다. 이 중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응답자들은 65.3%인 632명이다.

유권자들이 후보자토론회를 주로 시청한 매체는 TV이다. 약 50%의 시청자들이 지상파 TV를 통해 토론회를 시청하였고, 약 32%의 응답자들은 종합편성채널에서 시청하였다. SNS나 인터넷을 통해 시청한 유권자들도 약 16%에 이르렀다. 연령대별로는 19세/20대의 약 44%가 SNS나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방송을 이용한 반면, 60대 이상 유권자는 약 70%가 지상파 TV를 통해, 약 25%가 종편 TV를 통해 토론회를 시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상파 TV를 통해 토론회를 시청한 40대와 50대 유권자는 각각 51.4%와 54.1%에 이르며, 이 연령대의 35.1%와 39.9%는 종편 TV에서 토론회를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후보자토론회의 제도, 인식,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 두 번의 패널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교차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먼저, 빈도분석을 통하여 설문조사 결과가 어떠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상관관계분석은 두 문항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요인이 주요 변인들과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활용된다. 두 문항 간의 관계를 보다 상세한 분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경우는 교차분석을 이용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는 후보자토론회 효과를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고자 여러 주요 변인들에 대해 회귀분석도 함께 진행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하여 후보자 선택 뿐 아니라 토론회 횟수, 공정성, 선거관심, 주변과의 선거 이슈 대화 등의 종속변수에 대한 후보자토론회의 영향을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변수 및 여러 심리·인지적 변수를 통제한 가운데 분석하였다.

4)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제도 분석

응답자의 약 56.6%가 후보자토론회를 매우 관심 있게 보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36.8%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고 응답했다. 선거에 대한 관심도 역시 매우 높은 편이었는데, 설문 참여자 중 약 96.8%가 이번 선거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했다.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과 선거에 대한 관심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선거 관심도와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도가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 횡수 시간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95%의 응답자들이 후보자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도 70%에 이르렀다.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유권자들의 비율은 약 4.8% 정도에 불과했다.

7번의 후보자토론회가 끝난 후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약 74.1%의 시민들이 후보자토론회 횡수가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선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토론 횡수가 부족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전 조사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일수록 후보자토론회 횡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선거기간 중 선두에 있는 후보를 지지할수록 후보자토론회 횡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선호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뒷받침 한다.

또한 토론회를 관심 있게 시청한 유권자들일수록 토론회 횡수를 늘리자는 견해를 가질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번 토론회를 관심 있게 시청한 사람들일수록 토론회의 유용성을 더 느꼈기 때문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토론 횡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유권들 사이에도 적절한 토론 횡수에 관한 선호의 차이가 존재한다. 총 7회를 기준으로 물어본 사후 설문조사에서 토론 횡수 증가를 원하는 응답자 중 약 78.9%가 10회로 늘리는 것을 원하였다.

한편, 후보자토론회 시간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현행 두 시간 동안 진행되는 방식을 선호하는 비율이 약 55.2%로 가장 높은 가운데,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약 3.3%로 소수에 불과했다. 반면, 약 41.5%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후보자토론회 시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사전조사에서 지지후보가 없었던 사람들일수록 그리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일수록 토론시간을 늘리자는 선호를 가질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후보자토론회의 진행방식

유권자들은 여론조사 상위 후보 위주의 토론 방식보다는 주요 정당 후보 모두가 참여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후보 위주의 토론에 대한 선호가 약 38.2%인 반면, 이번 선거의 참여 방식이었던 주요 정당 후보가 모두 참여하는 형식을 선호하는 비율은 약 61.8%로 대략 23.6%p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유권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토론 방식은 후보자들 간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방식에 대한 선호는 약 33.2%였다. 시민들이 자유토론 방식을 선호하는 것은 후보자들 간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좋은 진행 방식이라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자유토론 방식에 가까웠던 4월 19일 KBS 초청 토론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1차/3차 토론에서 특정 후보에게만 질문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비판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유토론이라는 방식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이러한 방식을 취했을 때 사회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두 번째로 높은 선호를 보인 토론 방식은 후보자들이 서서 대본 없이 자유토론을 진행하는 스탠딩 방식이다(약 19.8%). 그러나 이번에 행해진 스탠딩토론회는 자유토론회의 성격이 강했으며, 후보가 여럿인 상황에서 이러한 방식이 효과적이었는가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스탠딩토론 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스탠딩토론 방식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유권자의 비율은 약 64.6%인 반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시민들의 비율도 약 35.4%에 이르렀다. 이는 상호 정책검증토론 방식에 비해 만족도가 약 10%p 정도 낮은 수치이다.

후보자들이 정책을 발표한 후 이에 대한 질의를 하며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는 약 17.2%로 나타났다. 다수의 시민들은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들 간의 정책 차이를 좀 더 뚜렷하게 파악하고 싶은 반면, 토론 형식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방식은 각자 자신의 정책을 발표한 후 이에 대해 지정된 시간동안 토론을 하기 때문에 토론이 안정적일 수 있으며, 주제를 벗어난 토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상호 정책검증토론 방식에 대한 유권자들의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호 정책검증토론 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이번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보여준 주제를 벗어나는 토론이나 특정 후보자에게만 질의응답이 집중되는 토론에 대한 불만을 의미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유권자들은 스탠딩 자유토론 방식을 더 선호하면서도 만족도에서는 정책검증토론 방식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이러한 모순된 결과는 토론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유권자의 기대와 흥미를 반영하고 있는 반면 만족도는 유권자들의 실제 토론회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스탠딩토론 방식이 상호 정책검증토론 방식보다 선호도가 더 높다는 것은 스탠딩토론 방식 자체에 대해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대와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토론회 과정에서 스탠딩토론이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되면서 시청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토론회가 되었고 이에 따라 이 방식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표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유권자들은 방청자들이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응답 및 토론을 하는 방식도 상당히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설문결과에 따르면, 이 방식에 대한 선호가 약 18.5%로 세 번째로 높다. 향후 선거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유권자와 소통할 수 있는 방청객과의 질의 응답 중심의 토론회 진행방식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TV나 신문 또는 선거홍보물 등과 같이 전통적인 매체에서 주로 선거 정보를 습득하는 유권자들보다 인터넷에서 선거 정보를 습득하는 유권자들이 후보자 간 자유토론 방식에 대한 선호가 월등히 높고 스탠딩 방식의 토론에 대한 반대는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체 이용자들의 다른 특성에서 연유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인터넷에서 스탠딩토론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할 것이다. 다양한 매체에 노출되는 다매체 환경에서는 각 매체 환경별로 전혀 다른 인식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향후 후보자토론회를 계획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5)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인식 분석

(1)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과 투표참여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도와 투표여부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도는 투표참여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토론회에 관심이 높을수록 투표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연령에 있어서 30대가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관심을 보인 연령은 20대와 60대 이상이었다. 다음으로 학력에 있어서는 대학원 이상과 대학원재학 순으로 후보자토론회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가장 적은 관심을 보인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있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집단은 농업/임업/어업 종사자이며, 가장 적은 관심을 보인 집단은 생산/노무직, 기능/숙련직 순이다. 마지막으로 정당지지와 관련하여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후보자토론회에 가장 낮은 관심을 보였으며, 후보자토론회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정당지지는 바른정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도는 선거기간 정보 습득 매체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후보자토론회를 매우 관심 있게 보았다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비율(47%)은 TV 이용자(64.6%)나 신문 이용자(56.5%)에 비해 현격히 낮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낮다는 것은 향후 인터넷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후보자토론회가 이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2) 후보자토론회의 후보자 검증과 선거정보의 유용성

시청자들은 후보자토론회가 후보자 자질 검증에 유용한 기제인 반면, 정책 검증에는 큰 도움이 못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000명의 응답자들 중 618명(61.8%)이 후보자의 자질을 가장 잘 검증하였다고 하였으며, 다음으로 후보자의 능력(17.8%), 후보자의 정책(10.9%)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5.8%는 검증된 영역이 없다는 응답을 하였다. 후보자토론회가 수요자인 유권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정책 및 공약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응답자의 90%는 후보자토론회가 선거정보를 얻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었으며,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8.7%인 97명에 불과하였다. 이번 대선은 탄핵에 따른 조기대선이 이루어짐으로써 선거운동기간이 짧았으며, 또한 후보자의 정보를 획득할 기회 또한 상대적으로 적었다. 따라서 선거정보의 획득 기회로서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실제로 후보자토론회가 선거정보 획득에 있어 어느 때보다 효과적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더불어, 후보자토론회 시청자들의 약 82.7%는 후보자토론회가 다른 매체들이 제공하는 정보보다 유익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 결과는 후보자토론회가 선거정보에 대해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18대 대선(78.2%)보다 높게 응답된 수치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후보자토론회가 유익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대학원 재학 이상의 시청자들이 유익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대학교 재학 중인 유권자들은 토론의 유용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다. 직업적으로는 사무직 종사자들이 유익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학생이 가장 적게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지정당을 살펴보면, 바른정당 지지자들이 후보자토론회에 대해 유익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경우 가장 적게 응답하였다.

(3) 후보자토론회의 흥미성과 공정성

이번 대선 후보자토론회 시청자 중 약 75.1%가 이번 후보자토론회가 흥미롭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하였다. 23.7%만이 후보자토론회가 흥미롭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흥미성에 대한 이러한 높은 평가는 이번 대선의 특수성도 반영되었겠지만 이번 후보자토론회가 과거에 비해 좀 더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이외에 언론사 주관 후보자토론회가 이러한 다양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후보자토론회의 다양한 진행 방식이 시청자들의 흥미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향후 후보자토론회가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학력이 높을수록, 서울이 출신지역일수록, 그리고 정의당을 지지할수록 후보자토론회가 흥미롭게 진행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후보자토론회가 흥미롭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은 학력은 중졸 이하이며, 출신지역은 대전/충청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응답자가 후보자토론회에 대해 가장 흥미롭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토론회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응답자 중 78.4%는 이번 후보자토론회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 비율은 사전 조사에서 과거의 후보자토론회가 공정했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14.2%p 높아졌다는 점에서 과거에 비해 이번 후보자토론회가 좀 더 공정하게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남성일수록, 50대일수록, 자영업자일수록, 그리고 바른정당 지지자일수록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인식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경우는 여성, 30대, 학생과 가정주부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지자로 분석되었다.

또한 후보자토론회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이용 매체별로도 다르게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다른 매체 이용자에 비해 이번 대선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10%p 이상 낮고 불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의견이 TV나 신문 이용자들보다 8%p 이상 높았다. 이는 앞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낮은 관심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지난 선거에서 낙선한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다른 유권자들보다 부정적으로 지난 후보자토론회의 공정성을 평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분석 결과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사후 설문조사에서 특별히 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이번 후보자토론회의 공정성을 평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일수록 과거에 비해 이번 토론회의 공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후보자토론회가 선거 쟁점에 관한 정보 획득에 유용하다고 생각할수록 후보자토론회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후보자토론회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토론의 유용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정성은 후보자토론회에 있어 중요한 평가기준이며, 유권자의 투표결정과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6)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1) 시청자 집단 분석

한번이라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 대상자는 96.8%인 968명에 달했다. 후보자토론회를 한번이라도 시청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 대상자 중에서 후보자토론회 시청 빈도수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후보자토론회를 1회 시청했다고 대답한 응답자 비율은 16.4%이며 7회 모두 시청했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도 14.0%에 달했다. 가장 높은 비율은 19.1%로서 2회를 시청한 응답자에서 나타났다.

(2) 사전/사후조사의 결과 비교를 통한 후보자토론회의 정치적 효과 분석

① 심리·인지적 효과

● 선거관심 :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 관심도와 대화 빈도의 변화

후보자토론회를 통해서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 중 4분의 3에 달하는 74.6%가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후에 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다고 응답하였다. 변화가 없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23.0%였다.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다고 답한 응답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에 주변사람들과의 대화 빈도 또한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 주변 사람들과 대화가 매우 많아졌다고 대답한 응답자도 41.1%에 달했다. 대화를 조금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45.1%였다. 이 두 범주를 합하면 후보자토론회가 86.2%의 시청자를 주위 사람들과의 대화로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대화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시청자는 4.2%에 지나지 않았다.

• 공약과 대선 정보쟁점에 대한 인지도

사전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에서 공약을 인지하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응답자의 5분의 4가 넘는 87.8%에 달했다. 반면에 인지하지 못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11.6%에 그쳤다. 사후조사에서도 공약인지도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주요 후보들의 정책 공약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88.5%로 나타나 사전 조사보다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10.6%로 나타나 사전조사보다 약 1.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인지도에 대한 후보자토론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난 것은 대부분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유권자들로 구성된 표본의 특성 상 응답자들의 공약에 대한 인지도가 사전조사 시점에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르러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토론회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정책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74.7%에 달했다. 또한 대선의 쟁점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후보자토론회가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는가를 묻는 문항에 대한 분석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82.5%가 후보자토론회가 대선 쟁점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답했다.

• 정치적 효능감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비교할 때 내적 효능감은 평균 0.09점이 증가하였고 외적 효능감은 평균 0.14점이 증가하여 정치적 효능감의 증가폭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이는 사전조사에서 이미 효능감이 최댓값인 5에 치우쳐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내적 효능감의 경우 5점은 전체 응답자의 76.9%에 달했고 외적 효능감은 응답자의 70.9%에 달했다. 하지만 사전사후를 비교해 볼 때 내적 효능감과 외적 효능감 모두에서 가장 높은 값인 5점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에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상승양상이 존재했다. 특히, 후보자 토론회의 시청은 내적인 효능감보다는 외적 효능감의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후보자 자질, 정책 공약, 국정능력 평가

먼저, 후보자토론회가 후보자의 자질을 비교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80.0%였다. 반면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미미한 수준으로 6.0%에 그쳤다.

둘째, 후보자토론회가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비교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67.5%였다. 반면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0.2%에 그

쳤다.

셋째, 후보자토론회가 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을 비교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64.7%에 달했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9.0%였다.

● 정책 인지 : 후보자토론회가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 인지에 미친 영향

문재인 후보의 81만개 공공일자리 공약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5.7%가 정확히 인식하였다. 둘째, 홍준표 후보가 내세웠던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 기살리기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에서 단지 33.2%만이 이 공약이 홍준표 후보의 공약이라고 답하였다. 이 공약이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22.0%나 되었다. 셋째, 안철수 후보의 학제개편 공약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2%가 공약의 주인공을 제대로 인식하였다. 넷째, 유승민 후보의 칼퇴근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단지 24.0%만이 공약의 소유권을 정확히 인식했다. 오히려 칼퇴근법이 심상정 후보의 공약이라고 답한 비율(36.4%)이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가 제시한 사회복지세의 경우도 응답자의 단지 28.5%만이 이 공약이 심상정 후보의 공약이라고 답하였다. 이 공약이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라고 답한 비율도 18.8%에 달했다.

이 분석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선두권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공약의 주체에 대해서 비교적 잘 알고 있었지만 소수정당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인식 부분에서도 지적되었던 바와 같이 후보자토론회가 아직은 정책공약이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영역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확인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② 태도효과 : 후보자 호감도에 미친 영향

후보자토론회 이후 선호도의 변화 크기는 문재인 후보(1.59), 유승민(1.17), 심상정(1.06), 홍준표(0.1)의 순이었다. 반면에 토론회 이후 선호도가 감소한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유일했다(-0.62).

문재인 후보에 대한 호감도는 사전조사에서 ‘매우 좋아한다’가 15.7%였으며, ‘매우 싫어한다’가 17.2%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사후조사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호감도는 ‘매우 좋아한다’가 23.3%로 증가한 반면 매우 싫어한다는 5.4%로 크게 감소하였다.

홍준표 후보에 대한 호감도 조사결과는 사전조사 시 ‘매우 좋아한다’가 2.4%인 반면 ‘매우 싫어한다’는 44.3%였다. 사후조사에서는 ‘매우 좋아한다’가 2.0%로 감소하였으며, ‘매우 싫어한다’ 항목도 41.9%로 감소하였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도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 있어 호감도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매우 좋아한다'의 경우 사전조사시 5.7%였는데 사후조사에서는 2.2%로 감소하였다.

유승민 후보의 경우 사전조사에서 '매우 좋아한다'는 2.5%였으며, '매우 싫어한다'는 10.5%였다. 그러나 사후조사에서 '매우 좋아한다'는 2.1%로 미미하게 하락하여 큰 변화가 없었으나 '매우 싫어한다'는 5.7%로 크게 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심상정 후보에 대한 호감도의 변화를 보면, 사전조사에서 '매우 좋아한다'라는 응답이 3.5%인 반면 사후조사에서는 4.2%로 미미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매우 싫어한다'는 응답도 사전조사에서는 11.5%였으나 사후조사에서는 7.0%로 감소하였다.

③ 선택효과 : 후보결정에 미친 영향

후보자토론회가 시청자들의 후보지지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제17대 대선에서 61.2%, 제18대 대선에서 63.8%, 제19대 대선에서 68.1%로 상승했다. 특히 매우 영향을 미쳤다고 대답한 조사 대상자의 비율이 제17대 대선에서 15.8%에서 제19대 대선 28.9%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응답자가 지지하던 후보의 후보자토론회 성과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평가와 관계 없이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에도 기존의 지지후보를 유지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69.7%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에 자신이 지지하던 후보에 더욱 호감을 갖게 되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38.1%였으며 후보자토론회 시청이 지지후보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31.6%였다.

제18대 대선 후보자토론회의 영향력과 비교해 볼 때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에 지지후보에 대해서 더욱 호감을 갖게 되었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10%p이상 감소했다.

토론회를 가장 잘했다고 평가를 받은 후보자는 전체 응답자 중에서 44.2%의 지지를 받은 심상정 후보였다. 2위는 유승민 후보로서 전체 응답자 중에서 26.8%의 지지를 얻었다. 3위는 문재인 후보로서 14.4%의 지지를 받았다. 4위는 홍준표 후보로서 6.9%의 지지만을 얻었고, 최하위는 안철수 후보로서 1.9%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

홍준표 후보 지지자의 경우 가장 많은 비율인 60.4%가 홍준표 후보가 토론을 가장 잘했다고 평가했고, 문재인 후보 지지자의 경우 과반수가 넘는 55.0%가 심상정 후보자가 토론을 가장 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 지지자의 경우 단지 5.2%만이 안철수 후보가 토론회를 가장 잘했다고 평가했다. 전체적으로 유권자들의 후보자토론회 성적에 대한 평가는 진영 논리보다는 토론회의 객관적인 실적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후보 지지자와 홍준표 후보 지지자의 경우 후보자토론회 시청으로 인해서 지지의 큰 변동을 겪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안철수 후보의 경우 과반수에 약간 모자라는 49.8%만이 안철수 후보에게 실제로 투표하였다. 유승민 후보의 경우는 지지 유지율이 66.7%였고, 심상정 후보의 경우 과반수에 약간 미달하는 47.7%가 실제로 심상정 후보를 선택하였다. 가장 큰 이탈은 문재인 후보로의 이탈이었다. 이 분석 결과는 후보자토론회 시청의 효과가 기존 지지 후보의 강화 효과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지 후보 변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3) 회귀 분석

- 선거관심도 :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후보자토론회를 더 많이 시청한 사람일수록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보자토론회 시청빈도 이외에 선거관심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된 변수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일체감, 정치내적 효능감, 정치지식이었다.
- 정치적 대화 : 후보자토론회를 많이 시청할수록 토론회 이후에 주위사람들과 정치적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관심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치 내적 효능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주위 사람들과의 정치적 대화에는 연령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40대 이상 연령변수(40대, 50대, 60대 이상)가 정치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치적 대화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후보자 선택(문재인 대 홍준표) : 후보자토론회를 많이 시청할수록 문재인 대 홍준표 선택에서 홍준표를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내적 효능감이 구여권이었던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와 새롭게 집권에 성공한 문재인 후보사이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누구에게 투표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인식할수록 홍준표 후보다는 문재인 후보를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더불어, 선거관심도나 정치대화에서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던 정치이념이 문재인 대 홍준표 후보 선택에서는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자신이 보수적인 유권자라고 응답한 유권자일수록 문재인 보다는 홍준표 후보를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또 대구·경북(홍준표 지지)과 호남(문재인 지지)이라는 지역적 차이도 후보 지지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였다. 더불어, 50대와 60대 이상 유권자일수록 문재인 후보보다 홍준표 후보를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 후보자 선택(문재인 대 안철수) : 문재인 대 안철수 경우를 살펴보면,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라고 스스로 응답한 유권자일수록 문재인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를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20대 유권자(19세 포함)는 안철수 후보 보다 문재인 후보를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또 정치지식이 높을수록 안철수 후보 보다 문재인 후보를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후보자토론회 시청빈도 등 기타 변수는 문재인 대 안철수 경쟁 구도에서 후보자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7) 결론 :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선 방안 논의

(1) 제19대 대선에서의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인식과 효과

탄핵정국과 다당적 구도라는 예외적인 환경에서 이번 대선의 후보자토론회는 여러 후보의 자질과 능력 및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기제였다고 평가된다.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 후보자토론회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후보자토론회는 그 흥미성이나 효과성 및 공정성에 있어서 상당한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번 제19대 대선의 후보자토론회는 역대 가장 높은 후보자토론회 시청률을 갱신할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 데 성공하였다. 약 83%의 유권자들이 후보자토론회가 다른 정보매체에 비해 매우 또는 다소 유익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후보자토론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95%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이번 후보자토론회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의견도 거의 80%에 이르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제19대 대선의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치적 효능감 및 정책 인지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토론회는 후보에 대한 지지의 강화 뿐 아니라 지지 후보의 변경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후보자토론회 제도 개선 방안 논의

① 토론회 형식 및 진행 방식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유권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토론 방식은 후보자들 간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유토론 방식은 진행에 따라서는 특정 후보에게만 질문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 토론 방식에서는 특히 사회자의 역할이 중요한 변수로 대두되었다.

토론회 형식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는 상당히 분산되어 있다. 다수의 유권자들은 스탠딩 토론 방식 및 후보자 간 정책 발표 후 상호 검증을 위한 토론 방식을 선호하고 있기도 하다. 유권자들이 토론회 진행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다양한 응답으로 나뉘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압도적으로 효율적인 방식은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다.

전문가들은 모든 토론회가 하나의 진행 방식으로 진행되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토론회의 흥미성과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토론 방식은 이번 대선에서 시도되었던 자유토론과 상호 정책검증, 주도권토론 이외에도 방청객과의 토론이 있는 시민포럼(town-hall meeting) 방식이나 후보자와 전문가 집단과의 토론 방식 또한 고려해 볼만한 토론회 진행 방식으로 제안되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토론회 진행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자의 역할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자유토론에서의 사회자 역할은 토론회 성패의 핵심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토론회 형식별로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회자를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더불어, 이번 조사에서 유권자들의 약 62%가 주요 정당 후보 모두가 참여하는 토론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6인의 후보가 참여하면서 토론회의 흥미도가 크게 떨어졌던 2007년과는 매우 다른 양상이다. 이 차이는 아마도 2007년과 다르게 이번 주요 후보자토론회에 참여한 다섯 명의 후보자 모두가 대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들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향후 한국 정치의 구도가 양당 구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당적 구도로 갈 것인지에 따라 주요 정당 후보가 모두 참여하는 토론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여론조사 상위 후보 위주의 토론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가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선과 같이 영향력이 큰 후보자들이 경쟁하는 경우 여론조사 상위 후보 위주의 토론 방식은 많은 논쟁과 문제 제기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양당 구도 하에서 형평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영향력이 약한 후보자들까지 토론회에 참여하는 방식은 자칫 토론회의 핵심을 흐리고 유권자들의 흥미를 떨어뜨리게 될 수 있다.

② 토론회 횟수 및 시간

이번 대선에서는 과거에 비해 후보자토론회의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총 7회인 토론회 횟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약 60%에 달하기는 하였지만 부족하다는 의견도 40%에 이르고 있었다. 횟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가진 유권자들 중 약 79%가 토론회를 10회로 늘리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전문가 집단은 토론회 횟수를 현재보다 늘리는 데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기 보다는 현재의 토론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높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다만, 제 19대 대선의 후보자토론회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토론회 이외에도 3회에 걸친 토론회가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전체 토론회 횟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에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의 4회 토론회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후보자토론회의 토론시간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약 55%가 현행 두 시간 진행 방식을 선호하는 가운데 약 42%의 유권자들은 방송 토론 시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전문가 집단 역시 현행 두 시간의 토론회 시간으로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검증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시간에 대한 논의는 토론회 진행 시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토론회의 형식이나 내용 또는 토론회의 질과 관계가 있는 변수로 인식하고 있었다.

후보자토론회가 토론회에 다양한 의제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후보자끼리의 네거티브 공세나 인식공격에 활용되지 않고 정책토론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우 현행 시간 내에서도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면서 적절히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토론회에 요구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토론회의 흥미도와 관련하여 토론시간의 연장은 유권자들의 토론회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게 되어 보다 많은 시청자들을 토론회에 노출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전문가 집단에서는 이번 대선의 군소정당 후보자토론회의 실효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번 대선의 군소정당 후보자토론회의 경우, 인지도 및 여론의 지지도가 매우 낮은 후보자들까지 토론회에 모두 참여함으로써 적절한 수준의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시청자들의 관심도도 매우 낮았다. 이에 대해 몇몇 전문가들은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군소정당 후보자토론회를 개최하되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는 후보자에게만 토론회 참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

소정당 후보자토론회의 효과성과 흥미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③ 정책 검증과 선거관심도 제고를 위한 제안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번 대선 후보자토론회는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데에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후보자의 정책을 검증하는 데에는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선거관심도의 제고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유도하지는 못함으로써 정책선거에 대한 기여도는 아직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토론에 참여하는 후보자들의 변화가 일차적으로 요구되지만, 토론회의 제도적 장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는 후보자들은 인식공격 또는 네거티브의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것도 사실이다.

후보자 토론이 정책적 토론이 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전문가들은 후보자와 전문가 집단과의 정책토론 형식이나 후보자와 유권자들과의 토론을 바탕으로 하는 시민 포럼 방식의 토론회 등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고도로 진화된 소셜네트워크 환경에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유권자들의 참여 또한 다각도로 고려해 볼 현안이다. 특히 TV 이용률이 점점 낮아지는 젊은 유권자들을 고려할 때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토론회 방식이 긴급히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토론회의 방식은 다른 이용자와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고 토론회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 중 19세와 20대 유권자들의 44%는 이번 대선에서 TV 대신 SNS나 인터넷을 통해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늘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특성을 활용한 실시간 토론 참여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면서도 이들 뉴미디어 이용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선거방송토론 관련 법규 및 규정

- 「공직선거법」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 관리규정」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

【 공직선거법 】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타법개정]

제8조의7 (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등”이라 한다)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각각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 또는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제2호 후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5, 2015·8·13>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11명 이내,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

2.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정당추천위원을 포함한 위원 3명(정당추천위원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원을 모두 포함한 수를 말한다), 학계·법조계·시민단체·전문언론인 중에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 이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위원의 임기는「선거관리위원회법」제8조에 따른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③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겸한다. <개정 2010.1.25>
- ④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 ⑤ 정당의 당원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⑥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등의 주관·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⑦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영방송사 또는 관련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⑧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또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5.8.4, 2010.1.25>
- ⑨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⑩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①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 한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1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제6호의 노동조합과 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7.11.14,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 1. 삭제 <2004.3.12>
- 2. 삭제 <2004.3.12>
- 3. 삭제 <2004.3.12>

② 제1항에서 “대담”이라 함은 1인의 후보자 또는 대담자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토론”이라 함은 2인 이상

의 후보자 또는 토론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1.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최단체명·대표자성명·사무소 소재지·회원수·설립근거 등 단체에 관한 사항과 초청할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의 성명, 대담 또는 토론의 주제, 사회자의 성명, 진행방법, 개최일시와 장소 및 참석예정자수 등을 개최일전 2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개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할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의 참석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의한 대담·토론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게시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대담·토론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하여야 하되,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대담·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정당, 후보자, 대담·토론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관련하여 대담·토론회를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다.

⑦ 제1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그 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⑧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12항의 규정은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8.4.30>

⑨ 대담·토론회의 개최신고서와 표지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14>

[제목개정 2000.2.16.]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①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는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다만, 제5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

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0.2.16, 2005.8.4, 2007.1.3, 2008.2.29, 2009.7.31, 2010.1.25>

② 제1항의 대담·토론회는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한다.

③ 제1항의 대담·토론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12항,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 연설의 방송)제2항 및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제2항·제6항·제7항의 규정은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2.16>

[제목개정 2000.2.16.]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1. 대통령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2회 이상

②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2.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1회 이상

③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나.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그 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개정 2010·1·25>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⑤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의 시간이나 횟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대담·토론회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초청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제10항 또는 제11항의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⑦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⑧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에서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거나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자막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⑨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장에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담·토론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⑩ 공영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되,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는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8·4, 2008·2·29>

⑪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제10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방송사가 중계방송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송시설이용료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5·8·4>

⑫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⑬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⑭ 대담·토론회의 진행절차, 개최홍보, 방송시설이용료의 산정·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3.12.]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당·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의 다음달)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공표한 정당을 제외한다)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②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대담·토론회)제7항 내지 제9항·제10항 본문·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5·8·4>

③ 정책토론회의 운영·진행절차·개최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⑤ 제82조의2제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1.25., 2014.2.13.>

「공직선거관리규칙」(별표3) 과태료부과기준

(단위 : 만원)

처분대상	관계법조	법정 상한액	부과기준
7.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행위	○ 법 제261조제5항· 법 제82조의2제4항	400	가. 매회마다 : 400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2016. 1.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4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제2조(적용범위)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의 규정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법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정당법」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합동방송연설회 및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의 주관·진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8·4>

제3조(협조요구)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인력·기술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방송사(이하 “공영방송사”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 기타 관련기관·단체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12·23>

② 제1항의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 등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설치) ① 중앙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토론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구·시·군토론위원회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둔다. <개정 2005·8·4, 2010·1·25>

② 시·도토론위원회와 구·시·군토론위원회의 명칭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앞에 해당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개정 2010·1·25>

제5조(직무) ① 중앙토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하며,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1.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2.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3. 「정당법」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신설 2005·8·4>

② 시·도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를 행하며, 구·시·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5·8·4>

③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이 경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시장선거에 있어 1개의 선거구의 구역안에 2이상의 토론위원회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별표 2의3에 따라서 시장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그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05·8·4>

제5조의2(사무의 대행) ①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토론위원회는 그 관할구역 안의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다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는 해당 구·시·군토론위원회로 보며, 토론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구·시·군토론위원회가 개최할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의 주관·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사무를 대행하거나 인근 구·시·군토론위원회로 하여금 그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8·4]

제6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8조의7제2항에 따라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8·12·23, 2010·1·25>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토론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의뢰받은 정당·공영방송사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해임하는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10조에 규정된 해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11·30>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장·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제목개정 2005.8.4.]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토론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0·1·25>

② 위원장이 결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중앙토론위원회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5>

제8조(상임위원) ① 중앙토론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1·15>

③ 상임위원은 중앙토론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1. 방송사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신문방송학·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교수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각급토론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② 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임사유)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현저히 저해한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
5. 공영방송사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공영방송사의 요구가 있는 때 <신설 2010·1·25>
6. 법 제8조의7제2항제2호에 따라 구·시·군토론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임·해촉 또는 파면된 때 <신설 2010·1·25>
7.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 <개정 2005·8·4, 2010·1·25>

제11조(위원의 대우)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수당·여비 그 밖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3·24, 2010·1·25>

②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토론회등의 사무에 종사한 때에 지급하는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중앙토론위원회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시·도토론위원회 및 구·시·군토론위원회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다목에 따른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7·2·16, 2008·3·24>

제12조(위원의 의무와 권한)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회의소집)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법령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중앙토론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시·도토론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장이, 구·시·군토론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이 각각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5>

제14조(위원회)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의결사항으로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 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안표지·의안대장·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제15조 (위원회회의 공개) 각급토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토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의결정족수) 각급토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소위원회)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1. 토론회등의 세부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담·토론의 진행방식, 주제·질문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주관·진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05·8·4>

4. 그 밖에 토론위원회가 정한 사항 <개정 2010·1·25>

②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1·25>

④ 소위원회는 그 운영결과를 지체없이 당해 토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자문위원등)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방송 또는 선거관련 전문가 중에서 약간 명의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은 토론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③ 각급토론위원회는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제 3 장 사 무 기 구

- 제19조(중앙토론위원회 사무국)** ① 중앙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방송토론팀과 토론지원팀을 둔다.
-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별정직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1·25, 2013·11·25, 2014·5·27>
 - ③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0·1·25>
 1. 토론위원회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무
 2. 토론회등의 개최 및 진행에 관한 사무
 3. 토론회등의 평가 및 백서 발간에 관한 사무
 4. 토론회등의 기법 연구·개선에 관한 사무
 5.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
 6. 시·도토론위원회 또는 구·시·군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7.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8.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촉·해촉 등에 관한 사무
 9. 예산의 집행 및 청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10. 보안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무
 11. 그 밖에 토론회등을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 ④ 팀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중앙토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1·25>

- 제20조(시·도토론위원회 사무국)** ① 시·도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이 겸임한다.
- ② 시·도토론위원회 사무국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1·25>
 - ③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4>
 1.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2.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해촉 등에 관한 사무
 3. 구·시·군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4.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는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신설 2005·8·4>

5.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6. 기타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

제21조(구·시·군토론위원회 간사) ① 구·시·군토론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0·1·25>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0·1·25>

1.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2.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무
3. 법 제81조 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제 4 장 토론회등의 운영

제22조(언론기관의 범위) 법 제82조의2제4항에 따른 언론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가. 「방송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공영방송사와 서울특별시의 안에 있는 지역방송사업자에 한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가. 해당 선거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개정 2005·8·4, 2010·1·25나.

해당 선거구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제23조(대담·토론회) ①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법 제82조의2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중계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정하여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중계방송사 및 법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법 제82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후보자 등을 지정할 정당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보자는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 날까지 참석여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참석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불참사유서를 해당 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가 대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담·토론회 개최일의 다음 날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 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사회자·질문자를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공정한 자로 선정한다.

④ 대담·토론회의 주제와 질문사항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언론사·학계·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이를 수집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시·도 또는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중앙 또는 시·도토론위원회가 제시하는 주제와 질문사항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⑤ 대담·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대표자가 법 제82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이 대리인에게 추첨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등 또는 그 대리인이 추첨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토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후보자등을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⑥ 대담·토론회는 사회자가 질문한 후 후보자등이 답변하는 형식과 사회자를 통하여 후보자등간 상호 질문·답변하는 형식 등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대담·토론회의 진행방법은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1·25, 2016·1·15>

⑦ 각급토론위원회는 등록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정당을 말한다)의 총수가 2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에 제2항에 따라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모든 후보자등이 동의하는 때에는 그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등을 참석하게 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⑧ 각급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이하 이 항에서 “비초청대상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모든 비초청대상후보자가 동의하거나 비초청대상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5·8·4, 개정 2010·1·25>

제24조(합동방송연설회) ①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1.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보자의 수가 1인뿐이거나 5인 이상인 경우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수가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보자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개정 2010·1·25>
3. 그 밖에 대담·토론회의 개최·진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및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구·시·군토론위원회가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지체없이 당해 선거관리위원회·후보자 및 중계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일시 및 중계방송사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일시 및 중계방송사로 하되, 일시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③ 합동방송연설회에서 후보자의 연설순위는 추첨에 의하여 정하며, 후보자가 자기의 연설순위의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23조제3항 및 제5항 후단의 규정은 합동방송연설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합동방송연설회”로 본다.

제25조(정책토론회) ① 중앙토론위원회가 법 제82조의3 또는 「정당법」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일 전 7일(「정당법」에 따른 정책토론회는 개최일 전 20일)까지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 제82조의3제1항 또는 「정당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정당은 정책토론회 개최일전 3일까지 별지제5호서식에 의하여 정당의 대표자, 정책연구소의 소장(「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한한다) 또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정당의 대표자등”이라한다)의 참석승낙서를 중앙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③ 제23조제2항 후단부터 제6항까지(제4항 후단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해당 토론위원회”는 “중앙토론위원회”로, “후보자”는 “정당의 대표자등”으로 본다. <개정 2005·8·4, 2010·1·25>

제26조(토론회등의 개최시간) 토론회등의 1회 개최시간은 12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3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개최시간은 법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의 개최시간 이내에서 초청 대상 후보자 수를 고려하여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5·8·4>

제27조(토론회등의 중계방송) ① 중계방송사는 토론회등을 중계방송하는 때에는 생방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없이 녹화방송을 할 수 있다.

② 공영방송사는 협의에 의하여 대담·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를 선거일 전 3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까지 선거구단위로 정하여 당해 토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82조의2제11항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선거일 전 20일(보궐선거등에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까지 해당 토론위원회에 방송시설명·이용일자·시간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④ 중앙토론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영방송사와 협의하여 정책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를 정하여야 한다.

⑤ 중계방송사가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할 때에는 후보자가 연설하는 모습 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계방송시설 등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25>

- 제28조(토론회등의 공표·홍보)**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장소, 중계방송사명·중계방송일시, 참석후보자등의 성명, 사회자의 성명, 대담·토론의 주제 및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여 개최일전일까지 공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5〉
-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각급토론위원회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장소 등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 ③ 중계방송사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장소 등을 광고 또는 자막방송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29조(방송시설이용료의 지급)** ① 법 제82조의2제11항 후단에 따른 방송시설이용료는 당해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청구를 받아 지급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한 경우의 금액을 말하며,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시설·장비나 무대를 사용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1.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이용료 「방송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30으로 나눈 값(10 미만의 단수는 10으로 본다)에 당해 선거구의 세대수(그 수가 7만 미만인 경우에는 7만으로 한다)를 곱한 금액 〈개정 2005·8·4〉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이용료 제1호에 의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이용료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비용에 의한다.
1. 방송제작비용 : 시설·장비사용료, 무대설치비, 타이틀제작료 및 연출 등 인건비
 2. 방송비용 : 송출료

- 제30조(토론회등의 질서유지)** ① 토론회등에서 사회자는 참석후보자들이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 또는 연설하는 때에는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발언 또는 연설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각급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참석후보자들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사회자로 하여금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도록 하고, 자막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각급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사회자는 토론회등에서 참석후보자들의 발언 또는 연설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토론회등의 장소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 제31조(사무처리 등)** 각급토론위원회의 조직·인사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감사 등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개정 2005·8·4〉

제32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토론회등의 의제설정, 개최·진행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앙 및 시·도토론위원회에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5>
[제목개정 2013.11.25.]

제33조(예산집행) 토론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집행한다. 다만,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는 당해 토론위원회를 설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다.

제34조(위임규정) 토론회등의 주관·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토론위원회가 정한다.

부 칙 <제443호, 2016·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위원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상임위원 지명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 관리규정 】

개정 2017. 1. 2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고시 제2017-1호

1조(목적)이 규정은 「공직선거법」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른 후보자 토론회의 주관·진행, 그 밖에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자의 선정) 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는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단체 등에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른 후보자 토론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토론자의 토론회를 포함한다. 이하 “토론회”라 한다)의 사회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사회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회의에서 선정한다.

제3조(질문자의 선정) ① 토론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문자를 둘 수 있다.

② 질문자는 일반국민 또는 전문가 중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회의에서 선정한다.

③ 질문자는 해당 토론회 시작 전까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후보자 또는 후보자 관계자와 토론회와 관련된 정보나 의견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제4조(토론회 진행방식의 결정 등) ① 토론회의 진행방식은 참석할 토론자(후보자 또는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토론자”라 한다)의 수를 예상하여 단일 또는 복수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행방식을 결정하여 이를 공표·통지한 후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 또는 참석할 토론자 수가 달라져 진행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진행방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표·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질문사항의 수집과 공개여부) ① 토론위원회는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의 의견 또는 질문을 수집하여 토론회의 질문사항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론위원회는 질문사항의 요지 또는 내용의 공개여부를 정하되 토론방법 등에 따라 질문사항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토론회장의 설비) ① 토론위원회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서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토론자를 지정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제3항과 제7조 및 제12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토론회장 설비 내용을 개최일 전일까지 안내하여야 한다.

1. 토론자와 사회자, 질문자 등의 위치

2. 토론자와 사회자의 대기실 및 분장실

3. 토론회와 관련된 음향 및 영상에 필요한 주요장비 및 시설

② 토론회장의 구조는 어느 쪽에서 토론자를 카메라로 비추어도 토론자간에 차이가 없도록 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문양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③ 토론위원회는 참석대상 후보자가 불참을 통보하여 오거나 불참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론자의 좌석 등을 설비하지 아니하며, 토론회장의 설비 후에 불참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토론회 시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좌석 등을 철거할 수 있다.

제7조(토론회의 청중) ① 토론위원회는 토론회장의 설비나 질서유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중을 둘 수 있다.

1. 일반 유권자

2.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단체의 회원 등

3. 토론위원회가 참석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추천을 의뢰한 인원

② 청중은 토론회의 진행 중에는 박수를 치거나 발언을 하는 등 토론회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토론자의 착용·부착물) 토론회에 참석하는 토론자는 통상적인 장신구나 배지, 법 제68조에 따른 선거운동용 윗옷·어깨띠를 착용·부착할 수 있다.

제9조(참고자료의 사용) 토론자는 토론회에서 A3 용지 규격 이내의 서류·도표·그림, 그 밖의 참고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7.1.23]

제10조(토론회의 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토론진행표의 시간을 조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 질문자는 사전에 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질문사항으로 질문하여야 하며, 이와 다른 질문을 하는 경우 사회자는 질문자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토론자는 토론회의 진행 중 토론회장을 벗어날 수 없으며, 임의로 토론회장을 벗어난 경우 그 토론자는 토론회장에 다시 입장할 수 없다.

④ 토론위원회는 참석대상 토론자가 불참하거나 참석 토론자가 토론회 진행 중 임의로 토론회장을 벗어난 경우 사회자를 통해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방송자막으로 표출하게 한다.

제11조(중계방송) ① 토론회의 중계를 주관하는 방송사(이하 “중계주관방송사”라 한다)는 유권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대담·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언론사(법 제8조의5에 따른 인터넷 언론사를 포함한다)의 토론회 중계방송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중계주관방송사가 토론회의 방송화면을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면구성은 토론자간 최대한 균등하도록 한다.
2. 기초연설과 맺음말을 하는 경우에는 발언하는 토론자만을 비추도록 한다.
3. 토론회의 중계 도중 선거관련 속보를 자막 등의 형태로 방영할 수 없다.

제12조(재방송) ① 토론위원회는 토론회 개최 전에 모든 토론자와 해당 방송사가 동의한 경우 토론회를 재방송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토론회의 재방송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 토론회의 발언내용 중 법에 명백히 위반된 내용이 있는 경우
2.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 전원이 재방송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제13조(토론회 진행방식의 공표에 관한 특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토론회의 진행방식을 선거일전 6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30일)까지 참석예정 후보자수별로 각각 결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3>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3>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훈령 제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3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소집) ① 각급토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위원회의 개최일전 2일까지 위원에게 개최일시 및 장소, 의안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소집 및 의안 등의 통지는 서면(인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전화, 문자메시지 등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3조(의안) ① 의안은 의결사항,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각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1. 의결사항

규칙 제5조에 따른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와 정책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 초청후보자 선정, 사회자 선정, 주제 및 질문사항 선정, 토론진행방식 결정, 그 밖에 해당 토론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요하는 사항

2. 보고사항

가. 법령 및 각종 사무편람·지침 등에서 해당 토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토론위원회 사무국(간사장을 포함한다)에 보고를 요청한 사항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다. 토론위원회 관련 법규의 제정·개정 등 위원들의 검토를 요하는 사항

② 의안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의안대장에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여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의안처리절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에서 의사일정표에 따라 의안을 상정(上程)한다. 다만, 위원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안처리 순서를 바꿀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제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통지를 하는 때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최, 의안처리결과 공표 또는 정회(停會), 산회(散會), 휴회(休會), 폐회(閉會) 등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때마다 의사봉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의안의 심사 또는 검토를 위해 해당 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에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서면의결)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위원회의에 상정(上程)할 의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일상적·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의안으로써 심사·검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서면의결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을 준용한 의결록에 의한다.

제6조(회의록 작성)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사무국장·간사장 및 간사는 별지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및 결석위원, 배석자
3. 상정(上程) 의안
4. 의안별 공개·비공개 결정사항
5.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
6. 개회·폐회시간, 산회(散會)·정회(停會)·휴회(休會)·개의(開議)시간 등

③ 회의록의 간인은「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제14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녹음 등)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발언내용의 정확한 기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녹음 또는 속기할 수 있다.

② 녹음 또는 속기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의 개최 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회의록의 확인 등) ① 회의록은 다음 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회의록의 보고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이 회의록의 수정(修正) 또는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토론위원회의 동의(同議)를 받아야 한다.

제9조(회의록의 보존 등) ① 회의록은 각급토론위원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그 원본은 회차별로 분류하여 영구 보존한다.

② 위원회의에서 비공개 결정된 의안이 있는 경우 그 회의록 우측 상단의 여백에 별지 서식에 따라 빨간색으로 [비공개] 라고 표시한다.

③ 회의록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등록 및 보존·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회의록 공개)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회의록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에 따라 해당 회의록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때에는 회의록에 기재된 참석위원, 결석위원, 배석자 명단, 발언내용에 관한 해당 발언자의 직책 및 이름, 발언내용 중에 기재된 위원 기타 특정 개인의 이름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③ 위원회의에서 비공개 결정된 의안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비공개사유가 소멸되었거나,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구·시·군토론위원회 간사장 등)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간사를 지정하되, 간사 중 1인은 간사장으로 지정한다.

- ② 간사장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이 한다. 다만, 지도담당관을 두고 있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도담당관을 간사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구·시·군토론위원회의 간사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에 상정(上程)할 의안의 정리·배부, 회의록의 작성 등 위원회의의 운영과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토론회 사무 전반을 총괄한다.
- ④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하며 간사장이 유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고시 제 2015-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5조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의 위원회의의 공개 및 방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정 등 공개) 각급토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개최일전 2일까지 위원회의의 일시, 장소, 의안(이하 “일정등”이라 한다)을 각급토론위원회 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위원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론위원회의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국민에게 무용한 혼란 및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
 4.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
- ② 각급토론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의 비공개를 결정하는 경우 의안의 전부 또는 각 의안별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방청이 허가된 공개된 위원회의라 할지라도 위원회의 진행 중 발언 내용 등이 제3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비공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석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방청) ① 위원회의를 방청하려는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토론위원회에 방청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의 방청 허가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 결과를 방청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일정등을 공개할 때에 방청의 허가 여부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④ 방청인은 방청이 허가된 의안에 대해서만 방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에서 의안의 심사·의결이 종료 되면 즉시 퇴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의 방청을 허가받은 사람은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고, 개회(開會) 전까지 출입증을 받아야 한다.

⑥ 각급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신분이 확인된 방청인에 한하여 신분증명서를 보관한 후 방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교부하고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⑦ 방청인이 위원회의장에 입장할 때에는 출입증을 달아야 한다.

제5조(방청석 설비) 각급토론위원회는 방청인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방청석을 마련하되, 위원회의장과 방청석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방청의 제한) ① 위원장은 무기·흉기·폭발물 등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사람, 음주한 사람, 그 밖에 위원회의장과 방청석의 질서유지를 방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수 및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방청인은 해당 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제7조(녹음 등 허가) ① 방청인은 위원장의 허가없이 위원회의장 안에서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방청신청을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방청인의 준수사항) ① 방청인은 위원회의장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전허가 없이 위원회의를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하기 위하여 녹음기, 캠코더, 카메라, 방송장비

등을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찬성·반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방청석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어깨띠, 옷(上衣), 표찰(標札), 손팻말(手旗), 그 밖의 소품을 이용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청인은 회의장의 질서유지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9조(퇴장명령) 위원장은 제4조에 따라 방청이 허가된 방청인이라 하더라도 방청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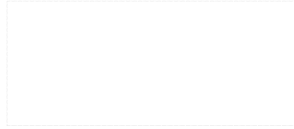
집필 후기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평가회 준비가 한창이던 6월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꼬박 반년이 걸린 셈이다. 당초 예정보다 탈고가 늦어진 이유는 있다. 선거방송토론의 초석이 되는 전국대학생토론대회와 올해 처음 서막을 장식한 전국고등학생토론회의 개최, 그리고 무엇보다 위원회 역사상 초유의 정당정책토론회 무산으로 집필을 잠시 접어들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여러 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문제의 해법을 찾아내야 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선거가 12월에 예정된 ‘눈꽃선거’에서 5월의 ‘벚꽃선거’가 된 만큼이나 후보자토론의 시대적 흐름도 획기적인 변화가 요청되는 형국이다. 역대 가장 파격적인 변화로 꼽히는 스탠딩 토론과 완전시간총량제로 진행된 자유토론 그리고 후보자 간 상호 정책검증토론은 유권자를 위한 정보제공의 지평을 넓힌 괄목할만한 성과였다. 이에 따라 새롭게 적극적으로 추진한 모든 것들을 이 책에 수록하였다. ‘백서’라 함은 수치의 정확함과 사초와 같은 정직함을 갖추어야 하기에, 탈고가 계획보다 한 달 가량 늦어지긴 했지만 이제까지 우리의 노력과 앞으로의 희망을 모두 담아 백서의 기본을 갖추고자 진력하였다.

선거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선거와 토론을 학습하고 연구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여러분께 이 백서가 실증자료 및 지식의 보고(寶庫)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아무쪼록 이 백서가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선거방송토론의 시작과 끝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국민과 함께하는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백서 집필진



[뒷줄 좌측부터]

주임 홍은표, 사무보조 권유림, 주임 박희근, 주무관 이제중·권성욱·오지양, 주임 손은영·이다윤

[앞줄 좌측부터]

주무관 김준오, 토론지원팀장 심현화, 상임위원 남택용, 사무국장 이주현, 방송토론팀장 최영돈

